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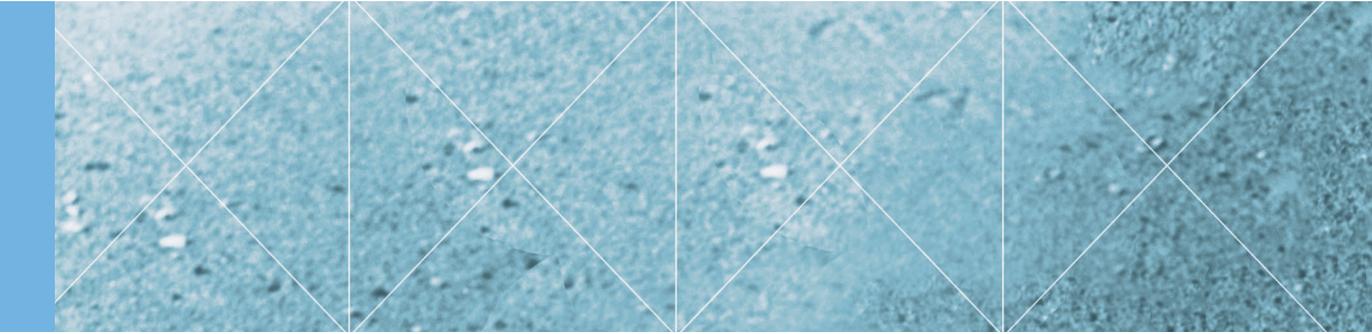
2010_KRIHS Annual Report

2010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0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미래의 新국토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Think Tank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발간에 즈음하여]



2011년 8월
원장 박양호

박 양 호

2010년은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고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상승궤도로 접어든 한 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래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 국토환경 보전, 토지·주택의 개발 및 공급, 도시개발 및 관리, 건설산업의 육성, 국토인프라 공급,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국토의 경쟁력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개발에 전념해왔으며, 나아가 남북 간 공동번영 방안, 동북아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효율적 국토개발과 서민생활 안정, 국토자원 보전 등의 책무를 다하고, 국토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품격 있는 글로벌 녹색국토 창출'을 연구사업 목표로 정하고 국토분야 전반에 걸쳐 210여 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사업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G20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협력 기반 구축',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스마트 녹색기반 실현', '국민생활 안정과 선진주거환경 조성'의 3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목표별로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G20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I)',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III)', '국제회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베트남 국토이용정책 개선방향 연구', '신성장동력거점 해외사례 연구', '글로벌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스마트 녹색기반 실현을 위해서는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요인 관리 및 해소방안',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 '국토 대예측 연구(II)',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I)',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I)',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연구',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생활 안정과 선진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략적 거점 낙후지역 발전방안 연구',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미국의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주거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비수도권 인구정체형

도시의 주거문제와 정책방안 연구'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연차보고서에는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들의 골자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하고, 요약·발표함으로써 연구진 스스로 새로운 연구수행을 위한 자성의 계기로 삼을 뿐만 아니라 수행한 주요 연구결과들이 각계각층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을 선도하는 초우량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고객지향의 창조적 연구상품을 산출하고 창의적이며 실용적인 국토정책을 개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민과 정부의 더 나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Chapter I 일반현황 8

-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10
- 2. 조직 및 인원 11
- 3. 2010년도 연구사업 및 2011년도 연구방향 12

Chapter II 분야별 주요 연구 14

- 1.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17
- 2.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29
- 3.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49
- 4.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69
- 5. 색인 81

Chapter III 국제협력사업 86

- 1. 국제학술교류 88
- 2. 국제연수프로그램 99
- 3. 해외기관과 MOU 체결 및 교류협력 103

Chapter IV 연구지원활동 110

- 1.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및 2009년도 국민훈장 동백장(개인) 수상 112
- 2. 자랑스런 KRIHS 人 시상 112
- 3. 제11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 개최 113
- 4. 제15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114
- 5. 2010 우수직원 표창 및 송년 함께하기 행사 개최 115

- 6. 제9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 116
- 7. 전국 대학(원)생 2030 미래 국토 논문 공모전 우수작 발표 및 시상 117
- 8. 아시아·태평양 지역개발기구 'EAROPH Korea' 사무국 현판식 개최 118
- 9.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식 개최 118
- 10. 박양호 원장, 2010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상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결과: 우수기관장상 수상 119
- 11. e-book 서비스 개시(www.krihs.re.kr) 119
- 12. 기획단행본 발간 120
- 13. 연구관련 주요 행사·교육 개최 123

Chapter V 정기간행물 목차 138

- 1. 국토(339호~350호) 140
- 2. 국토연구(64권~67권) 150
- 3. 국토정책Brief(259호~305호) 152
- 4. 도로정책Brief(27호~38호) 154
- 5. 건설경제(62권~65권) 158

Chapter VI 부서 소개 160

- 1. 원장·부원장 162
- 2.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165
- 3.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173
- 4.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183
- 5.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191
- 6. 글로벌개발협력센터 201
- 7. 기획경영본부 203

I 일반현황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10
2. 조직 및 인원	11
3. 2010년도 연구사업 및 2011년도 연구방향	12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 설립목적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에 설립되었다.

연구원 개원 이래 “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의 시대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 사회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지식기반 국토를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주요 기능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GIS, 동북아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을 선도·뒷받침하며, 정책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결하기 위한 현장중심적 연구를 미래 지향적이고, 실용·실증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풍요롭고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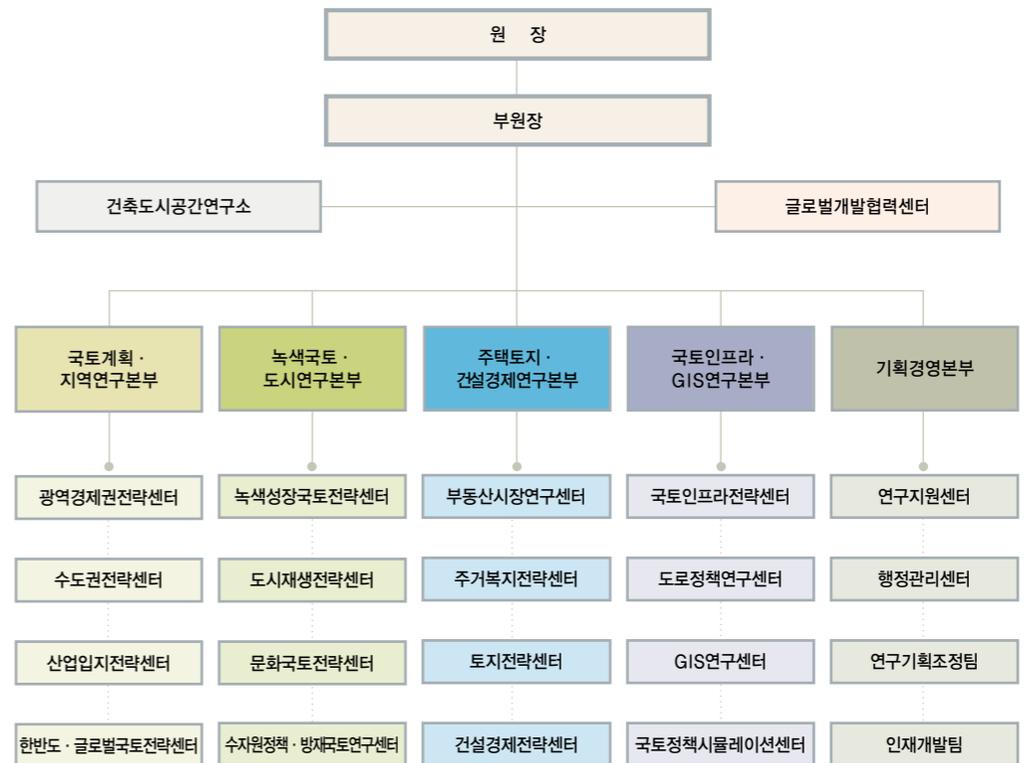
국토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국토종합장기계획 및 지역계획수립 연구
국토 이용·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토지·주택·도시 및 건설산업 등 국토관련 분야 정책 연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종합연구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
건축도시공간 분야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사업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국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국토관련 전문가 교육 및 위탁연수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배포
국토연구 관련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조직 및 인원

■ 조직

국토연구원의 조직은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등 4개의 연구본부와 기획경영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글로벌개발협력센터와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 인원

2011년 7월 현재 임원을 제외한 현원은 152인, 정월 218인으로 연구직이 129인, 비연구직이 23인이다. 연구직은 다양한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별로는 박사 80인, 석사 46인, 학사 3인이다.

계	임원	연구직			관리·전문직	
		박사	석사	학사	관리직	전문직
구성	원장	80인	46인	3인	18인	5인
153인	1인	129인			23인	

■ 보직자 현황

원 장	박양호
부원장	손경환
본부장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동주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민범식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김근용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류재영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사공호상
기획경영본부	유재운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손세관

3. 2010년도 연구사업 및 2011년도 연구방향

■ 2010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

2010년도에는 연구사업목표를 '미래지향적 녹색국토 정책 개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성장 실천전략 마련',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新정주공간체계 구현', '고품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국토인프라 구축'을 세 개 세부목표로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과제유형별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 등 38건의 기본연구과제, 「수변도시 조성전략 연구」 등 36건의 수시연구과제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수립 보완 연구」 등 135건의 수탁연구과제 등 총 20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중 기본연구과제 36건, 수시연구과제 28건, 수탁연구과제 79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66건은 2011년으로 이월되었다.

2010년도 주요 국정과제로는 세 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글로벌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 진출 전략」은 연성국토·공간프로젝트 등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간프로젝트의 해외진출 사례와 수요를 분석한 후, 글로벌 연성국토 즉 지구촌에서의 정치·경제·문화 활동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진출 전략을 개발하고 글로벌 전략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둘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통합적 실천방안 연구」는 4대강 사업 이후의 하천관리 과제를 도출하고,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하천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셋째,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는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상향이동을 위한 정책적 문제점을 분석·검

토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2011년도 연구사업목표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와 기관의 운영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1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품격있는 글로벌 녹색 국토 창출'로 선정하였다. 이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연구사업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G20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협력 기반 구축이다. 광역적 지역발전 전략의 실용화, 일자리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강화, 글로벌 시대의 연성국토 및 미래전략 연구 선도 등을 통해 첫 번째 세부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둘째,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스마트 녹색기반 실현이다. 지역맞춤형 녹색국토 실천방안 강화, 스마트하고 인간적인 도시재생방안 발굴, 미래 국토 발전을 선도하는 통합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두 번째 세부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생활 안정과 선진주거환경 조성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력 강화,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 개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마지막 세부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 2011년도 중점연구과제

2011년 수행과제 중 다음의 다섯 개 과제는 발굴·선정과정에서 2011년에 전략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로 선정하였고 연구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각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G20 시대의 국토품격 향상 전략연구」는 선진 사회를 지향하면서 국민들의 국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여 국토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정책의 핵심과제로 국토품격 향상 전략을 제시하고 후속의 실천과제 연구수행에 기본 틀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G20 시대의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과 시장진출 전략」은 글로벌 개발협력의 강화를 통한 국격의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국토인프라 시장과 연계하여 국익의 U-turn화를 도모, 글로벌 국토인프라 진출로 해외건설시장의 공종다각화, 시장다변화에 기여하고 국토인프라 분야의 글로벌 시장진출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셋째,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는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제안을 통해 주택시장 및 국민주거 안정을 달성하고,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절감형 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제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하는 주거문화 실현, 주거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 연구」는 수자원 관련 공공부문 투자의 비용효율성 제고와 수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 수자원 공급·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해소를 위한 이론적·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다섯째,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인프라 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 연구」는 지역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적 형평성 제고 목적의 인프라 정책을 제시하고 수평적·수직적·수단별 사회적 형평성 평가에 대한 실증 분석으로 인프라 정책 수용성 강화 및 관련 후속 연구를 마련할 것이다.

II

분야별 주요 연구

1.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	17
2. 녹색국토 · 도시연구본부	29
3. 주택토지 · 건설경제연구본부	49
4. 국토인프라 · GIS연구본부	69
5. 색인	81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	18
▪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 : 갈등행위자 인식분석과 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19
▪ 국토 대예측 연구(II)	20
▪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I)	21
▪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안	22
▪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II) : ODA 활용 극대화를 통한 시장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23
▪ 산업단지 입주가능 서비스업 조정 방안 연구	24
▪ 수도권외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	25
▪ 임대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연구	26
▪ 전략적 거점 낙후지역 발전방안 연구	27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8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

Study on the Spatial Planning and Public Policies for Creating a Healthy City

김은정, 김현식, 이승복, 강민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강도시(Healthy City) 개념은 도시민의 건강 및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를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건강도시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도시환경요인이 지역민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건강도시 계획의 방향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유럽, 미국,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소속 국가들의 건강도시 추진현황을 공간계획 및 정책방향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도시 정책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각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건강도시 관련 사업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환경 영향요인을 검토하였다. 크게 1단계(지역 수준 분석)와 2단계(다수준 분석)로 구분하여 수도권의 53개 지자체로 한정하여 분석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가 진행된 200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핫스팟 분석과 공간회귀 분석기법을 통한 지역 수준 분석결과 비만인구비율은 지역별로 공간패턴이 보이거나 건강인구비율은 일정한 공간적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별 비만인구비율은 자가 건강도(-), 패스트푸드점 수(+), 자전거도로연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지역별 건강인구비율은 체질량지수(-), 재정자립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으나, 도시환경변수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인 다수준 분석을 수행

한 결과, 개인의 건강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원을 비롯한 녹지공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민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의 건강상태, 일상 속 운동수준, 식습관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건강도시의 가치추정 조사결과 주민들은 월평균 3,695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청계천 복원사업의 지불의사금액 수준보다는 낮은 편이나 시화호나 우포늪의 생태가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수단을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서 정리한 이론,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 실증분석,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공간계획의 기본 방향 및 원칙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으로 부문별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신도시개발, 구도심정비, 도시재생 등의 계획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이러한 물리적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된 19세기 서양의 보건·의학적 관점에 기초한 도시계획에 대한 회귀인 동시에, 단순한 위생문제를 넘어선 적극적 건강의 추구라는 점에서 계획학의 사회공헌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13면, 국토연 2010-36

>>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 갈등행위자 인식분석과 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Conflict Management in Spatial Development Projects: Exploring People's Perception and Finding Policy Application

박형서, 이순자, 박경현, 장은교

본 연구는 그간 정부의 갈등관리방안이 해당 갈등이슈에 대한 행위자가 지니는 의견, 가치, 믿음이나 신념 등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 인식을 간과해왔기 때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갈등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시설이나 이슈를 둘러싼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갈등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의 차별화와 갈등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내면에 대한 접근을 위해 Q 방법론을 사례분석에 접목시켰다. 국토개발 관련 갈등사례 분석대상으로는 광주-무안 공항 유치갈등, 구로구-광명 도시개발사업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갈등, 서산-태안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갈등을 선정하였고, 사례별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주-무안 공항 유치에 대한 인식유형은 대도시시장결정형, 지역통합우선형, 국가정책실패형의 3개가, 천왕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유형은 환경가치중시형, 합리적계획추진민음형, 대의명분추구형, 개인이기주의 비판형의 4개가,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인식유형은 정부불신·냉소형, 생계여려·실리추구형, 기대·낙관주의형, 환경·생태계가치중시형, 대의명분의존형, 사업추진확신행의 6개가 도출되었다.

사례분석은 크게 세 가지를 시사하고 있는데, 첫째, 갈등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의 생성이나 갈등전선에 혼란이 없으면 인식구도도 비교적 단순하지만, 대부분의 갈등은 이슈가 발전·변모해감에 따라 갈등양상

도 바뀌고 인식유형도 더욱 세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이해당사자의 소그룹화가 진전되고, 이는 갈등현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협상에 책임 있게 나설 수 있는 핵심그룹의 존재 가능성을 감소시키면서, 갈등해소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갈등상황 초기에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들 특성에 따라 적절한 대화나 협상기법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인식유형의 표준화와 관련해서 사례분석은 가장 일반적인 갈등 인식유형이 지역이기주의형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밖에 여론지향형, 공공정책순응형, 합리적판단형, 방임·무관심형으로 표준화될 수 있었다. 셋째, 사람의 심리상태는 복잡해 어떤 한 유형에 속한다고 특정 의견만 가지는 것은 아니며, 상이한 유형이더라도 이슈에 따라 상호 연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갈등관리 과정에서 기존의 대립구도를 깨고 새로운 양상을 만들 수 있으며, 곧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형성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유형 및 특성분석은 갈등 영향평가나 갈등조정 과정에 추가시킴으로써 갈등예방의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다음 협상기법 개발을 위한 이해관계구조 파악 시 찬반 집단만을 파악하는 단순분석을 넘어 인식유형별로 그룹화하고 이들의 행동특성을 분석하고 돌출행동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갈등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07면, 국토연 2010-26

>> 국토 대예측 연구(II)

Futures of National Territory(II)

이용우, 김선희, 변세일, 박정호, 임지영, 이지원, 박고운, 신예지

본 연구는 우리 국토 특성에 적합한 독특한 미래예측 방법론을 정립하여 국토 분야 및 지역별로 미래를 다양하게 예측하고 바람직한 국토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3개년 연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0년도 2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1차년도 연구에서 정립한 국토예측 방법론 보완, 주거·산업입지·교통·토지이용 및 수자원 등 국토 분야별 미래예측대상 선정 및 전망, 분야별 미래예측의 종합을 통한 국토 미래상 및 정책과제 도출에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래 주거는 자가 소유자 증가, 주택시장 안정, 틈새 주택시장 활성화, 주택의 첨단화·복합화, 거주형태 다양화,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라 기존 주거지의 미래 다양화, 주거수준의 격차 등으로 예측되었다.

미래 산업입지는 대도시권 중심으로 첨단산업 발달, 국제경쟁력에 따른 제조업 입지수요 변화, 산업공간의 복합화·임대화·생태화, 산업입지의 격차 등으로 예측되었다.

미래 교통은 출퇴근 교통정체 완화, 대도시권 대중교통 다양화, 지능형 녹색자동차와 도로의 보편화, 초고속철도망으로 국토 및 동북아 공간구조 재편성, 물류속도의 획기적 개선, 교통서비스의 격차 등으로 예측되었다.

미래 토지이용 및 수자원은 농지·산지의 환경적 가치 증대, 수변공간 활성화, 다양한 여가관광 수요 증가, 도시용지 수요의 완만한 증가, 대도시의 입체화·복합화, 도시서비스의 지능화·다양화·무장애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수자원 다양화 등으로

예측되었다.

한반도 경제통합에 따른 국토 미래의 변화는 북한주민 체류로 수도권 중저가 임대 주택수요 증가, 한반도 간 선교통망 복원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육상으로 연계, 북한 서해안지역으로 산업입지 이동 등으로 예측되었다.

분야별 국토 미래모습을 종합한 국토 미래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데 중요하고 불확실성이 큰 핵심변수의 방향을 조합하여 4개의 국토 미래시나리오(안)를 도출하였다.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과 국토 미래시나리오(안)를 종합하여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을 “지속가능한 첨단 녹색국토”로 설정하였다.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 달성을 위하여 주거, 산업입지, 교통, 토지이용 및 수자원 등 미래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국토 분야별 다양한 미래전망으로 미래 국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한 점과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 달성을 위한 미래정책과제 제시로 장기적 국토정책 수립의 지침을 제공한 점에 있다. 또한 국토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관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한 점과 한반도 경제통합시 국토 미래상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한 점도 기대효과라 할 수 있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350면, 국토연 2010-59

>>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I)

A Study on Global City-Region Development(I)

김동주, 김현식, 구정은, 강민규, 최인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권(City-Region)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광역경제권 발전 촉진과 국토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3개 연도 연구 중 1차년도 과제로 수행되었다. 2010년 1차 연구의 목적은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설정 및 외국 도시권과의 역량비교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권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 도시권들의 정책동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세계적 수준 또는 지역중심경제권을 발전목표로 설정하고, 고부가가치형 지식집약산업과 글로벌 기능 강화 등 경제거점으로서 도시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권 내의 개방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네트워크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원순환형 발전, 지자체 간 협력 촉진을 위한 협약제도 도입, 추진기구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권을 대전, 광주, 대구, 부산·울산 등 각 지방광역시와 지리적·기능적으로 연계된 인근시·군을 포함한 지방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인구, 산업, 토지이용, 통근통행, 외국인투자 등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경제·사회 활동이 대도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광역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권의 경쟁력 수준을 OECD 및 EU의 도시권과 비교하여 경제 및 산업, 정주여건, 인프라 등 부문별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지방대도시권은 외국 도시권에 비해 인구규모, 고학력 인적자본 등과 대비하여 생산성, 고차산업, 혁신역량 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권을 글로벌 자본, 인재, 정보의 거점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도시권 내외 및 글로벌시장과의 다양한 연계에 의한 ‘연성(軟性)적’ 지역발전을 지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시권 내외 및 글로벌연계 인프라 확충과 신성장산업 클러스터 구축, 녹색·스마트성장, 창조적 지역재생형 도시권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적 추진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특히 도시권 육성을 국토정책 어젠다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권 발전계획 체계 개선, 도시권 발전 협약방식 도입, 지자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31면, 국토연 2010-12

>>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안

Industrial Location Policy for Green Growth

류승한, 양하백, 강호제, 서연미

본 연구는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산업입지정책방향 및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경제적·환경적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우리나라 산업입지를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입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며, 셋째,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산업입지정책방향과 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넷째, 도출된 정책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시대의 산업입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기반 구축, 생태산업단지 및 생태산업네트워크의 구축, 산업입지공급의 합리화와 난개발 방지, 산업지역 재생 촉진, 산업단지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단지 조성 등의 다섯 가지를 설정하고, 이들 각각의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방안으로는 기존 산업의 녹색화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 광역권별 허브 구축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거점 실증단지의 조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미니 클러스터의 구축, 산업단지 내 녹색산업의 입지 기준 마련, 녹색산업 입지 관련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생태산업단지 및 생태산업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업 참여의 촉진, 생태산업단지의 공간적 확대를 위한 허브-스포크(Hub-Spoke)체계 구축, 생태산업단지 관련 부처의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

안하였다.

산업입지공급의 합리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정책방안으로는 개별입지 유도지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용한 개별입지 집적지의 입지환경정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입지 관리기준 정비, 계획입지 공급의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산업단지 재생 촉진을 위한 입지정책 방안으로는 신규 개발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제도를 확충할 것과 재생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산업단지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산업단지 계획기준의 강화, 산업단지 내의 녹색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단지 관리기준 강화 및 관리기구의 전문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추진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법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법규에는 녹색성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이 대부분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 시행절차 등의 미비로 인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06면, 국토연 2010-61

>>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II)

: ODA 활용 극대화를 통한 시장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Strategies for Promoting Overseas Urban Development(II): Focusing on Maximum Utilization of ODA

조진철, 최수, 김성일, 이종화, 권대환, 김일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적 시장다변화, 해외도시개발 분야별 시장 분화, 민관협력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 개발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G20 시대 ODA의 적극 활용을 통해 개발협력 방안의 일환인 해외도시개발의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해외도시개발 시장확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민간건설기업은 개발자금을 주로 국내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외도시개발시장 참여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폭락으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 둘째, 해외도시개발 시장의 지역 및 분야별 분화 전략이 미흡하다. 셋째, 국내의 ODA 활용이 크게 미흡하다. 넷째, ODA와 연계한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 전략이 부재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해외도시개발 시장확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경영개발 방식의 도입을 위한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를 형성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둘째, 해외도시개발에 관한 공간 및 분야별 시장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공간적으로는 아시아 이외에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도 해외도시개발 잠재력을 찾을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를 통한 개발촉진 및 개발거점전략을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계획수립 활동과 개발활동을 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제개발은행의 조달시장 진출, 수원국 발주 대응, KOICA의 무상원조 발굴체계 확립 등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셋째, ODA 활용을 통한 시장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① 국토계획·도시계획 등 계획수립은 해외도시개발 시장참여의 직접 확대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ODA의 활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② 국내 ODA는 직접 발굴형 추진체계를 통한 해외 계획수립 시장 진출을 확보하고, 국제 ODA는 국제개발은행 한국신탁기금(KTF)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개발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③ ODA의 지역경제공동체 지원 방향성 정립을 통해 최소 지원으로 최대 효과를 획득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로의 지역적 다변화와 계획수립, 디벨로퍼 시장 진출 등 분야별 다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둘째, 개발주체의 역할관계를 파악하고 해외도시개발에서 이들 개발주체 간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는 거버넌스 구축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개발주체들의 해외도시개발 활동을 위한 종자돈(Seed Money) 역할을 하는 정부의 ODA 활용과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 간 역할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33면, 국토연 2010-37

>> 산업단지 입주가능 서비스업 조정 방안 연구

A Study on Service Industries Qualifiable for Occupancy in Industrial Complex

서연미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산업입지 정책에서도 서비스업의 입지수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제조업의 생산 기능 중심이던 산업단지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조화를 이룬 복합단지로 개발하여 서비스업의 입지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졌다. 산업단지의 업종 복합화를 위해 일부 서비스업종은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가능 서비스업의 범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서로 다른 용어와 기준을 사용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어떤 업종이 입주에 적격인가를 두고 논란이 빈번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주기능으로 입지 가능한 서비스 업종을 검토함으로써 서비스업 성장에 대응한 산업입지제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산업단지 입주가능 서비스업 검토는 현행 산업입지 관련 법률인 「산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법)」상의 불일치 조정과 향후 산업단지 유형을 전면 개편할 시 산업시설용지에 주기능으로 입주 가능한 업종 검토의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현행 산업입지 관련 법률상 입주가능 서비스업의 불일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법률에서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공통적으로 입주가능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 범위가 불일치한다. 둘째, 산업입지법에서는 문화산업이 입주가능 산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법에는 문화산업에

관한 언급이 없다. 셋째, 표준산업분류체계가 변경되면서 기존에 제조업으로 분류되던 재활용산업의 일부가 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재활용산업의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와 관련하여 법률의 주무부처 간 이견이 존재한다. 넷째, 산업집적활성화법은 물류시설과 함께 관련 산업을 입주가능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입지법은 물류시설만 포함하여 입주가능 업종이 시설로 규정될 때와 산업으로 규정될 때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률상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입주업종에 관한 내용을 두 법률 중 하나에 근거를 두는 쪽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 개정이 불가할 경우 입주업종과 관련된 통합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산업단지 유형개편 시에 입주가능한 업종을 제안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의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목표별로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업종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산업단지의 정책목표로 생산자서비스 기능, 생산 기반 확충, 산업구조의 지식기반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네 가지를 설정하고, 각 목표별로 중간수요율, 전·후방연쇄 효과, R&D투입률, 부가가치율을 지표로 분석하여 각 목표에 부합하는 서비스업종을 추출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관련 법률상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서비스업 성장에 대응한 산업입지제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연구기간: 2010. 6. 3~2010. 9. 2
서지사항: 158면, 국토연 2010-35

>> 수도권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

Globalization Strategies of the Capital Region in Korea

이동우, 김현식, 이춘용, 김광익, 서연미, 윤영모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촉진을 위하여 세계도시화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그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관점에서 세계적인 매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다국적기업과 글로벌 인재 및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도시로서, 세계 경제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발전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도시화 전략은 '다국적기업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매력을 제고시키는 전략'으로 정의되었다.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을 평가한 결과, 경제규모(2009년 GDP 기준 세계 15위)에 비해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관광객 수, 국민 중 외국인 비율 등 세계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 실태 조사에서도 특히 금융·보험 관련회사의 진출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도권의 세계도시 잠재력을 평가하고 SWOT분석을 수행하였다. 외국 주요 기관 및 단체에서의 평가결과를 망라하여 살펴 본 결과 수도권의 경제력 및 종합순위는 대체로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삶의 질, 주거환경, 문화, 금융산업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KOTRA 등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의사소통과 더불어 교육, 주거, 의료여건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도쿄, 싱가포르, 상하이 등 세계도시화를 표방하고 있는 아시아 주요 도시(권)의 관련 시책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제금융 또는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CBD

또는 공항·항만이 있는 임해지역을 중심으로 국제 금융·비즈니스 거점지구를 지정·육성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클러스터의 구축, 관광 및 컨벤션·전시산업의 육성, 외국인재 유치, 도시의 경관과 품격 제고, 공항·항만 등 국제게이트웨이의 중요성 등을 세계도시화의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수도권의 세계도시화를 위한 3개 분야 9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진출을 위해 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종합특구화' 추진, ② 청계천 주변지역을 국제 금융·비즈니스 중심지로 재생, ③ 외국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 ④ 글로벌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를 위한 연계교통망 확충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정주여건과 관련해서는 ⑤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환경 정비, ⑥ 다문화가 공생하는 수도권 만들기 등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수도권 방문 외국인 유치와 관련해서는 ⑦ 수도권 서해안지역의 국제관광벨트화 추진, ⑧ 수도권의 품격 제고를 위한 경관 및 디자인 개선, ⑨ 수도권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역사유적 복원 및 관광상품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세계도시화 전략의 추진을 통하여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및 품격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 증대에 따른 수도권의 시장규모 확대에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수도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 세계도시화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192면, 국토연 2010-16

>> 임대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연구

The Research of Reinvigoration Strategies for Long-Term Lent Industrial Estate

장철순

본 연구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기임대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 후 분양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 후 분양 시 의무임대기간 설정, 분양가격 산정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주택 및 기존 산업단지 임대용지 등 유사제도 분석과 임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임대 후 분양제도의 도입이 임대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임대기간의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1안은 기업이 창업 후 초기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정도임을 감안하여 3년을, 제2안은 타 제도(국민임대, 일반임대용지)의 분양전환기간 사례와 기업들의 창업 후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을 반영하여 5년을, 3안은 현행 장기임대산업단지 분양기간과 장기임대주택 등의 제도를 감안하여 10년을 의무임대기간으로 설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대안 중 제2안인 5년을 의무임대기간으로 하는 안을 우선 검토과제로 제안하였다.

둘째, 임대 후 분양가격 산정방식의 대안으로, 제1안은 산업단지 조성 시 분양가격 산정방식인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제2안은 “조성원가 × (1 + 공업지역의 최근 5년간 평균 지가변동률)”로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제3안은 “(조성원가 + 감정평가액) ÷ 2”로 산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4안은 매각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대안 중 제3안을 우선 검토과제로 제

안하였다.

이외에도 임대산업단지 공급활성화 방안으로 국가의 토지비축사업 참여 확대방안, 공공의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 확대방안, 계획적인 임대산업단지 공급방안, 사업시행자의 아파트형 공장 임대 활성화 방안, 임차권의 물권화 관리방안, 철거이행보증금제도 개선방안, 임대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10. 3. 2~2010. 5. 31
서지사항: 95면, 국토연 2010-29

>> 전략적 거점 낙후지역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Strategic Development of Depressed Regions in Korea

이종화, 손상락, 이동수, 김동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국토에서 낙후지역이 갖는 공간적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낙후지역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개별 행정구역 중심의 낙후지역 발전보다는 중심도시와 주변 낙후지역이 상호 연계된 통합적 권역으로서 ‘거점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기존의 낙후지역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적 문제점으로는 첫째, 부처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낙후지역 개념상의 혼란이 있으며, 둘째, 낙후지역 관련 사업에 대한 법령체계가 지나치게 복잡다기화되어 사업체계도 서로 상이하고 사업 간 유사 중복성도 많다는 점이다. 셋째,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추진구조였으며, 넷째, 소규모 분산투자로 비효율적이며 지방비 확보 등 재원조달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개발로 소득창출, 인력육성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다.

이명박 정부의 낙후지역 지원정책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제도를 들 수 있는 바, 이러한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낙후지역만을 별도로 생각하기보다는 중심도시와 주변 낙후지역을 하나의 ‘개발권’으로 보아 발전전략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낙후지역과 중심도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거점 낙후지역’이라 칭하고, 경남 서부지역과 경북 북부지역의 두 가지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

경남 서부지역은 진주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경남지역 내 만성적인 낙후지역이며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라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경남 서부지역은 건강·휴양·레저의 신천지화, 지역산업구조 개편 등 경남 신발전축 형성 등을 발전목표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정환경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을 육성하며, 한방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전통 한방의료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문화·녹색관광 진흥도 중요한 발전전략이다.

경북 북부지역은 영주, 안동, 상주시를 포함한 9개 시·군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환경시대에 부응하는 ‘환경경제권’의 거점으로서, 그린바이오산업과 생태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거점 육성을 발전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횡적 고속교통망을 구축하여 경북 북부권을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일체적인 광역권을 형성하고, 그린바이오, 생태산업집적지, 해양특화전략 등 핵심거점별 중점 육성산업의 공동연계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관광부문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주기반을 강화하는 전략도 요구된다.

이와 같이 향후 우리나라의 낙후지역 정책은 기존 시·군 행정단위 개발에서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을 연계한 광역적 발전으로 전환하여 개발효과를 제고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기간: 2010. 4. 1~2010. 6. 30
서지사항: 116면, 국토연 2010-50

01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Reframing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 to Enhance Regional Competitiveness

차미숙, 김태환, 김창현, 손동글 외

지역발전계획제도는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간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도적인 수단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행 지역발전계획제도는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계획들이 조정·연계되지 않은 채로 양산되면서 계획체계가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실천성·효과성마저 낮아 계획 무용론 내지 회의적 인식이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행 지역발전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집행되더라도 효과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지역발전계획제도가 변화하는 지역정책 기조와 여건을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지역발전계획제도가 지역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은가? 라는 문제의식(research questions)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지역발전계획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은 지역경제·사회발전계획만을 포함하고, 단위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은 제외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지역발전계획 수립·운영 실태와 사례조사, 계획제도의 내용분석(institutional analysis), 정책실무자와 전문가 대상의 설문 조사, 국내외 전문가와 협동연구, 지역계획포럼 등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 국내 지역발전계획 실태 및 사례조사, 정책실무자와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중점 개선과제인 지역발전계획 상호간 연계·조정 강화와 지역발전계획의 실천성 및 실효성 강화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지역발전계획 상호 간의 연계·조정 강화를 위한 주

요 개선과제는 ① 지역발전계획체계 정비, ② 지역발전계획 간 상호 연계·조정 강화, ③ 지역발전계획 수립구조 및 절차 간소화다. 지역발전계획의 실천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는 ① 지역발전계획 성격별 집행수단의 차별적 운영, ② 계획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강화, ③ 협력적 계획수립 절차와 집행 촉진·지원이다.

이 연구는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현행 지역발전계획제도의 개선 방향과 추진전략, 제도개선 방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시에 모든 계획제도를 개선할 수 없고, 이들 제도를 도입·개선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를 거둘 수도 없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하거나 현안이 되는 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장·단기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와 유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저지사항: 총괄보고서 331면, 국토연 2010-15
 협동연구보고서 259면, 국토연 2010-15-1

02

c h a p t e r II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 공간계획의 정책계획기능 제고에 관한 연구	30
▪ 국제회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 유치 타당성 분석	31
▪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II) : 지역특성별 실천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방안	32
▪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II)	33
▪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II): 지역중심형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	34
▪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방안 연구	35
▪ 베트남 국토이용정책 개선방안 연구	36
▪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 공간구조 개편 연구	37
▪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시설기준 보완연구: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38
▪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	39
▪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	40
▪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41
▪ 한국도시정책의 현황과 과제	42
▪ 한국 신도시 개발의 파트너십 연구	43
▪ 한국의 도시화 과정과 정부 정책에 관한 연구	44
▪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I)	45
▪ 혁신적인 녹색도시: 시애틀 사례	46
▪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연구	47

>> 공간계획의 정책계획기능 제고에 관한 연구

The Enhancement of Policy Planning Function in Comprehensive Planning

박재길, 박경현, 박근현

본 연구는 각급 스케일의 공간계획에 기본이 되는 국토 계획의 계획 스타일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연구다. 국토 계획은 본래 개발 수요에 대비하는 토지자원 배분의 청사진적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0년을 전후하여 사회가 민주화되고 분권화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못지않게 추진 과정이 중요시되는 상황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이론 측면에서 정책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국토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여,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을 진단하였다. 또한 국내 최근 동향과 외국 선진사례로 정책계획의 운용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국토계획의 정책계획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계획이론에서는 계획에 대해 '일반적인 행위의 지침과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담는 것으로 스스로 정책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책계획으로 계획 스타일이 되기 위한 내용적·형식적 정책요건과 인적·기구적 소통요건들로 연구 및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현행 국토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은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이들 계획은 형식적으로는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화된 부문계획들에 대해서는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 내용적 요건에서 부문계획이나 지역별 계획을 가이드하지 못하고, 인적 소통, 기구 소통도 부진하여 해당 부서만의 계획으로 끝남으로써 기본계획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내 최근 동향의 국책사업으로 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과정을 보면 행동의 틀을 먼저 설정함으로써 비로소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다. 또한 서울시와 청주시의 도시기본계획 사례를 통해서는 정책계획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려고 노력함을 볼 수 있었다. 외국 사례로 일본의 세다가야구 계획과 미국 워싱턴주의 광역계획, 카운티계획, 시애틀 도시기본계획의 사례를 통해서는 정책계획으로 구성된 계획체제가 안정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국토계획이 정책계획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계획의 내용적 요건으로 구체적 정책과제를 담는 계획이 될 것과 정책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할 것을 언급하였다. 형식적 요건으로 국토계획이 정책을 계획 내용으로 하는 계획임을 명문화하고, 부문계획을 컨트롤 하는 계획이 되고, 이를 위해 계획기구가 전략계획기구로 자리 매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행 계획 스타일의 문제점을 공무원, 전문가, 시민들이 다같이 인식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 정책계획이 필요함을 같이 공감해야 할 것이다.

연구기간: 2010. 7. 19~2010. 10. 19
서지사항: 166면, 국토연 2010-55

>> 국제회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 유치 타당성 분석

Measuring Socio-Economic Impacts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Feasibility Study of the World Urban Forum

김은란, 정소양

이 연구는 세계도시포럼 유치의 정책적 의의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토대로 국내유치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포럼유치 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국제회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포럼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세계도시포럼 관련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기존 개최도시들의 여건, 유치도시 선정절차, 포럼 개요 및 기대 효과 등을 검토하였다.

세계도시포럼은 UN-HABITAT의 비중 있는 국제 행사로서, 2002년을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각국의 정책입안자, 학계전문가에서 NGO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제에 따른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 연대를 꾀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도시포럼의 기존 개최도시 및 유치예정, 제안도시 8곳의 여건을 분석한 결과, 기존 8개 도시는 주로 인구규모가 약 150만~700만에 이르는 대도시들이었다. 이들 도시는 자국내에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도시들로, 높은 국내의 위상에 맞게 국제공향을 비롯한 교통체계,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할 자원과 행사장·전시관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개최도시는 도시슬럼화, 지역 간 격차, 도시문화와 통합 등의 도시문제에 대응한 도시정책의 경험과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세계도시포럼을 개최함에 따라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직·간접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추정했다. 먼저 산업분류체계를 국제회의의 직접연관산

업 8개 부문과 간접연관산업 27개 부문으로 재분류했다. 기존 참가자 수를 고려하여 2014년 포럼 참가자 수는 1만 5천 명으로, 이 중 외국인 참가자를 약 6천 명으로 예상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외화가득 효과는 199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49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0억 원, 고용유발인원은 327명으로 나타났다. 즉, 세계도시포럼 개최로 파급되는 경제적 가치(897억 원)는 사업비(127억 원) 대비 7배에 달하며, 부가적으로 327명의 고용효과도 기대된다. 따라서 세계도시포럼의 한국 도시 개최는 타당한 경제적 기대효과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유사 국제행사에 비해 큰 편은 아니지만, 포럼개최에 따른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와 도시홍보를 통한 장기적 경제파급효과 측면도 고려한다면 개최에 더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세계도시포럼이 국내에서 개최된다면 도시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강화될 것이며, 다양하고 긴밀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 사례 공유는 국내 도시정책의 선진적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도시문제에 대한 대중의 사회문화적 관심 고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의식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기간: 2010. 7. 29~2010. 10. 29
서지사항: 96면, 국토연 2010-11

>>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II): 지역특성별 실천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방안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Land Management Strategies in Korea(III)

왕광익, 최영국, 서태성, 이문원, 박정은, 차정우, 노경식, 민경주

이 연구는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정책 등의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도시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완화 및 적응 측면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실천계획 수립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관련 추진정책과 계획내용들을 분석해본 결과 국가정책은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소 추상적인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체계가 잡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각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유사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효율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특성별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완화 및 적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실천계획 수립방안을 모색하였다.

기후변화 완화 지역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은 전국 16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구조특성과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재분류하고, 그에 따른 유형별 실천계획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지역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간은 인구센서스 자료 기준연도인 2005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분석 범위는 농업/축산, 삼림, 수자원, 보건건강, 해양생태 5개 부문으로 한정하고 부문별로 기후변화 취약성을 나타내는 민감도, 기후노출, 적응능력 수준을 각각 평가한 뒤 이를 종합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완화와 적응계획은 상호적이며 보완적으로 전략이 수립될 때 온실가스 배출의 근원지이며 기후변화 영향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역에서 실현화될 수 있다. 현재까지 기후변화 대응 계획은 완화와 적응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개별적인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완화와 적응 실천계획 개선방향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유형에 맞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완화와 적응의 통합적 계획이 실현되어야 하는 이론적 근거의 검토와 함께 통합계획의 정책적인 제안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방법론 제시 및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계획 수립의 기초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 실천계획 수립 개선방안 도출로 국토관리전략 차원에서 지역 특성별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지자체별 실천계획 수립 방향 설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정부가 활발하게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 발굴을 지원할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간의 연계 및 통합적 추진의 초석을 제공하였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169면, 국토연 2010-32

>>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I)

Resilient Urban Areas Against Climate Change: A Synergistic Approach to Urban Hazard Mitigation(II)

심우배, 김걸, 지승희, 김학열 외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극심한 기상변화로 재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선진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도시차원의 대응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도시계획을 통해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재해에 도시가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계획요소의 도출과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1차연도에서 제시한 정책방향과 연계하면서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을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재해유형, 공간범위, 도시입지를 고려한 적용방안과 실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기후변화 재해통합대응 도시의 계획요소는 현행 도시계획수립 관련 지침, 외국사례, 관련 계획 및 제도를 조사하여 기후변화 적응 측면 즉, 방재적 요소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모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도출했다. 계획요소는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단지조성, 건축물 등 각 계획영역별로 도출하였으며, 전통적인 방재대책인 구조물적 대책과 병행하여 기후변화 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도시계획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재, 환경, 조경 등의 계획요소를 체계화하고 방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폭염, 강풍, 해수면 상승 등의 재해에 대한 계획요소를 제시하였다. 먼저,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재해유형에 대한 계획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상하 계획의 공간범위를 고려하여 계

획요소의 적용방안을 차별화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환경, 조경 등에서 활용되고 있던 기존 계획요소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방재개념을 도입하고 체계화 하였다.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해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과 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최근 외국동향 및 사례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계획요소에 대해 재해유형별, 공간범위별, 도시입지별로 구분하여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계획요소에 대해 예시도를 제시함으로써 적용성 및 실무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공간계획과 방재계획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계하였으며, 통합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구조물적 접근 중심의 방재 관련 연구에서 국토·도시·건축분야의 공간계획적 접근을 시도한 본 연구의 새로운 연구방향은 관련 분야 연구를 촉진하고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재해통합대응 도시의 계획요소와 적용방안,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위험 저감 대책, 기후변화 적응계획수립 등 정책개발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총괄보고서 164면, 국토연 2010-24
자료집 104면, 국토연 2010-24-1

>>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I): 지역중심형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

Reinventing Urban Policy in Response to Ethnic Diversity(II): Localizing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박세훈, 김은란, 정윤희, 정소양

본 연구는 지난 2년 동안 수행한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의 두 번째 결과물이다. 1차연도에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다루었다. 한국 체제 외국인의 공간분포를 파악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의 역사, 현황,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올해에는 한국의 외국인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외국인의 도시정책수요와 현 외국인 정책의 추진실태 파악을 통해 외국인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외국인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은 주택유형 및 주거 시설 측면에서 내국인에 비해 매우 열악하였으며, 이러한 여건이 장기화된다면 지역사회가 전체적으로 낙후될 가능성도 있었다. 또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 중 외국인 인구비중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도시(외국인 집거도시)의 외국인 정책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의 일차적인 필요에만 치중한 채 거버넌스의 구축이나 공동체 육성에 대한 사회통합적인 지원은 대체로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크고 자치단체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외국인 지원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민간단체는 대부분 시정부와 원활히 협력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외국인 정책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및 일본 도시들의 외국인에 대한 도시정책 선진사례를 수집·정리하였다. 도시정책과

외국인 정책 간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 해외사례를 통해 첫째, 주체 간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 지역관리제도의 도입, 둘째,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및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 발굴, 그리고 사회통합적 접근에 바탕을 둔 외국인 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외국인 정책의 개선방향을 ‘지방화(localization)’와 ‘지역사회통합(community integration)’으로 제시하였다. 지방화란 정책추진체계에서 현재 중앙정부 주도형의 외국인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형으로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역사회통합’은 정책의 내용적 측면으로 기존의 ‘외국인만’을 위한 지원에서 이제 외국인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참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외국인 정책의 지방화와 지역사회통합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주도,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부재를 넘어서서 중앙-지방-민간 각각의 새로운 역할분담과 조정메커니즘을 통해 효과적인 추진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안정,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관리,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외국인 공공정책 참여 확대에 대한 부문별 도시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28면, 국토연 2010-20

>>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방안 연구

An Approach Policy Improvement for Impact Fee Area Considering the Growth Management

김상조, 박세훈, 이진희

본 연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기존의 모호함이나 비합리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제도가 보다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최초로 도입되었다가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로 독립하여 2006년부터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2008년 3월 다시 「국토계획법」에 환원되어 2009년 시행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 지정기준의 모호함과 단편적인 특성, 사업연계수단과의 부족 등 미시적이고 모호한 기준들로 인하여 제도운영이 미진할 뿐 아니라 구역지정 후 후속 개발의 회피로 제도준립의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모호한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운영의 근본적인 틀을 재검토하여 전체 도시 차원에서 또는 광역권 차원에서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즉지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개발수요만 관리함으로써 개발이 일어나지 않은 비시가지지역의 개발가능지는 여전히 난개발의 우려를 안고 있거나 난개발 압력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구역지정과 연계하여 도시 전체의 개발수요에 대비한 개발가능지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제안하였고, 무엇보다도 도시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가 여러 대안 가운데 지자체의 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하나를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안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 가지고 있는 관리능력을 배가시킴으로써 특히 비시가지지역의 난개발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종전과는 달리 지자체 고유의 상황을 많이 반영토록 함으로써 당해 지자체의 운용 폭을 넓혀 놓았다. 다만, 이러한 제안들이 제도화되기 이전에 실제 지자체에 적용되어 보다 세련되고 다듬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연구기간: 2010. 6. 7~2010. 12. 7
서지사항: 97면, 국토연 2010-14

>> 베트남 국토이용정책 개선방안 연구

Nationwide Land Use Policy Directives in Vietnam

김현식, 박은관, 서순탁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베트남의 국토이용정책 전반에 관한 현황문제점을 분석하고, 둘째, 한국의 국토이용정책 경험이 이러한 베트남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셋째,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국토이용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공간계획체계, 도시개발정책, 토지이용정책 등의 3개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경제개발계획, 부문별계획 그리고 공간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베트남의 현행 공간계획체계상의 주요이슈와 문제점은 관련계획간 위계질서가 미약하고 계획간 상호 조정 또한 미흡하며, 계획기간이나 계획대상범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국토 전반에 걸친 공간계획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 하향적 계획수립 과정과 계획과정에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계획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상적인 계획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자원조달방안이나 집행수단 등의 부족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베트남 공간계획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관련제도 검토를 통해 국토의 종합적 관리체계 개선, 계획권한의 지방정부위임과 계획과정의 명료화, 계획집행의 현실화, 계획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말미암아 도시주변부지역에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 무계획적 난개발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내에서도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토지수용방식 일변도의 도시개발은 보

상과 관련한 주민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고, 재원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도시개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인적자원이나 관련기관간 상호협조체계가 부실하여 전반적으로 도시관리 시스템이 취약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관련제도 검토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체계적 관리, 다양한 자원조달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공급개선, 도시개발 활성화, 도시관리 역량강화 등의 방안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토지이용정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토지가격산정제도 도입, 단일토지이용계획체계 구축,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의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우리나라의 국토이용 및 개발경험이 향후 베트남의 중장기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주요 국토이용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정책결정자 및 정책개발 기관의 정책개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주요 경제정책 우선순위 개발에 있어 한국의 경제발전 및 국토이용정책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게 되길 아울러 기대한다.

연구기간: 2009. 9. 1~2010. 2. 28
서지사항: 190면, 국토연 2010-1

>>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 공간구조 개편 연구

Restructuring Spatial Structure at Village Level through Saemaul Undong

소진광, 김선희

이 연구는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점(點), 선(線), 면(面)의 공간요소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공간과 인간활동을 매개하는 과정논리를 확보하고, 실천논리를 구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자료 구득성 및 현지조사 접근성을 고려하여 4개의 사례마을(경기도 광주시의 선리마을, 경기도 이천시의 덕들마을, 충남 부여군의 외리 3구 마을, 충남 청양군의 영양 1리 마을)을 선정하고 이들 사례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을 통한 점, 선, 면의 공간요소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지답사, 전문가 자문 및 당시 지도자와의 인터뷰 등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어렵게 구득한 당시 마을 주민총회 회의록을 분석하고 여기서 공간요소별 변화상황을 종합하였다.

새마을사업을 통한 공간요소의 변화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개 사례마을 점에 해당하는 공간요소 변화는 마을별로 공통적인 것과 다른 것으로 구분하여 추진되었다. 둘째, 4개 사례마을 선에 해당하는 공간요소 변화는 공통적인 것과 마을마다 다른 것으로 구분된다. 4개 마을 공통으로 소규모 교량을 건설하고 소하천을 정비하였으며, 농로를 개설하고 마을 하수구를 설치 혹은 정비하였다. 셋째,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한 4개 사례마을 면의 공간요소 변화는 미미했다.

이와 같이 4개 사례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을 통한 면적 공간요소가 미미했던 점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초기 특성으로 보여진다. 새마을운동 초창기 새마을사업의 우선순위가 주로 활동의 발생과 혁신의 초점인

점, 주민들의 활동을 매개하는 선 위주로 결정, 시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 마을 단위의 종합적 지역사회 공간구조 개편은 새마을운동의 성숙단계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한 사례마을의 점, 선, 면의 공간요소 변화는 주민들의 공동활동을 촉발하고 이를 매개, 전파하여 마을 전체적인 영향력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새마을운동은 우선 주민 개개인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점의 공간요소 변화를 이어주기 위해 선에 해당하는 공간요소 즉, 마을 안길, 마을 진입로, 소하천, 하수구, 도수로, 교량, 농로를 개설, 확장 혹은 보수 및 포장하였고, 이러한 공간요소들은 주민과 주민,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을 이어주어 결국 자원흐름과 의사전달을 원활하게 해주었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공간구조 개편은 우리만의 성공 사례를 세계표준으로 만드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공간요소를 놓고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현재 지역 사회 활동(community activity)을 매개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려 할 경우에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기간: 2010. 8. 23~2010. 11. 23
서지사항: 97면, 국토연 2010-57

>>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시설기준 보완연구: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Study for the Effective Revision of the Urban Facility Criteria in New Town Development
: Education Facilities

김은란, 오선영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개발 사업지역의 인구이동과 학생 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적절한 소요 학교 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학생유발률 산정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H공사, 화성오산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세 기관에서 제시한 동탄(2)신도시 학생유발률 산정방식과 미국 리카운티와 인천광역시 사례를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신도시 학생유발률 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신규개발지역 내의 학생유발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인구 설정과 학령인구추계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기준인구의 설정이다. 신규개발지역의 학생유발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세대당 평균학생 수, 즉 기준인구를 조사할 수 있는 표본지역이 필요하다. 표본지역의 선정은 기개발지역 중 입지여건 및 개발규모가 신규개발지역과 유사한 지역들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본지역 선정이 완료되면, 표본지역의 세대당 평균학생 수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동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이때 두 가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조사항목으로 개별세대의 주택 유형, 주택규모, 학교급별 학령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주민등록자료상의 학령인구와 실제 등록학생 수의 격차를 보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학령인구의 추계다. 표본지역의 학생유발률은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개발 중인 신도시의 준공시점은 미래에 발생하므로 표본지역의 준공시점과 신규개발지역의 준공시점 동안의 학령인구

의 변화추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통계청의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추계를 적용하여 준공시점의 신도시 학생유발률을 산정한다. 준공시점 이후의 학령인구 변화는 유사신도시의 학령인구 변화추세를 적용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신도시 학생유발률 산정 모델을 적용하여 동탄(2)신도시의 학생유발률을 산출하였다. 동탄(2)신도시의 입주완료시기인 2019년도의 주택유형 및 규모별 학생유발률을 기준으로 5년, 10년 후 학령인구변화를 추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원 영통지구, 일산신도시, 두 지역의 평균값 등 3개의 시나리오 모두 초등학교의 학령인구는 입주완료 연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이후 꾸준히 낮아진다. 중학교 학령인구의 경우, 세 개의 시나리오 모두 2019년을 기준으로 5년 후인 2024년에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 2029년에는 다시 감소한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 신도시의 학교수요 실태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변화 및 수요예측을 토대로 향후 건설될 신도시 내 적정 학교설립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교육청 간의 시비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10. 6. 9~2010. 9. 8
서지사항: 90면, 국토연 2010-9

>>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

Direction of Urban Policy under Population Decline in South Korea

김진범, 박경현, 장은교, 박은관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시대에 필요한 도시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참고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인구감소가 경제·사회·도시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개괄적으로 84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크게 산업·고용분야와 토지이용분야, 재정분야 등과 인구감소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어서 부산시(대도시), 여주시(중도시), 보령시(소도시) 등 3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소도시에서는 도심에서 3~4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고, 대도시인 경우 도심에서 8km 이내까지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도시에서 고령자가 일정한 비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상업·공업 등의 도시기능이 저밀도로 도시외곽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과 세부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구의 절대적 감소에 따라 대부분의 도시는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도시개발에서 도시관리로의 전환'과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중시'를 설정하였다.

이상의 기본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물적 부문에서는 기존의 토지를 최대한 유효하게 활용해 나가야 하고, 둘째, 사회경제 부문에서는 고령자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이들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수

준을 보장하는 생활복지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셋째, 지역주민의 지역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셀)의 계획체계를 구축하고, 넷째,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가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물적 부문에서의 세부추진방안으로는 '자연보전과 토지자원절약을 위한 그린콤팩트도시 지향', '낙후시가지 환경수준 향상을 위한 실천가능한 도시재생 강화', '도시재집적화를 뒷받침하는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제시하였다. 사회경제부문의 '기존 주민 중심의 사회통합적 도시재생의 추진', '고령자가 거주하기 편리한 자립형 주거 확충', '이동과 이용이 편리한 고령자친화도시 정비' 등 세부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체계로서는 '맞춤형 대책마련을 위한 지구단위(셀)의 계획체계구축', '지역주민을 위한 물적·사회경제적 정비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계획 및 시행주체의 역할에 관해서는 '지역단위 주민참여 촉진',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정부 간 연계 강화', '비영리 민간부문의 역량 활용'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159면, 국토연 2010-28

>>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Green Territorial Index

김명수, 정석희, 김상조, 박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및 저탄소 녹색국토 개념에 따라 정책 이슈를 발굴하였다. 정책이슈별로 지표 풀을 작성하고, 지표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지수개발을 위해 주제별 접근, 벨라지오 원칙, 지표의 단계적 적용가능성, 지표 간 인과관계 고려를 지수개발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지수개발은 2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는 1차 예비 지표 선정 → 2차 지표선정 → 3차 최종지표 선정 등과 같은 지표선정 과정이다. 2단계는 선정된 지표별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가중치 부여 → 지표별 자료의 수집 → 수집된 자료의 가공과 계량화 및 표준화 등 지수화 과정이다.

선정된 최종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을 통해 분야별, 정책목표·지표별로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30개 지표가 선정되었으며 3개 핵심분야별 가중치는 경제 : 환경 : 사회 = 0.31 : 0.39 : 0.30로 나타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정책목표별 가중치는 0.06에서 0.18까지 지표별로 차이를 보였다.

구축된 저탄소 녹색국토지수를 실제로 시범도시에 적용하여 보았다. 시범도시로는 자료의 구득가능성이 높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도시를 선정하였다.

저탄소 녹색국토지수를 핵심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종합지수는 A, E, B 도시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G와 C 도시가 열위지역으로 나타났다. 3대 핵심분야 모두에서 평균 이상인 지역은 A, E, B 도시이고, 모든 분야에서 평균 이하인 지역인 G 도시다. D 도시는 녹색경제 분야에서 평균 이상을, F 도시는 녹색사회 분

야에서 평균 이상의 지수가 산출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의 여건 및 역량평가에 저탄소 녹색국토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159면, 국토연 2010-33

>>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Urban Regeneration Policy with Consideration for the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정윤희, 이영아, 이진희, 박근현, 김범진

이 연구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넘어 취약계층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특성 및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기존 도시재생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취약계층 밀집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현황조사와 심층면접, 설문조사를 통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통하여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취약계층 밀집 사례지역은 모두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러한 유형 및 외부적 환경요인은 내부적 요인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제 및 고용환경과 서비스 수준은 개인 수준의 변수보다는 취약계층 밀집지역 유형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내부적 요인의 세부항목 모두 지역의 경제 및 고용환경과 서비스 수준이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거주민이 느끼는 내부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외부적 환경요인이 도시재생정책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의 물적 기반 확충에 머무는 도시재생사업이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문제를 전환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결국, 세밀한 정책대응과 경제 및 고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우선 물적 기반 및 주거공급 위주의 도시재생정책 방향에서 사회·경제적 통합적 재생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각 지역이 지니는 공간적 특성 및 내부적·외부적 문제 요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한편 사례지역들은 지역별로 각각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므로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도시재생정책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지역별로 다른 세부적인 지역특성과 차이를 반영하는 소규모의 지역 맞춤형·유형별·부문별 정책방향을 도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에 밝은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역 밀착형으로 활동하는 민간사회자본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러한 지역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포괄보조금 형태의 지자체의 자유재량권이 있는 재정지원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역재생을 이룰 수 있으므로 다양한 기금 및 자원 조달방안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특히 기존 연구의 임대아파트 단지 등에서 나타나는 동네효과를 일부 입증할 수 있었는데, 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필요함을 재검증하였다. 소지역 맞춤형의 정책접근과 다양한 민간부문의 활용 등 이러한 부문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83면, 국토연 2010-27

>> 한국도시정책의 현황과 과제

Review on the National Urban Policies and Planning of Korea

이영아, 정윤희

이 연구는 OECD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도시정책리뷰(National Urban Policy Review of Korea, 2009~2011)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OECD 한국도시정책리뷰 보고서의 구성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먼저 한국의 도시정책을 심층분석하고, 도시정책에 영향을 준 요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도시정책 상황을 소개하고, 외국의 한국도시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도시정책의 변화 및 세계화 시대 한국의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차원에서 다루었다. 다음으로 한국의 주요 공간정책 및 계획사례, 도시개발기법 및 이를 실행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도시사례를 통해 한국의 도시정책 및 도시개발 사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연구의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2장에서는 세계화시대 도시의 문제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차원에서 탐구하고 있다. 3장에서는 도시문제를 다루는 국가차원의 도시계획을 소개하였다. 4장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거버넌스 시스템을 포함하여 도시개발 및 관리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5장은 특히 규제 및 규제완화와 관련된 도시정책에 초점을 두어 소개하고 있다. 6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용도지역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도시를 위한 부문별 정책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연구는 OECD에서 발간하는 한국도시정책리뷰 발간을 위해 수행된 지원 연구의 한

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분석적 접근에 이르지 못하고, 한국의 도시정책 및 계획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친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가 한국의 도시정책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외국의 연구자나 공무원들에게 한국 도시의 상황과 도시정책을 간결하게 소개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기간: 2009. 10. 1~2010. 4. 30
서지사항: 67면, 국토연 2010-2

>> 한국 신도시 개발의 파트너십 연구

The Partnership of New Town Development in Korea: A Multi-scalar Growth Politics Perspective

신혜란, 손정원, 박세훈

본 연구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에서 국민국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갈등하며, 이 갈등이 국가의 재규모화(rescaling)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송도 신도시와 서울 은평지구 개발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삼아 성장지향적인 한국의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지방화되는지, 국민국가는 국가를 약화시키는 정치경제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이러한 국가구조 재편이 성장정치(growth politics)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규모 성장정치(multi scalar growth politics)'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지구화와 지방화에 직면하여, 국민국가가 가지고 있던 개발주의적 지향이 지방정부에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국가도 지방수준의 성장정치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구조 재편을 지방화와 등치시켜서는 안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중앙-지방 간 갈등이 발생하고 통합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구조 재편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 과정에서 각급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연구했다는 의의가 있다.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권력독점이 강력했던 한국에서 권력의 지방이양(devolution)은 민주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시개발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증대, 즉 국가의 재규모화(state rescaling)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 재규모화 과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성장정치에 더욱 적극적인 주체로 등장함에 따

라 국가/지방정부/주택소유자/일반시민들 사이의 갈등 관계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화 혹은 지방이양이 기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편시킬 뿐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도시개발과정에서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민간부문이 도시개발을 주도했던 서구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가 도시개발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부는 마치 민간부문과 같은 원리로 움직였다. 파트너십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개발사업의 합리성과 공공성이다. 주체들 사이의 경쟁의 초점이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개발의 내용에 어떻게 공공성을 담아 낼 것인가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연구기간: 2009. 12. 1~2010. 5. 31
서지사항: 101면, 국토연 2010-7

>> 한국의 도시화 과정과 정부 정책에 관한 연구

Urbanization and Urban Policies in Korea

박재길, 김대중, 고용석, 김은란, 박근현

본 연구는 세계은행이 한국의 도시화 경험을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정책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자 요청하여 수행하게 된 연구다. 먼저 세계은행이 선행 연구로 수행한 경제성장률과 도시화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가설의 타당성을 한국의 과거 도시화 정책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경제성장의 공간적 특성인 밀도, 거리, 분화에 대해 도시화 정책은 제도(institution), 인프라(infra), 특별개입(intervention)의 순서로 추가하면서 대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를 진단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를 한국의 도시화 과정에 적용하여 지표 진단의 타당성도 검토하게 된다.

먼저 한국의 도시화 정책을 도시계획 및 토지관리, 주택공급정책, 교통정책, 저소득층 밀집 노후 주택지 정책의 4개 분야별로 나누어 도시화 초기, 중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계획 및 토지제도는 개발사업-토지이용관리-계획제도로 발전해 온 것을 볼 수 있었다. 주택 부족의 경우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은 도시화 성숙기에 들어와서이며, 교통정책은 초기에는 철도 중심에서 중기에는 고속도로 중심으로 옮겨가고, 성숙기에는 대도시권 교통과 고속철도 교통이 중요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의 저소득층 밀집 노후 주택지는 도시화 중간 및 성숙기에 이르러 도시재개발 시장에 통합되어 이제 개별 거주자 문제로 탈바꿈하여 향후 복지 정책의 과제로 남아 있다.

도시화 진단 지표는 1960년대 이후를 대상으로 도시구성의 변화, 도시계획 및 관리, 도시연결성의 3개 분

야, 8개 지표로 나누어 진단하였다. 도시구성 변화로 구축한 도시화율, 도시규모 분포, 제조업 취업자 비중의 3개 지표를 통해 도시화의 단계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계획 및 관리 분야는 상수도 보급률, 도시용지 면적, 주택보급률을 지표로 하였다. 토지전매수 방식이 도입되어 도시용지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지고, 성숙기에 상수도 공급체계와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 도시연결성은 도로연장당 차량등록대수, 고속도로 IC 접근 시간대의 두 가지 지표를 통해 도시화 성숙기에 이르러 대중교통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고속도로에 의한 접근성도 전국적으로 고루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세계은행의 도시화 정책 가설이 한국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정책을 설명하는 데도 매우 유용한 것임을 언급하고, 앞으로 개발도상국이 추진할 도시화 정책의 기본 구도로 생각할 수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한국을 사례로 한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정책과 저소득층 밀집 노후 주택지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세계은행의 가설과 진단 지표에서 관련 사항의 보완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기간: 2010. 7. 1~2010. 12. 31
서지사항: 111면, 국토연 2010-56

>>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I)

The Action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of Korea(I)

김선희, 이용우, 양진홍, 백경진, 최미선 외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천혜의 국토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하는 한국형 국토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반 수단을 모색하고자 2011년까지 2개년 연구사업으로 추진되었다. 1차년도 연구는 국토의 본질적 특성과 잠재력, 미래트렌드를 고려해 한국형 국토발전 모형을 정립하고 강, 산, 섬, 길, 마을 모형별 국내외 성공사례에 대한 주요 핵심요소를 지역의 고유한 국토셀(Micro-scale Spatial Cell: MSC)로서 다층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의 기본방향은 '天·地·人' 활용을 통한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과 확산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시대트렌드, 입지적 조건, 인적 자원력의 조화를 통해 창조해가는 국토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주요 골자로 하여 강, 산, 섬, 길, 마을의 모형별 실천전략을 정립하였다.

강 모형은 강을 중심으로 공공성 기반의 새로운 수변문화 창출을 비전으로 하여 강변 명품숲 조성, 물 순환 기반의 생태공원도시 조성, 수변형 건강문화생태회랑 조성, 유역권별 문화적 경관 조성과 지역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산 모형은 친환경 산지활용과 산림문화 창출을 통한 산림복지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주거·산업·휴양 등 복합용도의 산림도시(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도시휴양림 및 도시공원을 세계 대도시 수준의 공원으로 품질 제고, 복합산림경영,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산림수익모델 창출의 21세기형 둔산정책 실시 등을 주요 정

책과제로 도출하였다. 섬 모형은 한국섬의 고유성을 살린 세계적인 명품섬 창조를 비전으로 하여 세계 명품섬 조성, 체계적 자연·정주환경관리를 통한 섬 이용 및 보전 프로그램 개발, 섬과 섬, 섬과 지역 연계를 통한 섬 발전체계 정립, 섬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길 모형은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도보길 지역문화자산 창출을 비전으로 하여 국가 도보길 정비, 건강+생태+역사문화를 융복합한 한국의 산티아고길 창조, 길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주요 과제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마을·주거 모형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살고 싶은 녹색도시·마을 재생과 창조를 비전으로 하여 한옥과 전통마을 보전과 확산, 지역특화자원을 토대로 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우리 고유의 문화적 경관 선정 및 활용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우리 국토의 특성과 잠재력, 미래트렌드를 고려한 한국의 강, 산, 섬, 도보길, 농촌 마을 등을 잠재자원으로 활용하는 모형을 정립하고 지역고유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형 국토발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국토종합계획 및 지역통합발전계획 수립 등 상위지침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402면, 국토연 2010-21

>> 혁신적인 녹색도시: 시애틀 사례

Innovative Green City: The Case of Seattle

Christine Bae, 이왕건

이 연구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대도시권(Puget Sound)에 초점을 맞추어 녹색성장 실천사례를 조사하여 한국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사례는 ① 가장 앞서가는, 혁신적인 기술, ② 지식의 전수가능성, ③ 제도적 적용가능성, ④ 다른 사례 연구와의 차별성 등을 기준으로 엄선되었다. 선정된 사례는 시애틀 녹색요소, 녹색가로, 녹색교통이다.

시애틀 녹색요소(green factor) 사례의 경우 계획가들은 혁신적인 그린디자인 해결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자, 건축가, 조경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에 기반을 둔 점수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디스커버리센터를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는 토양침식 양을 줄이고 피크 시 유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은 대기 및 수질개선, 소음완화, 폭우관리, 도시열섬지역에 대한 냉각효과와 같은 다양한 생태학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확인되었다.

미국 시애틀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의 결과 한국에서 녹색성장이 성공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시사점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연구기관과 정부조직의 변화로, 한국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정부 간 조정 및 협력, 학제 간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비용대비 효율성, 새로운 설계 차원의 해결방식, 새로운 용도지역제, 안전기준, 새로운 시장의 형성과 같은 다양한 도전이 원활히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우리는 녹색교통수단,

녹색인프라, 녹색빌딩과 같은 훨씬 깨끗하고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차세대 산업혁명은 모든 사람의 일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계획목표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동의하고 함께 움직일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이다. 많은 시민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시민주도형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서 시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이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

연구기간: 2009.10. 1~2010. 2. 28
서지사항: 172면, 국토연 2010-4

>>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연구

Integrated Action Plan of Posterior to the Four Major River Project

김종원, 이원섭, 심우배

본 연구의 목적은 4대강 본류를 중심으로 한 보의 건설과 준설, 그리고 4대강 본류로의 물 공급확대를 위한 중·소규모댐 및 농업용저수지의 증고와 관련 수자원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및 수자원정책과 제도 개선을 다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은 4대강 살리기를 녹색성장의 동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4대강 정비로 인하여 확보된 수량의 증가에 따른 수량의 상하류 간의 합리적 활용방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지역개발과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실천적 유역관리 및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실천적 과제는 크게 하천관리, 수자원관리, 그리고 하천연안의 개발 및 관리 등 세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의 하천의 유지관리를 비롯한 하천관리 제도의 변화, 수량의 확보에 따른 용도별 배분, 이로 인한 물값 갈등, 보의 건설 등으로 인한 수질 악화에 대비한 수질정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4대강 연안의 지역개발 추진에 따른 갈등,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들 세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4대강 본류의 인프라 구축 이후에 하천과 수변공간의 유지관리, 그리고 하천과 연계한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천관리 분야에서는 하천관리조직, 하천관리재원의 확보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하천관리조직은 국가가 직접 유지·관리하는 방안, 현재의 체계(시·도지사)를 유지하되 현재보다 더 늘어나는 관리인력 및 재

원에 대해 국가가 전액 보조금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안, 하천관리공단(가칭)의 신설을 통하여 하천의 유지관리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다. 하천관리재원은 신규재원의 신설, 기존 준조세의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재원으로는 취수부담금, 기존 준조세의 활용은 물이용부담금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수자원관리 분야는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나는 수량의 배분과 관련된 수리권의 정비, 상수도의 중복투자 방지, 기존 댐 원수 요금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수질관리를 위하여 분류로 유입되는 지류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이 수질개선 사업의 과제다.

마지막으로 하천연안의 관리 및 개발 분야에서는 하천연안의 체계적 개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4대강 연안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개발과 보전, 지역 간 갈등·경쟁 조정 및 예방이 주요한 과제다. 이를 위하여 지역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경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상호 간, 중앙정부-지자체 간 상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168면, 국토연 2010-23

03

c h a p t e r II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 건설경기 진단 및 전망체계 구축	50
▪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체계에 관한 연구	51
▪ 글로벌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	52
▪ 농어촌지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어촌뉴타운사업 발전방안	53
▪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농지관리정책의 발전방향	54
▪ 미국의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 비영리주택조직의 역할을 중심으로	55
▪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능동적 주거지원 발전방안 :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실태 및 수요조사와 일자리창출 연계방안	56
▪ 부동산산업의 발전방향과 향후 과제	57
▪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III): 부동산시장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K-REMAP의 정책적 이용 증진 방안	58
▪ 비수도권 인구정체형 도시의 주거문제와 정책방안	59
▪ 산줄기·물줄기를 고려한 산지구분 및 합리적 관리방향 연구	60
▪ 선진국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II)	61
▪ 新성장동력거점 해외사례 연구	62
▪ 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지원 방안 연구(II)	63
▪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64
▪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65
▪ 주거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66
▪ 프랑스의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제도 연구	67

>> 건설경기 진단 및 전망체계 구축

A System for the Diagnosis of Construction Business Cycle and the Prospection

김민철, 김성일, 안흥기

본 연구는 건설경기 및 전망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를 방법론별로 정리하여 수행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경기지수 작성을 별도로 수행하거나 예측모형 개발을 별도로 수행하는 등 이슈별로 개별적인 접근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경기지수의 개발과 전망모형의 개발, 그리고 가장 최신의 방법론인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을 개발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건설경기 선행지수는 토지거래, 건설업주가지수, 건축허가면적, 건설수주 등의 지표를 종합함으로써 구할 수 있으며, 건설경기 동행지수는 건설기성, 건축착공면적, 건설용 중간재 출하지수, 건설업취업자수를 종합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연구에서 선행성을 갖는 건설경기 선행지수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건설투자는 정부지출 형태로 집행되면서 생산과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설투자는 정부지출 형태로 집행된다. 따라서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건설투자 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방향과 패턴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정부지출충격이 1% 가해질 경우 산출량은 0.1%가량 증가하고 1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민간소비를 구축하여 소비는 감소하였다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은 산출량과 비슷한 패턴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는 0.01%

정도 상승하였다가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본래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가 포함된 정부지출 충격은 산출량 변동의 24%를 설명하고 있어서 노동생산성 충격과 비슷한 정도로 산출량 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고용 변동의 약 20%는 정부지출의 변동으로 설명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에서 거시경기 진작을 위해 건설투자를 비롯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므로써 산출량 하락의 1/4 정도, 그리고 고용 감소의 1/5 정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작성한 건설경기 지수와 구조방정식 모형, 그리고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등은 이론적이며 계량적으로 강건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충실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제언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10. 4. 1~2010. 6. 30
서지사항: 100면, 국토연 2010-60

>>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체계에 관한 연구

Public Noticed Price System for Multi-unit House and its Competent Agency for Price Survey and Notice Function

정희남, 강미영

2005년에 도입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는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와 단독주택가격 공시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는 한편, 단독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고 있다. 이 같이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가격 공시체계를 일원화하고 이를 위하여 공동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자는 의견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가격 공시업무를 둘러싼 최근 논란의 쟁점을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먼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과세권자가 과세물건의 조사 및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입장에서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공시주체의 일원화방안에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런데 공시체계 개편은 공시주체 측면뿐 아니라 경제성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관련 제도 운영에서 행정·재정적인 비용을 줄이자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가격 공시기능의 지방이양은 공동주택가격 조사·평가비용 1,550억 원, 지방공무원 확보비용 247억 원 등 총 1,807억 원이 필요하여, 현재 한국감정원이 전수조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142억 원과 비교하면 12.7배 이상 늘어나는 고비용구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와 같은 고비용구조는 정부조직 및 행정의 효율화라

는 다른 정책목표와 상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면 현안과제인 공동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분권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도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검증·공시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공동주택가격 공시체계의 개편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라는 정치·행정적 차원뿐 아니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조사방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시제도 운용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기존 제도와의 연속성 및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발견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 업무의 지방이양 과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는 부동산가격공시법 및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등 정부의 부동산가격공시 관련법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련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기간: 2010. 4. 1~2010. 7. 1
서지사항: 163면, 국토연 2010-5

>> 글로벌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

Strategies for Carving Out Global 'Soft Territory' and Overseas Markets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김영표, 한선희, 최병남, 최윤경

세계는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확대 등에 힘입어 명실상부한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인류사의 흐름에 따라 과거와 달리 국가 간에 그어진 물리적 영토와 국경의 개념이 느슨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통합을 넘어서 정치적 통합을 가꾸어가는 유럽연합은 곳곳에서 과거의 고정된 물리적 영토 개념인 경성공간(hard space)과는 전혀 다르게 공간의 연성화(soft spac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이나 일본처럼 자국의 영토는 크지 않으나 수출 등을 통해 세계의 경제력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키우고 글로벌 경제영토를 크게 확대한 나라들도 있다. 이러한 연성공간의 확대야말로 미래의 국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자국의 글로벌 연성국토를 확대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공간 연성화 현상에 대응하여 글로벌 연성국토 확대를 목표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공간프로젝트의 해외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글로벌 전략지도를 작성하였다.

개도국이 필요로 하며 우리가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공간프로젝트는 대체로 다음 10가지다. ① 공간계획 수립 및 자문, ② 도시개발 및 농촌건설, ③ 교통기반시설 구축, ④ 도시기반시설 구축, ⑤ 수자원 개발, ⑥ 에너지 관련 자원개발, ⑦ 토지개발, ⑧ 정부정책 컨설팅, ⑨ 조사 및 연구 용역사업, ⑩ GIS 및 국토개발 관련 교

육훈련 사업 등이다.

한국의 연성국토는 바로 한국인의 세계무대다. 이러한 글로벌 연성국토를 개척하고 공간프로젝트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국익 전략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개척해야 할 지역에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점 배분하고 진출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저소득 자원대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야 하며, 아시아 개도국과는 국토개발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중남미 국가들과는 자원의교와 FTA외교를 더욱 돈독히 하고 국토인프라 구축기술의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선진발전지역의 연성국토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서유럽 지역에 대해 상호 경제·문화적 연성국토를 공유할 수 있는 교류 폭을 넓혀 가야하며, 재외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이미 상당한 연성국토가 형성된 북아메리카 지역은 우수한 대학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교육 및 고급인력 양성기지로써 기존의 연성국토를 더욱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가 가진 우수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범지구적 연성국토 확산전략을 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도시 개발사업의 수출을 비롯하여 몽골리언 국가들과의 경제·문화적 네트워크 강화, 한국인 공동체 마을의 글로벌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57면, 국토연 2010-30

>> 농어촌지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어촌뉴타운사업 발전방안

Improvements of Rural New Town Project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

최혁재, 김창현, 김승중, 김재호

본 연구는 농어촌에 도시의 젊은 인력을 유치하려는 농어촌뉴타운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어 앞으로 더욱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도시의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입주대상이 확대되는 조짐을 보여 사업성격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 셋째, 종합적인 계획없이 단일사업으로 추진되고 관련 사업들이 연계되지 않아 중복투자 와 비효율이 우려된다. 넷째, 시·군의 지방재정력이 취약하여 사업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신규마을 조성방식에만 의존하여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고, 표준사업비가 낮아 사업비 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다. 여섯째, 입주수요가 크지 않고 주택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분양이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방안은 첫째, 사업대상의 합리화다. 사업지구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업지구를 읍·면 소재지 인근에 입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마을을 포함한 종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 귀농희망자의 안정적인 수용과 주택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대상을 확대하되, 도시거주 젊은 귀농희망자부터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추진체계의 효율화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함으로써 사업부지를 사전에 시·군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다른 관련 사업과의 연계추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주체에 참여시켜, 입지선정 및 주택건설 등의 기준

은 시·군이, 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맡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셋째, 사업방식의 현실화다.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지방식을 활용하며, 표준사업비 원단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사업면적의 과다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대지면적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 주택미분양과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분양 방식과 임대방식을 적절히 병행하며, 특히 분남임대나 전세임대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 농어촌뉴타운 사업이 앞으로 확대 추진되는 데 기여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농어촌 정주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조성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국토공간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사업성 측면에 대한 보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의 효과적 집행 및 절감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 및 주택미분양의 우려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184면, 국토연 2010-51

>>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농지관리정책의 발전방향

Policy Directions for Farmland Management Coping with Expansion of Urban Land Supply

최혁재

본 연구는 최근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농지·산지 등의 규제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쌀공급 과잉이 계속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농지면적을 축소 하자는 주장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논란을 출발점으로 한다. 이 연구는 이 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용지를 원활히 공급하는 동시에 우량 농지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농지관리정책의 발전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먼저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해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도 개발에 대한 기대로 투기수요가 증가하여 지가가 낮아지지 않는 것이 이론적·실증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개발잠재력이 커져 지가가 그전보다 올라가기 때문이다. 셋째, 우량농지는 국민식량공급의 보루라는 공공재적 성격상 토지이용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쌀공급이 과잉이므로 농지면적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쌀공급 과잉은 벼 재배면적이 과다해서이지, 농지면적이 많아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쌀공급은 과잉상태지만, 전체 곡물자급도는 26.7%에 지나지 않아 농지면적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도시용지 공급원 선정 시 고려할 원칙으로서 도시용지 공급으로 인해 얻는 사회적 편익이 농지나 산지가 전용됨으로써 잃는 사회적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도시용지 공급원은 도시 안의 미개발지나 저밀도이용토지, 영농여건불리농지와 준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밖

의 농지 중 영농여건불리농지가 아닌 농지의 순으로 충당하고, 우량농지 및 보전산지는 극히 예외적으로 공공목적에만 전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관리정책의 발전방향으로는 우량농지를 엄선하여 생산기반을 완비하며 전용규제를 강화하여 농업목적 이용만 허용하는 대신, 그로 인한 인근 비우량농지와 지가차액을 개발권매입제를 도입하여 보전해 줄 것을 제시한다. 또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비우량농지는 비농업적 용도를 대략적으로 구분하고 그 상세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여 다용도로 활용하는 대신, 현행 보전부담금을 상향조정하여 전용이익을 보다 철저히 환수하고 환수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 편입하여 개발권매입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관련하여 농지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농업부와 비농업부 간, 관련 부처 간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시용지를 원활히 공급하면서 우량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농지관리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기간: 2010. 7. 19~2010. 10. 19
 서지사항: 115면, 국토연 2010-54

>> 미국의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 비영리주택조직의 역할을 중심으로

Exploring Low-Income Housing Delivery Systems: Rol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최상욱, 김혜승, Max Stephenson, 전성제

본 연구는 주거 관련 비영리조직의 역할 및 민관협력을 중심으로 미국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전달체계의 현황 및 구체적 지역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저소득 주택정책의 리더십 변화(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로)를 개관하고,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HOME Investment Partnership program, HOPE VI program,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program 등 미국의 주요 저소득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미국 5개 주(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플로리다 및 버지니아)의 저소득가구 주거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뉴저지주를 사례로 저소득층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조직담당자의 인터뷰와 비영리주택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지원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주거지원서비스에 있어 협력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뉴저지주의 협력거버넌스 사례분석으로부터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정부가 주거지원서비스 거버넌스 구축을 계획할 때 뉴저지 사례와 같은 네트워크 운영조직에 의한 네트워크(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NAO) 형태의 협력거버넌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뉴저지 사례는 프로젝트 비용뿐 아니라 운영비 지원까지를 포함하여 비영리주택조직의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 활동

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뉴저지주의 Neighborhood Revitalization Tax Credit Program 사례는 한국 정부가 비영리주택조직이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준비하고 수행하도록 고무시키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둘째, 뉴저지의 협력적 주거 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와 비영리조직이 다른 부문들과 효과적인 협력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파트너십은 주택개발에서부터 사회서비스 및 경제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뉴저지 사례는 비영리주택조직뿐 아니라 주거지원과 관련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좋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저소득 주거지원을 위한 예산을 협력거버넌스체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기대한다.

연구기간: 2010. 2. 1~2010. 4. 30
 서지사항: 118면, 국토연 2010-3

>>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능동적 주거지원 발전방안 :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실태 및 수요조사와 일자리창출 연계방안

A Plan to Develop an Active Living Support in Association with Welfare Service

천현숙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양육실태를 조사하고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틀 속에서 저소득층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육비 부담 증가로 인하여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에 따른 조손가정,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 가정을 비롯한 보육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이거나 보육취약계층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증대하고 있는 것도 하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보육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현재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실태와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향후 필요한 보육시설의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한 시설의 수요도 추정하였다. 실태과약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의 보육시설 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육 관련 실태조사를 위해 임대주택단지 6곳과 어린이집 등 4곳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유형별로 선정하였으며, 단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비롯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활용 공간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하였다. 인터뷰의 조사내용은 조사단지 개요, 보육서비스 관련 사항, 단지 내 주민 일자리 제공 관련 사항, 보육서비스와 주민일자리 연계 관련 사항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단지 내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주자의 특성과 연령 및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육 관련 수요는 보육시설만 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보육문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출퇴근 전후의 시간과 방과 후 보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아파트에서의 보육서비스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일반 시장가격보다는 저렴하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내에서 일자리 연계 차원에서 베이비시터 교육을 받는 교육이수자는 생계형으로 하기 때문에 적정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육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 연계와 관련해서는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허브 기능은 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조사결과 단지 내 보육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이용의사는 49.9%,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63.3%였다. 응답자의 34%가 보육도우미로 활동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서비스 제공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며 또한 여성친화적인 일자리로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10. 2. 16~2010. 6. 30
서지사항: 149면, 국토연 2010-8

>> 부동산산업의 발전방향과 향후 과제

Development Strategy for Advancing Real Estate Industry and its Future Tasks

지대식, 이수옥, 전성제, 유현지

본 연구는 부동산산업의 의의와 국민경제적 위상 및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국의 선진화된 제도·정책 사례와 우리 부동산산업의 비전 및 전망에 근거하여 발전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함으로써 이 산업이 안고 있는 주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부동산산업 동향과 관련 제도 등을 대상으로 문헌조사, 통계분석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외국사례 분석 및 발전전략 도출을 위하여 협동연구와 연구협의를 병행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우선 부동산산업의 의의와 서비스 산업으로서 성장배경을 제시하고 국민경제적 위상을 소개하였다. 여기서는 부동산산업의 개념과 범위를 비롯하여 부동산서비스의 특성과 산업적 성장배경을 고찰하고 국민총자산 및 GDP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및 산업의 위상과 국민경제적 비중 및 특징을 개관하였다.

두 번째는 부동산산업의 시장규모와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부문별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전자는 산업연관분석 등을 활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및 세분류로 파악했으며, 후자는 개발 및 분양대행, 임대 관리, 중개 및 감정평가, 기타 관련 서비스 등 부문별로 의의와 발전배경, 현황과 실태 및 주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주요국 부동산산업의 범위와 경제적 비중, 부문별 구조 등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제도·정책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북미와 유럽 및 일본에 대한 사례연구는 가급적 특성이 대비되도록 하여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특히 서구사례에 대해서는 현지 전문가에 의한 협동연구를 통하여 내실을 기하였다.

끝으로 네 번째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비전과 여건변화를 전망하고 향후 발전전략과 주요 시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협동연구와 연구협의를 거쳐 연구내용을 체계화했으며, 주택은 물론 빌딩 등 비주택 분야를 아울러서 개발 및 분양, 임대 관리, 중개 유통, 감정평가, 부동산금융 등의 부문별로 접근하여 주요 과제와 시책이 제시되도록 하였다.

요컨대, 이 연구는 부동산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비전과 미션을 체계화하고 중장기 시각에서 부문별로 전망되는 주요 과제와 대응방향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전략을 제시하였다. 워낙 방대하고 이질적인 내용을 통섭하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부분을 다루지 못했으나, 지금까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환경에서는 위기와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관점에서 부동산산업에서 새로이 성장하는 경향들을 분석하여 장기적·구조적 개혁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산업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190면, 국토연 2010-34

>>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III)

: 부동산시장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K-REMAP의 정책적 이용 증진 방안

A Study on the KRIHS Model for Analysis and Prediction of Real Estate Market(III)

이수옥, 김재환, 최정임, 황관석, 전성제, 유현지, 이현지, 박천규, 지대식, 김승중

이 연구는 부동산시장 분석 및 진단 모형인 K-REMAP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높여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고, 모형의 효과적 이용에 기존의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필요한 기능을 새롭게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연구내용은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이론과 방법론, 분석모형의 수정과 추가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문헌연구와 실태조사 결과가 주로 활용되었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K-REMAP 활용도 증진을 위한 거시계량모형 개발과 구축, K-REMAP의 DB 및 분석시스템 확장, 유지관리방안 그리고 모형과 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시장 동향 진단 및 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K-REMAP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2차연도 연구에서 기개발된 여러 모형을 발전시켰다. 전세시장모형과 전세시장압력지수의 생성, 주택매매시장압력지수와 전세시장압력지수의 결합, 그리고 소비자 심리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진단 방식과 결합방식의 보정, 비수도권 주택정책평가모형을 확장한 비수도권 주택정책평가모형 등을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둘째, 부동산정책 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장래 변화 정도를 시뮬레이션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시장 거시계량모형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부동산정책 변화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기존 모형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개발한 모형을 응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과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책 이용자 중심의 기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구축된 K-REMAP은 부동산시장을 분석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리고 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시적지(適時適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줄 시스템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이루어낸 K-REMAP의 분석 및 예측기능, 시뮬레이션 기능 등은 기존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성과로 향후 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이끌어내는 데 다양한 정책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25면, 국토연 2010-49

>> 비수도권 인구정체형 도시의 주거문제와 정책방안

Housing Issues and Their Policy Directions for Non-Metropolitan Cities with Population Stagnation

김민철, 배순석, 천현숙, 하수정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도시의 지역적 특성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인구정체·감소형 도시의 주거 특성을 파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이 이들 도시들에 적합한지를 평가한 후, 적절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0~2005년 기간 중 인구가 -5%보다 더 감소한 도시를 '인구감소형 도시'로 정의하고, 인구변화가 거의 없어 인구변화율이 3~-3% 사이인 도시를 '인구정체형 도시'로 정의한다.

성장형 도시와 비교하여 인구정체·감소형 도시에서는 가구원 수의 감소와 더불어 고령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더 높게 나타났다. 주택의 자가비율이 높고, 주거이동성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가구원 수의 감소, 1인가구의 증가, 저소득층 고령 가구의 증가라는 인구 특성이 성장형 도시와 비교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주거이동성이 낮고 거주기간이 긴 인구정체·감소형 도시의 가구들은 신규주택보다 기존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요가 더 크다. 그러나 신규주택 공급중심 정책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자금 지원이 신규주택 건설에 집중되면서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 리모델링 지원이 부족하여 지방도시 주택의 노후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요관리 및 공급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주택수요 관리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LTV 규제나, 전매제한제

도 등은 인구정체·감소형 지방도시에서는 규제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편 자가가구 비율이 높음에도 고령화가 수도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노인가구와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정책으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의 신규주택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재고주택관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가보유 비중이 높고 거주기간이 긴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시동태모형 분석결과 공동화 지역에서는 철거를 촉진하고 비공동화 지역에서는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셋째, 근린단위의 주택계획을 수립하되 소득, 연령, 가구구성 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맞춤형 주택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포괄보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32면, 국토연 2010-53

>> 산줄기·물줄기를 고려한 산지구분 및 합리적 관리방향 연구

Policy Directions for Rational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land by Considering the Mountain Ridge and Valley Networks

손학기, 정희남, 최 수, 이동근, 서창완

본 연구의 목적은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인 산림의 공익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점적 보전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산지구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산지구분기준인 개별 필지의 임목생육 및 입지특성 이외에 산줄기·물줄기가 가지는 공간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산지구분 방법과 향후의 산지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산지의 입체적인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산줄기·물줄기를 도입한 산지구분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입목수준 및 산림유역 수준에서 산지 평가를 위한 지표로 산림생태계 지속성, 산림생육기반, 개발압력의 세 가지 부문에 기존 산지구분의 지표 12개와 신규 지표 7개, 총 27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산지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산지를 5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1과 2등급은 보전관리 산지, 3과 4등급은 산림자원 산지, 5등급은 자연친화이용 산지로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산지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지구분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산지구분 방법을 남양주시에 적용하여 이 방법을 통해 고차원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으로 발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보전되어야 할 산지가 산줄기를 중심으로 집단화되고 파편화되지 않은 산림유역이 보전목적의 산지로 구분되어, 산림생태계의 연결성이 뛰어나고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이용 가능한 산지는 기성시가지와 연계됨으로써 개발 수요에 쉽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산지구분을 통한 합리적 산지관리 방향으로 산지관리의 대상에 대한 재정립, 산지관리의 단위를 필지에서 산림유역으로 전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산지관리의 틀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산림녹화를 뛰어넘어 산지 차원에서 고차원의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산지관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어디를 보전하고 어디를 이용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산지구분 방법'으로 2013년 전국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립 예정인 산지관리 기본계획 및 산지관리 지역계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산지가 산(mountain)임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보는 기존의 시각이 평면적이었다면 산줄기·물줄기가 형성하는 산지의 공간구조를 통해서 산지를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139면, 국토연 2010-40

>>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II)

The Transfer System of Floor-Area-Ratio: A New Approach to Advanced Territorial Management in South Korea(II)

채미옥, 구형수, 안영아

이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용적률매입제의 도입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용적률거래제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권, 지상권 등 법적적 검토를 통해 용적률거래제와 매입제의 대상물인 용적률이용권의 기초를 다지고, TDR 및 용적이전제 등 해외 유사제도의 분석을 통해 제도화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종 부담금제도의 부담금 부과방법, 부과기준, 재원 분배 현황을 파악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파악하여 제도 간 상충성 및 중복성 제거방안을 모색하였다. 용적률매입제는 미국의 PACE제도, 프랑스의 법정밀도상한제를 검토하여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용적률은행의 설립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용적률거래제 및 매입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용도지역제의 개선방안을 용도 및 밀도 규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였다.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개발손실보상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개발이익과 개발손실을 합리적으로 산정해내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개발이익산정 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용적률가치 분석모형을 작성하고, 용적률가치 분석 및 용적률거래기준을 작성하였다. 또한 일선 행정에서 쉽게 용적률거래제와 매입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가치 산정방법의 단순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용적률이 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용적률 결정비율을 추출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용적률의 지가 기여율을 도출함으로써 어느 지역이든 지가자료만 있으면 용적률가치를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또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매입제의 모의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의 효과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분석한 용적률의 지가 기여율은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분석지역을 확대하여 지역유형별로 일반화된 용적률가치 산정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는 지역범위를 시군 행정구역 내로 한정하지 않고 광역시도 단위, 전국 단위로 거래제 시행대상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시군 간의 시장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리고 용적률거래제는 공공의 계획변경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준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제도 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를 조정하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아 있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194면, 국토연 2010-43

>> 新성장동력거점 해외사례 연구

Case Studies on Overseas Strategies Hubs for the New-Generation Growth Engines

김영표, 이동우, 이상준, 권영섭, 왕광익, 윤영모

세계는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의 흐름과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 및 그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 일어날 그러한 세계 경제의 격동과 에너지 분출 과정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수많은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것이다. 그 기회를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몰아오려는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 간 무한경쟁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환경 및 에너지기술(ET), 문화 및 콘텐츠기술(CT) 관련 산업과 이들의 융복합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원천기술과 기초응용과학이 융복합된 미래형 신기술과 관련된 산업을 新성장동력이라 한다. 또한 지구환경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와 자원·에너지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녹색성장이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교통, 산업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첨단산업과 녹색산업이 도시성장과 나아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온 新성장동력거점 중 대표적인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esearch Triangle Park)와 오스틴(Austin),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Sophia Antipolis), 독일의 드레스덴(Dresden)-라이프치히(Leipzig)-할레(Halle), 스웨덴의 함마르비

(Hammarby), 일본의 쓰쿠바(Tsukuba) 등지의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사례지역별로 지리적 위치와 입지잠재력, 초기 여건과 발전과정, 인구·토지이용·산업구조, 산업·대학·연구 기능의 연계혁신체제, 성공요인과 특징, 지역 경제 파급효과와 미래전략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얻은 공통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모여 있고 기업지원시설이 잘 갖추어지면 그 지역에서 창업이 활발해지고 외부의 우수한 대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 둘째, 지역 내 대학을 비롯하여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적극적인 협력과 상호 신뢰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셋째, 연구단지가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밀도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 환경 조성은 원활한 토지거래를 위해서는 연구단지의 토지이용규제와 토지거래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은 각종 제도적 장치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단지 내에서의 단순한 생산 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연구단지로서의 품위를 유지토록 하고 아울러 주변지역에는 산업시설이 입지토록 하여 연구단지와 주변지역이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기간: 2010. 3. 1~2010. 9. 30
서지사항: 152면, 국토연 2010-10

>> 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지원 방안 연구(II)

Policy Measures to Encourage Package Deals Overseas: Bundling Construction Industry with Oil, Gas, and Mineral Industry(II)

김성일, 윤하중, 김민철, 김영진 외

본 연구는 자원개발 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2년에 걸친 연구다. 1차 연구(2009년 수행)에서는 자원개발 유망시장, 해외건설 및 플랜트 시장 잠재력 분석을 통한 자원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유망국가를 도출하고, 자원연계 진출 영향요인 분석과 해외사례 검토, 자원연계 진출모형의 구축방향 등을 주로 제시하는 데 한정되었으며, 이번 연구는 자원연계 해외진출 모형의 구축과 적용, 국내 및 해외의 자원개발 연계진출 제도의 분석을 통해 자원연계 진출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목적을 두었다.

우선, 광물자원과 인프라연계사업, 석유탐사, 인프라연계사업으로 구분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국가위험과 법인세 부과에 따른 경제성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이어 국내의 해외자원개발 및 해외건설·플랜트 지원제도의 실태 평가와 해외자원 개발 및 플랜트 지원체제를 파악한 후 해외자원개발 연계진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원방안은 자원개발 연계진출 전략을 근간으로 하여, 연계진출사업 단계별로 진출지원방안 및 연계진출 역량의 강화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연계진출사업 단계별 진출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자원개발연계진출 기반조성)에서는 자원인프라 협력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 진출국과의 FTA 추진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진출잠재국과의 ODA 유무상 지원 등 국제개발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2단계(해외자원개발 연계사업의 발굴단계)에서는 해외자원 연계사업의 발굴은 중장기적·체계적·전략적으로 접근하고, 해외자원 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해외자원 연계

출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3단계(자원연계사업 타당성 조사단계)에서는 자원개발 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통합적 타당성 조사 지원」 체계 수립과 해외자원 연계개발조사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의 상향조정, 연계사업의 타당성 조사 지원 기반의 강화를 위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등을 제시하였다. 4단계(자원연계 프로젝트 금융구조 및 재원조달단계)에서는 자원개발 연계사업의 정치적 위험에 대응한 금융구조 설정, 연계사업 프로젝트 조직방식(SPC)에 따른 사업추진지원 방안, 투자재원조달, 금융 및 조세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연계진출 역량강화 방안은 범부처 차원의 자원개발연계 해외진출 지원체계의 마련, 민간부문의 자원-인프라 연계 선진업체의 육성, 자원개발 연계진출을 위한 금융 및 투자기반의 강화, 연계진출 단계별 정부공기업 및 민간사업자의 역할분담, 자원개발 연계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자원연계 해외진출 전략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및 공기업과 자원개발 및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총괄보고서 193면, 국토연 2010-48
협동연구보고서 245면, 국토연 2010-48-1

>>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A Study on Housing Policy for Disabled Household

강미나, 김진범, 이현지, 김태환, 김현진, 주현태, 서종균

5분 연구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주거욕구를 파악하고 현행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효과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거복지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회 구성원과 다른없는 생활,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욕구가 충족되는 '보편적(normal)인 인간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상화(normalization)의 관점에서 현재 정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책대상 선정기준과 정상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했다.

2009년 현재 장애인가구는 211만 가구로 전체 1,692만 가구(2009년 추계가구)의 12.5%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 중 정책대상이 되는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 4분위 이하)는 130~157만 가구로 추정되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최저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규모는 90~99만 가구이며, 이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면서 최저주거비 부담도 과다하여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16만 가구로 추정되었다.

권장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권장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규모는 119~141만 가구로 추정되었다. 이 중 권장주거기준에도 미달하고 권장주거비 부담도 과다한 가구는 60~66만 가구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을 설정하였다. 첫째, 정상화 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주거복지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주거욕구에 기반한 수요지향적 정책개발 및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주거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주거상황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평면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및 환경 제공과 함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 참여와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지역밀착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 연구는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의 현 주거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거복지정책을 살펴본 선도적인 연구로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주거복지요소를 파악해서 이를 기반으로 주거정책 프로그램 배분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법안에서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배분비율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35면, 국토연 2010-45

>>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Residential Stability and Owned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Household

이수욱, 권수연, 김태환, 이현지, 최수 외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확충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주요 지원 프로그램별로 검토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책연구기관과 대학교 수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사연 협동과제로 추진된 이 연구는 주거실태 조사, 한국복지패널, 전문가 심층면담조사(FGI) 등 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한 계량적·실증적 연구로 분석결과와 객관성을 제고했다. 또한 선진국의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내 집 마련 정책에 대한 사례 조사로 정책 프로그램의 현실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가계소득 및 총자산 기준으로 4분위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자료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지역에 한정하였다.

이 연구는 모두 7개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과 3장에서는 이론과 방법론, 서민주거실태 등을 살펴보고, 그 근거로 문헌연구와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협동연구를 활용하였다. 제4장과 5장에서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계약요인, 주요 선진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및 자가소유 촉진 정책, 그리고 6장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정책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담고 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론 및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혜계층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

고, 중복적 수혜나 수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임대주택 재고 목표율과 저소득층의 자가보유 목표율을 2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기본방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부분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 대상의 축소,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일원화 혹은 연계성 강화, 회생형 프로그램 제공, 삶의 질 향상 지원 프로그램 제공, 지역별·소득분위별 지원 프로그램 특화, 민간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한 이용권 확보를 통한 임차지원 확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촉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촉진정책을 주택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패키지형 정책 개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택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낮게 책정, 주택보유비용에 대한 지원정책과 기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방안은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의 다양화와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총괄보고서 212면, 국토연 2010-46
세부과제보고서 174면, 국토연 2010-46-1

>> 주거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s for Establishing the Housing Safety Net

천현숙, 배순석, 강미나, 손학기, 이현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건설·공급뿐만 아니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주거안전망의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각 요소별 실태와 소요를 파악하여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안전망에 대한 조작성 정의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주거실태를 주거안전망 틀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별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의 실태자료 및 주민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주거안전망 실증분석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였다. 또한 임대유형별, 가구특성별 주거안전망 수준 분석을 통해 주거안전망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조절이 가능한 방식을 검토하여 주거만족도 및 주거안전망 구축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주거안전망, 삶의 질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고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주거안전망 개념, 구성요소, 구축효과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는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 등이 수행한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유형별 부대복리시설, 편의시설, 자족성 관련 시설 설치실태, 복지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은 별도의 조사단지를 선정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기 공급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공공주택의 기능을 제고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수준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공급중심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을 관리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임대유형별, 가구특성별 주거수준을 주거안전망 구성요소별로 살펴보고 소요와의 차이를 분석하여 어떤 요소를 강화하면 주거안전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임대유형별, 가구특성별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특기할 만한 점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기존 공공임대주택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주거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거지원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 등 주거안전망의 여러 요소가 포괄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산 축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주거이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거만족도와 거주자 임대주택단지의 주거적합도를 제고하도록 한다면 동일한 임대주택 제도수준에서도 더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도 주거안전망에 대한 소요를 감안하여 단지별로 특성화를 시도해 본다면 효과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191면, 국토연 2010-44

>> 프랑스의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제도 연구

Urban Planning and Land Use Systems in France

김영태, 정희남, 김선지

본 연구는 좁은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국토의 규모는 다르지만 정책 환경이 우리와 유사한 프랑스의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제도를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과정에 유용한 정보를 축적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현재 프랑스 내에서 출간된 도시계획(urbanisme) 관련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요 내용과 논리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것이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프랑스 사례가 우리에게 유용한 이유, 연구의 기본 내용 및 흐름을 보여준다. 제2장은 프랑스 국토공간활용제도의 발전과정을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현재의 제도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현행 제도의 기본원칙과 적용영역 등은 어떠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은 이해관계자를 검토하였다.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려면 이해당사자가 누구이며 그들이 지닌 권한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제4장과 제5장은 기본적인 계획체계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계획체계와 이를 보완하는 중앙집권형 계획체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6장은 집행실무 차원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토지확보 방안을 다루고 있다. 사유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토지수용, 선매권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시정비수단을 살펴보았다. 제8장은 공통적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며, 제9장은 건축,

정비, 철거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에 관한 사항이다. 제10장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제11장에서는 위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행정통제 문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12장은 결론으로서 프랑스 사례의 특징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발견사항을 종합하면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지방분권형 계획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일 경우 이들 간의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 구성 등을 독려한다. 또한 공간활용제도를 물리적 공간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으로 보지 않고 사회정책적 목적도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계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기간: 2010. 9. 1~2010. 11. 30
서지사항: 111면, 국토연 2010-1

04

c h a p t e r II

국토인프라 · GIS연구본부

▪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70
▪ 고속대중교통체계 중심의 도시권 공간구조 형성 방안	71
▪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과 파급효과 분석 연구	72
▪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공간 활용도 제고 방안 : 지방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73
▪ 교통관련 법정계획의 체계분석에 관한 연구	74
▪ 국가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교통수단 연계운송체계 구축방안 연구	75
▪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I)	76
▪ 스마트 인프라 투자 평가 방법론: 스마트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77
▪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 방안 : 수도권 가구통행 및 주거입지 분석을 중심으로	78
▪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II)	79
▪ GIS 기반 국가기간교통망 통합계획기법 적용 연구	80

>>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Policy of Spatial Data Utilization for Planned Territorial Management

조준만, 정문섭, 박종택

본 연구는 국토공간의 '계획수립'과 '이용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이용 관련 제도적 수단의 실제 적용에 있어 공간정보의 이용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국가GIS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공간분석과 모델링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GIS 전문가와 관련 기관이 필요하며,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방법보다는 지방정부의 계획 관련 공간데이터 구축 및 제공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공간정보 데이터 취득과정에서의 기관별 연계가 어려우며, 그 외에도 상이한 데이터 표준, 공간정보와 속성정보의 불일치 문제 등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다양성을 반영한 부처 간 협력·연계가 가능한 공간정보 거버넌스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이용개선의 기본방향으로서 공간계획·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그리고 국토 첨단화에 의한 공간정보 수요증대 등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의 필요불가결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부 개선방안 제시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단·중·장기에 걸친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도시계획을 위한 공간정보 이용개선,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수요대응, 국토·도시서비스 첨단화를 위한 공간정보 수요대응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세부 개선방안은 공간계획과

국가GIS 간 연계성 강화, 공간계획·관리를 위한 국가GIS 포털 재정비, 공간계획·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공개 활성화 그리고 공간계획·관리를 위한 국가GIS 이용가이드 다변화 등을 포괄한다.

여기서는 기존의 공간정보 공급자 관점의 국가GIS 사업에 의한 공간정보 제공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실제 공간정보 이용자의 시각에서 그 이용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국가GIS의 가장 주요한 활용처로서 공간계획·관리에 요구되는 공간정보 이용실태 조사는 국내 최초 사례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국토공간의 '공간정보기반'에 기초한 선계획-후개발 기초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계획적 국토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 가능한 틀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토 공간정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새롭게 체계화하여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토조사, 기초조사 등 공간정보 활용 관련 법규정 정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적성평가 DB 등 기존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의 정비방향 제시 등을 통해 국토 공간정보정책 수립의 방향성 제시에 일조할 수 있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27면, 국토연 2010-52

>> 고속대중교통체계 중심의 도시권 공간구조 형성 방안

A Study on Rapid Transit Oriented Spatial Structure of City Regions

정진규, 조남건, 윤하중, 김종학

선진국들은 글로벌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국 내 지역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있으며, 선도거점으로 도시권을 육성 중이다. 또한 도시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권역 내 도시 간 연계성(Connectivity) 개선이 강조되고 있다. 연계성 제고를 위하여 교통인프라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거점도시들 간을 연결하는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계성 강화를 위한 고속대중교통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며, 토지이용 및 교통이 연계된 연계성 강화를 위한 도시권 공간구조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권 및 연계성 개념에 관한 사전적 정의 및 도시학적 해석을 검토했으며 연계성 관련 도시·지역 네트워크(urban & regional network) 이론, 메가시티(megacity) 이론 등을 살펴보았다. 연계성 측정을 위한 지표는 통행 및 교통과 관련된 지표(중심도시로의 통근자 비율, 통행시간, 직업의존율 등)를 활용한다. 공동연구 및 문헌검토를 통하여 해외 도시권 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고속대중교통(광역급행전철) 도입효과 분석을 위하여 사례권역을 선정하고 통행분포, 생활권 및 교통수단 선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광역급행전철 도입 후 통근통행량이 증가하였으며, 부산에서 주변 거점도시로의 통근통행량이 역방향보다 더 증가하였다. 생활권 변화의 분석에서 광역급행전철 도입 후 부전역을 중심으로 울산, 창원, 마산시 대부분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수단선택 변화 관련, 사례지역에서는 승용차와 광역급행철도 간 교차탄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시회랑 및 지역 전체로 TOD 개념을 확장하는 이론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해외사례에서도 교통과 토지이용 간 연계를 강조하면서 대중교통축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연계성 개선을 위한 도시권의 공간구조 형성을 기본방향으로 핵심도시들의 광역역세권 중심의 다핵분산형(polycentric) 도시권 공간구조와 연계대중교통회랑 중심의 선형(linear) 도시권 공간구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도시권 논의 관련 연계성 개념의 보완, 토지이용 및 교통이 연계된 방안을 제시, 그리고 구체적인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국내 적용가능성을 제시한 점이다. 정책적 활용방안으로는 스마트 성장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역세권 개발 제도의 개선 등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연계성과 경쟁력 지표 간의 연관성 검증, 도로 및 BRT 등 다양한 광역고속교통수단과의 비교 분석 등이 필요하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121면, 국토연 2010-39

>>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과 파급효과 분석 연구

A Study on Value Chain and Dynamic Effects of 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최병남, 이영주, 강혜경

이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 융복합(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을 촉진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과 정보 가치사슬(information value chain) 이론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융복합의 구조와 작동 메커니즘을 정립한다. 둘째, 그 속에서 융복합 요소들이 주고받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기반으로 공간정보 융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간정보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국가(government), 기업(business), 국민(citizen) 등이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활용·유통하는 과정에서 공간정보 가치를 창출하는 추상적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수행을 위해 공간정보를 융복합하는 국가,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융복합 현상을 심층면담조사 했다.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대상기관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구조화 및 도식화하여 각 기관의 공간정보 가치사슬지도(geo-spatial information value chain map)를 작성했다.

공간정보 융복합 메커니즘은 가치 창출 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순환체제다. 이와 같은 융복합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기법으로 융복합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또한 공간정보 융복합의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 기법을 이용했다.

본 연구는 비즈니스모델과 정보가치사슬 개념을 확

장해 공간정보 융복합의 구조와 작동 메커니즘으로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geospatial information value network)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의미가 있다. 첫째, 공간정보 융복합으로 가치가 창출되는 추상적 영역을 정의했다. 둘째, 공간정보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의 구조 및 작동 메커니즘을 정립했다. 셋째, 공간정보 연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공간정보 융복합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의미가 있다. 첫째, 공간정보정책의 대상영역으로 공간정보 가치가 창출되는 추상적 영역을 정립했다. 둘째, 공간정보정책의 내용과 개입 지점, 방법 등을 가치네트워크의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제시했다. 셋째, 공간정보 융복합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기존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기존의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the master plan of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은 정보화 사업(information projects)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다. 최근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이에 따른 사회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공간정보 가치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존의 계획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공간정보 정책을 되짚어보고 선진 미래를 설계하는 가이드로 공간정보정책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기간: 2010. 7. 19~2010. 10. 19
서지사항: 178면, 국토연 2010-41

>>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공간 활용도 제고 방안 : 지방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Diagnosis and Utilization of Spatial Structure to Promote the Competitiveness of Mega-Economic Regions

임은선, 이원섭, 이미영, 이경주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경제권의 인구, 토지이용, 교통망, 산업의 공간분포 패턴으로부터 광역적 차원에서 공간구조를 진단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간구조의 측정은 각종 인문·사회정보를 공간정보와 통합하고 GIS를 이용하여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4개 권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광역경제권별 도시체계는 도시군의 종주성, 연담화 잠재력을 분석하였고,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통근권과 생활권의 형성 특징을 살펴보았다. 토지이용의 압축과 확산패턴은 지니의 집중도 비율, 타일지수, 상대 엔트로피, 모란지수, 평균편차 거리를 측정하고 그 값을 표준화한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시계열적인 토지이용 변화패턴을 분석하여 토지이용의 확산과 생태환경의 파편화 등을 확인하였다. 광역경제권의 산업입지구조는 동종산업 및 연계성이 높은 이중산업들이 특정 지역에 집적하여 입지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집적 변수가 생산성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권역별로 선도산업으로 지정된 산업입지구조를 분석하여 생산성이 높아질 잠재력을 도출하였다. 또한 광역경제권의 교통망 현황과 구조를 분석하여 SOC 선도사업 계획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통행수요에 비해 용량이 부족한 구간에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도출한 광역경제권의 공간

활용도 제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체계 효율화를 통한 공간 활용도 제고방안은 ① 광역경제권의 도시체계를 반영한 도시권 및 생활권 육성 추진, ② 신규 거점도시 개발의 체계적 추진 및 거점도시 간 연계전략의 병행, ③ 기존 거점도시의 재생을 통한 경쟁력 제고, ④ 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 및 도시-농촌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산업입지 효율화를 통한 공간 활용도 제고방안은 ① 선도산업 육성의 지역산업 파급효과 극대화, ② 선도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전략산업·자연산업과의 공간연계 강화, ③ 기존 도시 및 신규개발 거점도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교통네트워크 효율화를 통한 공간 활용도 제고방안은 ① 선도SOC 연계교통망 구축, ② 거점도시 및 신성장벨트 연결교통망 확충, ③ 광역경제권 중심도시권의 광역철도망 구축 및 KTX 역세권 개발이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한 공간 활용도 제고방안은 ① 대도시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관리모델 구축, ② 토지 절약적 도시 및 지역개발 활성화, ③ 노후 도심 및 산업 단지의 재생사업 활성화다. 연구의 범위와 한계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내용은 향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187면, 국토연 2010-25

>> 교통관련 법정계획의 체계분석에 관한 연구

Analysis for Legal System of Transportation Planning

이영인, 김종학, 장현호, 박찬운

교통관련 법(이하 교통법)은 시대적 필요성과 특정 사안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통법은 체계적이지 않은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계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우 대부분 하위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특정한 수식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토론을 통해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50여 년간 제정되고 수립되어온 광범위한 교통법과 교통계획을 사회적 여건변화와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교통 법정계획의 위계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계획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교통관련 법정계획 중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다 포함한 계획은 총 75개이며 이 중 사업계획을 제외하면 61개 계획이 있다. 하지만 시행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은 법정계획에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동반적으로 수립된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36개 계획을 검토하였다. 관련 법의 계획들을 살펴보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대중교통육성법 등 종합계획성격의 계획 수는 많은 반면, SOC 건설법, 도로법, 도시철도법 등은 단일계획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교통법은 교통수단별로 구분된 개별법 위주의 법률 체계를 갖고 있어 주관부서가 상이하고, 계획 추진의 일관성과 계획 간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교통관련 법정계획의 개선방향을 합리성, 정합성, 현실성 측면에서 각 세부적인 방향

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합리성 측면에서는 교통계획 기본이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통계획 정의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정합성 향상을 위해서는 계획의 공간적 위계 구분, 계획 수립주기의 일치, 계획 간 위계 정립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실성 제고 측면에서는 계획지침의 개발, Binding 방식의 환류체계 도입, 계획의 성과지표 개발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단기적 정책 제언으로는 교통계획을 포괄할 수 있게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 안에 교통계획의 기본이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교통계획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교통관련 법정계획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교통계획 수립 시 교통계획이 지향해야 할 목표인 교통기본권 실현, 교통의 효율성 실현, 교통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 첨단교통의 실현, 친환경적 교통의 실현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중복되고 유사한 교통계획들의 경우에는 법률을 통합하여야 계획 수립에 혼란을 겪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제정된 후 시간이 많이 흐른 특별법의 경우에는 현재의 세계적 추세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이 법률을 제정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연구기간: 2010. 4. 1~2010. 6. 30
 서지사항: 137면, 국토연 2010-13

>> 국가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교통수단 연계운송체계 구축방안 연구

Development of Integrated Transport System for the Enhancement of National Logistics Competitiveness

이미영, 임영태, 류재영

세계의 기후 및 에너지 위기는 우리나라의 교통물류 환경이 인터모달리즘(Intermodalism) 체계의 구축을 통한 교통수단 간 효율적 연계를 추진하는 복합운송체계 운영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물류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국내의 효율적인 복합교통수단 연계운송체계(이하 '복합운송' 이하 함)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내용적으로는 복합운송의 개념 정립, 국내 복합운송체계 현황 및 문제점과 국내의 복합운송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였다. 복합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로-철도 수단전환(Modal Shift), 물류거점연계, 도로-철도 운영관리로 구분하고 환경, 비용, 시간 측면에서 각각에 대한 중요도를 전문가 조사를 통해 규명하였다. 네트워크 기반의 복합운송모형을 통해 조사된 영향요인과 저탄소 절감을 위한 환경요인의 결합으로 평가 시나리오를 설정·분석하여 복합운송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부축의 도로-철도의 지간선 물류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생산지-소비지 물동량을 분석기반의 목표로 하는 확률적 네트워크 분석모형(Stochastic Network Analysis Modeling)을 구축하였다. 또한 현재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화물통행기반 기중점 조사 자료를 기초데이터로 국가의 도로-철도의 통합네트워크를 분석하는 확정적 네트워크 모형체계(Deterministic Network Analysis Modeling)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을 살펴보면 기존 연구는 ① 도로 또는 철도의 단일수송에 대한 수단분담구조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또한 ② 교통수단 연계성 측면은 물류결절점에 대한 평가, 화물운송수단선택모형의 정립, 업종과 고용기반 복합운송의 행태 등에 대하여 선히도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정책분석은 복합운송에서의 주요 영향요소인 환적 효과, 운영스케줄 효과 등 연계 측면의 분석적 한계가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단일의 기중점과 단일운송수단에 대한 정책효과에 국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① 도로-철도가 통합적으로 구축된 교통물류망(Integrated Freight Network)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수단 간에 발생하는 수단의 운영 스케줄, 지-간선 연계체계, 수단 간의 경쟁 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기존의 개별 운송수단별 수요의 국가물류체계 분석을 지양하고 ② 환적을 통해 복수의 수단이 연계되어 운송되는 생산지-소비지 연계모형체계(Production & Consumption Demand Modeling)를 구축하여 대안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③ 세계 최초의 물류복합운송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분석도구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크게 차별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156면, 국토연 2010-42

>>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I)

Establishing the Simulation Model for National Territorial Policy(I)

안흥기, 유재윤, 임은선, 김대중, 이경주 외

본 연구는 국토정책에 따른 거시경제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체계로서의 통합적 시뮬레이션 모형(가칭 KRIHS-SIM)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이 3단계 연구로 추진하고자 한다.

1단계 연구(2010)에서는 모형의 틀을 구축하고, 기본적 상시모형체계를 개발한다. 2단계 연구(2011)에서는 하부모형 개발과 더불어 시뮬레이션 분야를 확장하며, 시뮬레이터를 개발한다. 마지막 3단계 연구(2012)에서는 모형을 통합하고 검증하며, DB 및 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KRIHS-SIM)의 체계는 도시 내의 마이크로 동태시뮬레이션 체계로 이루어진 어반뎀(Urban-Sim) 모형을 내생부문으로 하고, 국토공간 전체의 경제적 파급, 인구이동 등 시·군·구 간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외생부문으로 하여, 상호 연계하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즉, 특정 공간에 시행되는 국토정책의 효과가 시·군·구 간 생산, 고용, 인구 등 거시경제 측면의 지역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국토정책이 시행되는 해당지역의 주거, 교통, 환경, 부동산, 토지이용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마이크로한 분석단위의 변화와 연계하여 예측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KRIHS-SIM) 시스템은 향후에도 다양한 모형을 통합연계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 다양한 S/W 자원을 엮을 수 있는 개방적 산환경(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데이터베이스도 유연한 공간단위로, 가구/기업단위, 시·군·구 단

위, 시도 단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동시에 갱신 등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1단계 연구에서 개발된 생산 측면에서의 지역 간 산업연관 모형, 인구이동 모형, 산업입지 모형 등을 이용한 정책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최근에 계획 및 실시되고 있는 주요 국토정책의 하나인 신도시 건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인구이동 효과 시뮬레이션, 산업단지 건설의 인구이동효과 시뮬레이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기업입지 패턴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그러나 1단계 연구에서 개발된 지역 간 산업연관 모형, 인구이동 모형, 산업입지 모형 등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 다양한 국토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의 시범 모형이기 때문에 수정·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2단계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연관 모형의 제약을 완화하여 동태모형으로 개발하고, 인구모형도보다 설명력이 높은 모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입지모형의 경우에도 산업입지 요인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이전요인을 포함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설명력이 높은 모형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96면, 국토연 2010-22

>> 스마트 인프라 투자 평가 방법론: 스마트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The Appraisal of Smart-infrastructure Investments: Focusing on Smart-Transport Infrastructure

오성호, 김호정, 김준기

본 연구는 스마트 교통인프라를 통해 제공될 서비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러한 스마트 서비스의 효과 평가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교통인프라 투자평가 체계를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갱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 교통서비스의 대부분은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며, 더 나아가 부가적으로 관리성, 쾌적성, 정보성, 안전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성 향상과 안전성 중 사고감소로 인한 지·정체 감소효과 향상이라는 편익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을 수행하였다.

첫째, 정보가치의 추정은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용하였다. 설문과 모형 분석을 통해 스마트 도로에서 제공하는 양방향 교통정보서비스에 대한 WTP(Willing To Pay)는 8.0원/km로 추정되었다. 이는 오성호 외(2009)에서 추정한 단방향교통정보가치의 약 3배에 해당되는 가치다. 이용목적이 업무통행인 경우 스마트 도로의 양방향 교통정보서비스에 대한 WTP는 9.12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사고 감소로 인한 지·정체 감소 효과추정을 위해 차량이 겪는 평균 지체도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따른 모의실험을 통해 지체를 구한 뒤 이를 회귀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모의실험의 기초자료는 3년간 고속도로 사고 D/B를 바탕으로 각 사고 형태 및 항목별로 도로 차단 시간을 분석하였다. 모형 분석 결과 지체를 결합한 차량의 평균지체도는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Y &= \text{사고 시 차량의 평균 정체(초/차량)} \\
 &= \text{용량감소율}(0.0\sim 1.0), \\
 &= \text{교통량/도로용량}(0.0\sim 1.0), \\
 &= \text{사고지속시간(분)}
 \end{aligned}$$

셋째, 추정된 정보가치와 차량당 평균지체도를 기반으로 보완된 투자평가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존 투자평가법과 비교분석하였다.

인간생명존중과 시간집약적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는 이런 정책들의 효과를 현 투자평가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들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물을 근간으로 투자평가법에 관한 연구투자가 더 많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효과를 유도하는 시설물 건설을 현실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114면, 국토연 2010-31

>>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 방안: 수도권 가구통행 및 주거입지 분석을 중심으로

The Enhancement of Linkage between Housing and Transportation Policy: Focusing on Residential Location and Household Trip Pattern in Seoul Metropolitan Area

정일호, 강미나, 이백진, 김혜란, 서민호

본 연구는 가구통행행태와 주거입지 선택 간 상호영향 요소는 무엇인지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여, 주택 및 교통시설의 공급 및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연계성 강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광역화 진전에 따른 직주분리 심화, 시장의존적 주택·교통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는 가구특성별 통행행태가 주택공급정책에 반영되는 주택·교통정책 연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본 연구의 수도권 가구통행실태 변화분석에 따르면, 직주근형이 증가하면 통근 자족률이 증가하여 장거리 통행 및 자동차 수단 의존 감소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정시성이 유지되는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등) 의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급행버스차로(BRT) 등 대중교통시설 공급은 소득 계층별 통행목적지 분포를 고려하지 않을 때 효과가 크게 반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수도권 501개 가구에 대한 주거입지 선택 관련 선호의식(SP)조사 분석결과, 주거입지에 따른 교통접근성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대중교통과 자가용 접근성이 양호한 주거입지에 거주하였다. 교통이동성 측면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버스 이용과 환승횟수가 많았고 이동시간이 길었으며, 주택가격에 대한 지불 가능성 관련 한계 주택가격의 경우 저소득층의 약 50%가 주택가격이 약 2억 4천만 원일 때, 약 80%가 약 3억 5천만 원일 때 주택구입 의사가 없었다. 한계 통근시간에 대한 분석결과 전·월세 거주 저

소득층은 통근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주택구입 의사가 크게 떨어져 통근시간이 짧은 거주입지를 선호하였다. 가구 생애주기별로는 노년부와 젊은 부부의 한계 통근시간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고, 젊은 부부 → 중·장년부부 → 노년부부의 순으로 → 외곽 → 도심으로 주거 선호입지가 변화됨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저소득층을 위해 직주 접근성이 높고 주택가격이 합리적인 주거를 정시성 높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최대 통근시간은 60분 이내(전·월세 거주 저소득층은 최소 45분)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안정되고 부담가능한 주거공간을 지하철·전철 등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집중 공급해야 하며, 연령층 혼합(Age Mix) 개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책추진은 통합 도시계획 수립·심의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생활권과 직주 간 통행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주택청약제도 개선과 자족생활권 형성을 위해 근린형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39면, 국토연 2010-18

>>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II)

Study on the Realization Strategies of New Digital Convergence Space(II)

정문섭, 조춘만, 김계욱, 최재성

최근 정적인(Static) 국토 공간 활용에서 동적인(Dynamic)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 곳곳에서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미래 지능형 첨단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유비쿼터스 도시는 매우 이상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기술개발의 난해성 등 그 실현 가능성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구현 가능한 소규모 유비쿼터스 공간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계획 단위 유비쿼터스 공간을 구체화하여, '디지털통합공간'이라는 실수요 기반의 체감형 유비쿼터스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1년 현재 3차연도 연구를 진행 중이며, 1차연도에는 '디지털통합공간'의 개념 정의, 2차연도 연구에서는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각종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하여 적용 가능한 공간서비스 모델을 구상하였고, 이 서비스 모델을 실제 스마트폰 단말 환경 기반에서 실험·구축하였다.

디지털통합공간(Digital Convergence Space: DSC)은 유비쿼터스 공간 구현에 요구되는 IT 기술 중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실현이 가능한 '계획단위 유비쿼터스 공간'을 의미한다. 디지털통합공간은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논의되던 유비쿼터스 공간을 지향하나, 현실적인 기술수준 및 환경을 고려하는 개념이다. 디지털통합공간은 현실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하므로, 이상적으로 모든 공간에 서비스가 가능한 'Every-ware'가 아닌 특정 소규모공간에 집

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There-ware'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공간의 국소적 개념이 되는 디지털통합공간은 일단 해당 공간에 국한된 서비스를 지향한다. 하지만 디지털통합공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비쿼터스 공간이므로, 일종의 모듈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목인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에서 '차세대'는 현재부터 약 10년 후 정도라는 시간적 범위를 가지며, 디지털통합공간은 각종 IT기술과 공간정보(GIS)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 공간을 의미하는 조작적 정의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균형 있는 공진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의 구현요소는 정보/콘텐츠, 통신망, 기기, 서비스 계획/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디지털통합공간(II) 실험구축사업은 1차연도의 연구를 승계하여 통신환경, 단말기 등의 기술적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중화된 기술의 도입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실험사업 서비스모델은 하나의 관심공간으로 안양시 예술공원을 선정하였으며, 안양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구현을 시도하였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233면, 국토연 2010-47

04

>> GIS 기반 국가기간교통망 통합계획기법 적용 연구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Transportation Planning Model, KRIHS-TAL based on GIS Platform

이상건, 김대중, 고용석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맞아 이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패러다임은 과거 효율성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속 가능성, 수단 간 균형성과 연계성(Intermodality), 그리고 통합성을 중시하는 추세다. 이러한 계획 기조의 변화를 감안했을 때, 무엇보다도 기존의 도로, 철도 등 개별 수단별로 수립되어오던 교통인프라 구축 계획을 화학적으로 통합할 수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통정책목표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과학적 계획 수단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 연구는 최근 개발한 KOPSS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계획 모듈의 개발을 통해 통합적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각종 국토 교통인프라 계획 대안의 다양한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여 국토교통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첨단GIS 기술기반 교통계획 지원체계인 KRIHS-TAL모형을 개발하였다. 즉, 투명성, 통합성, 실험성, 다재다능성, 신뢰성 등을 기본 개발방향으로 설정하고 세 단계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 1단계로서 모형의 기본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교통수단 선택과 노선배정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다수단 변동수요 통행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일반 시뮬레이션 분석은 KRIHS-TAL 1단계 모형의 세 가지 모듈, 즉 모니터링(Monitoring), 애널리징(Analysing), 시뮬레이팅(Simulating)의 각 평가항목에 대해 KOPSS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각 결과가 의미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해석하여 KRIHS-TAL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진단해 보았다. 종합시나리오 분석은 KRIHS-TAL 1단계 모형이 가지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의 장단점 분석이 가능함을 시도한 것으로 국가기간교통망의 녹색성장성 분석과 토지이용계획과의 통합시나리오 분석 등에 적용해 보았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3단계 로드맵이 완성되면, GIS 분석틀을 활용한 국가적 차원의 거시교통계획 수립과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교통인프라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해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국가 교통인프라의 통합구축방향을 제시하며, 교통수요 예측모형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향후 u-국토 환경을 대비한 수요예측모형 개발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연구기간: 2010. 1. 1~2010. 12. 31
서지사항: 120면, 국토연 2010-17

05

c h a p t e r II

색인

▪ 과제명 색인	82
▪ 연구자명 색인	84

과제명 색인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연구	47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II)	61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	18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	25
건설경기 진단 및 전망체계의 구축	50	스마트 인프라 투자 평가 방법론: 스마트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77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70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시설기준 보완연구: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38
고속대중교통체계 중심의 도시권 공간구조 형성 방안	71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	39
공간계획의 정책계획기능 제고에 관한 연구	30	임대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연구	26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과 파급효과 분석 연구	72	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지원 방안 연구(II)	63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체계에 관한 연구	51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64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공간 활용도 제고 방안: 지방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73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65
교통관련 법정계획의 체계분석에 관한 연구	74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	40
국가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교통수단 연계운송체계 구축방안 연구	75	전략적 거점 낙후지역 발전방안 연구	27
국제회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 유치 타당성 분석	31	주거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66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 갈등행위자 인식분석과 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19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 방안: 수도권 가구통행 및 주거입지 분석을 중심으로	78
국토 대예측 연구(II)	20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8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I)	76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II)	79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I)	21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41
글로벌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	52	프랑스의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제도 연구	67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II): 지역특성별 실천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방안	32	한국도시정책의 현황과 과제	42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I)	33	한국 신도시 개발의 파트너십 연구	43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안	22	한국의 도시화 과정과 정부 정책에 관한 연구	44
농어촌지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어촌뉴타운사업 발전방안	53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I)	45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I): 지역중심형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	34	혁신적인 녹색도시: 시애틀 사례	46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방안 연구	35	新성장동력거점 해외사례 연구	62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농지관리정책의 발전방향	54	GIS 기반 국가기간교통망 통합계획기법 적용 연구	80
미국의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비영리주택조직의 역할을 중심으로	55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II): ODA 활용 극대화를 통한 시장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23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능동적 주거지원 발전방안: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실태 및 수요조사와 일자리창출 연계방안	56		
부동산산업의 발전방향과 향후과제	57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III): 부동산시장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K-REMAP의 정책적 이용 증진 방안	58		
베트남 국토이용정책 개선방안 연구	36		
비수도권 인구정체형 도시의 주거문제와 정책방안	59		
산업단지 입주가능 서비스업 조정 방안 연구	24		
산출기·물출기를 고려한 산지구분 및 합리적 관리방향 연구	60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 공간구조 개편 연구	37		

연구자명 색인

강미나	64, 66, 78	김태환	28, 64, 65	신혜란	43	임지영	20
강미영	51	김학열	33	심우배	33, 47	장은교	19, 39
강민규	18, 21	김현식	18, 21, 25, 36	안영아	61	장철순	26
강혜경	72	김현진	64	안흥기	50, 76	장현호	74
강호제	22	김혜란	78	양진홍	45	전성제	55, 57, 58
고용석	44, 80	김혜승	55	양하백	22	정문섭	70, 79
구정은	21	김호정	77	오선영	38	정석희	40
구형수	61	노경식	32	오성호	77	정소양	31, 34
권대환	23	류승한	22	왕광익	32, 62	정윤희	34, 41, 42
권수연	65	류재영	75	유재윤	76	정일호	78
권영섭	62	민경주	32	유현지	57, 58	정진규	71
김걸	33	박경현	19, 30, 39	윤영모	25, 62	정희남	51, 60, 67
김계옥	79	박고운	20	윤하중	63, 71	조남건	71
김광익	25	박근현	30, 41, 44	이경주	73, 76	조진철	23
김대종	44, 76, 80	박세훈	34, 35, 43	이동근	60	조춘만	70, 79
김동주	21, 27	박은관	36, 39	이동수	27	주현태	64
김명수	40	박재길	30, 44	이동우	25, 62	지대식	57, 58
김미영	51	박정은	32, 40	이문원	32	지승희	33
김민철	50, 59, 63	박정호	20	이미영	73, 75	차미숙	28
김범진	41	박종택	70	이백진	78	차정우	32
김상조	35, 40	박찬운	74	이상건	80	채미옥	61
김선지	67	박천규	58	이상준	62	천현숙	56, 59, 66
김선희	20, 37, 45	박형서	19	이수옥	57, 58, 65	최미선	45
김성일	23, 50, 63	배순석	59, 66	이순자	19	최병남	52, 72
김승종	53, 58	백경진	45	이승복	18	최상옥	55
김영진	63	변세일	20	이영아	41, 42	최수	23, 60, 65
김영태	67	서민호	78	이영인	74	최영국	32
김영표	52, 62	서순탁	36	이영주	72	최윤경	52
김은란	31, 34, 38, 44	서연미	22, 24, 25	이왕건	46	최인혜	21
김은정	18	서종균	64	이용우	20, 45	최재성	79
김일석	23	서창완	60	이원섭	47, 73	최정임	58
김재호	53	서태성	32	이종화	23, 27	최혁재	53, 54
김재환	58	소진광	37	이지원	20	하수정	59
김종원	47	손동글	28	이진희	35, 41	한선희	52
김중학	71, 74	손상락	27	이춘용	25	황관석	58
김준기	77	손정원	43	이현지	58, 64, 65, 66	Christin Bae	46
김진범	39, 64	손학기	60, 66	임영태	75	Max Stephenson	55
김창현	28, 53	신예지	20	임은선	73, 76		



국제협력사업

1. 국제학술교류	88
2. 국제연수프로그램	99
3. 해외기관과 MOU 체결 및 교류협력	103

1. 국제학술교류

국토연구원은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국토관련 연구 및 정책 홍보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기구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각국의 교수, 연구기관,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토관련 선진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토연구원은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 제14차 GIS국제세미나: 스마트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

The 14th International Seminar on GIS "GI Application Strategies for Realizing SMART KOREA"

- 일시 : 2010. 9. 1
- 장소 : 일산 KINTEX
- 참석자
 - 한국 최병남(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형(경원대학교 교수), Tony Lee(Saltlux 대표), 이태영(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
 - 호주 Alan Smart(ACIL Tasman 수석컨설턴트)
 - 독일 Wolfgang Niemeier(Braunschweig기술대학교 교수)
 - 캐나다 Ron Lake(캐나다 Galdos 대표)
 - 미국 Milo Robinson(FGDC 프레임워크 · 협력 코디네이터)

■ 발표내용

1. 공간정보의 가치와 향후 방향: Alan Smart(ACIL Tasman 수석컨설턴트)
2. 지리정보 융복합 가치사슬과 국가정책적 함의: 최병남(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한국 지적정보의 통일성과 조화를 위한 현대적 개념과 알고리즘: Wolfgang Niemeier(Braunschweig 기술대학교 교수)
4. 재해 위험 정보 제공을 위한 상호운용 플랫폼의 개발과 활용: 이태영(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
5. 스마트 코리아를 위한 건설, 관리, 3차원 도시모델의 공유: Ron Lake(캐나다 Galdos 대표)
6. GeoWeb을 위한 시맨틱 검색과 데이터 상호운용: Tony Lee(Saltlux 대표)



■ 개최목적

본 국제세미나는 지속적인 정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 활용정책, 즉 "스마트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의 모색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주요 내용

Session I에서는 호주 ACIL Tasman의 수석컨설턴트인 Alan Smart와 국토연구원 최병남 선임연구위원이 "공간정보의 가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Alan Smart 수석컨설턴트는 "공간정보의 가치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공간정보의 이용이 각 산업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와 공간정보의 활용 가능성 및 향후 활용 방향에 관한 뉴질랜드와 호주의 연구사례를 소개하였다. 최병남 선임연구위원은 "지리정보 융복합 가치사슬과 국가정책적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융복합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정보 시장에서 선택할 정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기초로 공간정보 가치사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를 제시하였다.

Session II에서는 독일 Braunschweig기술대학교 교수인 Wolfgang Niemeier와 이태영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이 "공간정보의 스마트활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Wolfgang Niemeier 교수는 "한국 지적정보의 통일성과 조화를 위한 현대적 개념과 알고리즘"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통일성이 부족한 다양한 한국의 지적 정보에 일원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일성을 갖춘 데이터 세트, 국제좌표계의 도입, 완벽한 데이터 세트 간의 결합, 정확도와 정밀도를 갖춘 지적 정보, 정보 간 유기적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포함한 한국 통합지리정보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태영 연구원은 "재해 위험 정보 제공을 위한 상호 운용 플랫폼의 개발과 활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일본의 방재 활동, 특히 상호 운용성과 멀티 플랫폼에 기반을 둔 일본 방재과학기술 연구소의 시스템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의 Bosai-Drip, 상호운용 G-Server, e-Community map, I-Bosai 등

을 소개하였다.

Session III에서는 캐나다 Galdos사의 대표인 Ron Lake와 한국 Saltlux사의 대표인 Tony Lee가 "GIS 신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Ron Lake 대표는 "스마트 코리아를 위한 건설, 관리, 3차원 도시모델의 공유"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도시의 계획, 관리, 거주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인 3차원 도시모델을 소개하고 스마트 도시를 위한 도시모델 구축 방안을 소개하며, 활용을 위한 모델 통합, 공유,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Tony Lee 대표는 "GeoWeb을 위한 시맨틱 검색과 데이터 상호운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모바일 서비스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활성화된 GeoWeb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지능화 기술, 특히 시맨틱 검색 및 데이터 상호운용 기술을 소개하였으며, Geo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연구와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발표 이후의 토론에서는 스마트공간정보의 구현을 위한 방안, 공간정보의 공개와 공유 방안, Smart Korea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 Smart Korea의 실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시사점

본 세미나에 참석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해 각각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공간정보의 공유와 공개가 스마트국토의 구현을 위한 핵심요소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였다. Alan Smart 수석컨설턴트는 공익적 관점에서 공간정보의 가치를 역설하였으며, 최병남 선임연구위원은 공간정보의 파급효과에 주목하였다. Wolfgang Niemeier 교수는 지적 정보의 공유를 위한 통합지리정보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이태영 연구원은 시민참여가 핵심인 방재시스템을 소개하였다. Ron Lake 대표는 도시모델의 상호운용을 위한 공유체

계를, Tony Lee 대표는 공간데이터의 상호운용을 위한 기술을 소개하였다.

본 세미나는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급격하게 진화하는 정보기술이 이에 따른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

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정보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간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공간정보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활용의 기반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신의주 - 단동의 연계발전에 대한 한·중 워크숍

Korea-China Workshop on Co-Development of Sinuiju and Dandong

- 일시 : 2010. 9. 2
-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 참석자
 김철(중국 요녕사회과학원 교수), 이상준(국토연구원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 김원배(지역발전위원회 2010 국제컨퍼런스조직위원장), 강영서(국토해양부 남북협력팀장),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부장),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광희(한국토지주택공사 북한사업센터장),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외 국토해양부 남북발전연구회 회원

■ 발표내용

1. 새로운 발전단계의 중·북 경제협력과 신의주 - 단동의 연계발전: 김철(중국 요녕사회과학원 교수)
2. 국제협력을 통한 신의주 - 단동 공동발전 방향: 이상준(국토연구원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

■ 개최목적

본 워크숍은 북·중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예상되는 북·중 접경지역의 개발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으로써 우리의 발전적인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내용

본 워크숍은 김원배 지역발전위원회 2010 국제컨퍼런스 조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두 명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중국 요녕사회과학원 김철 교수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북·중 경제협력과 신의주 - 단동의 연계발전”으로, 북한의 경제, 북·중 경제협력의 상황 및 특징, 북·중 경제협력의 향후 과제와 신의주 - 단동 연계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북한 경제의 특징은 기계공업 및 금속공업 등 특정 공업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불균형적 산업구조, 수동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력갱생 원칙과 국제적 대북제재로 인한 고립된 경제라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북·중 교역이 증가하고 있지만 교역환경이 어렵고, 교역액이 낮은 수준이다. 북한의 낙후한 인프라 시설과 지불능력의 한계성으로 인해 경제협력 수준이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에서 북·중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통적인 협력방식을 떠나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의주 - 단동 연계발전 전략으로 북·중 변경무역, 북·중 관광협력, 북·중 기술협력 등의 경제협력, 북·중 경제협력의 중점 프로젝트 적극 추진, 새로운 협력영역과 협력방식 개발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국토연구원 이상준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의 “국제협력을 통한 신의주 - 단동 공동발전 방향”이었다. 신의주와 단동은 양국의 수도인 평양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육로상의 접경지역으로, 신의주 - 단동의 연계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국제협력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동북아 차원에서 신의주와 단동은 거대 경제권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환보하이지역의 북서부에 위치한 접경지역이며 범아시아철도망(Trans-Asian Railway network)과 아시아하이웨이(Asian Highway)가 단동과 신의주를 거쳐 한반도에 연결될 계획이다. 한반도 차원에서 두 지역은 미래 한반도의 경제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외곽 교두보’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양국 간 공동발전 동인을 살펴보면, 중국은 동북3성의 발전과 인프라 의 현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자원을 활용할 유인이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이 중국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 측에서는 최근과 같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신의주를 대외협력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의주의 발전 측면에서 단동과의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동북아 차원에서도 북·중 간 안보협력, 투자 및 교역 증대와

인프라 연계,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인적교류 증대에 따른 도시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공동발전의 제약요인으로는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 북한의 내적 역량 부족 및 안보문제 등이 있다. 신의주 - 단동의 공동발전 방향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초국경적 협력의 시범지대로 개발, 민관공동개발(PPP)을 통해 연계개발 추진, 한반도 서해안권과 환보하이권의 연계차원의 산업인프라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 시사점

본 워크숍에 참석한 연구기관 및 각 부처의 남북전문가들은 북·중 접경지역인 신의주와 단동 간의 연계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였고, 신의주 - 단동 연계발전의 제약 요인 및 향후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향후 신의주 - 단동을 포함한 북한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한 전체 계획구도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연구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2010년 OECD-KRIHS 국제세미나: 콤팩트 시티

OECD-KRIHS Seminar on Compact City

■ 일시 : 2010. 10. 8 ■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한국 박양호(국토연구원 원장), 민범식(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장), 조남건(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전략센터장), 이왕건(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조(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진규(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권원용(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홍석(서울대학교 교수), 박세훈(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강명구(서울시립대학교 교수)

OECD Adam OSTRY(Counselor for Regional Development Policy, Regional Development Policy Division, OECD), Vincent FOUCHIER(Vice-chair and French Representative of Urban Working Party on Territorial Policy in Urban Areas, OECD), Yasushi YOSHIDA(Division Head, Regiona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ECD), Tadashi MATSUMOTO(Senior Policy Analyst, Regiona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ivision)



■ 발표내용

1. 지속가능성을 위한 '콤팩트' 혹은 '확산' : 한국에서 도시 형태가 이동 행태에 미치는 영향: 김홍석(서울대학교 교수)
2. 콤팩트 시티의 환경적·경제적 영향: Tadashi Matsumoto(Senior Policy Analyst, Regiona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ivision, OECD)

3. 콤팩트 시티의 거버넌스: Adam Ostry(Counselor for Regional Development Policy, Regional Development Policy Division, OECD)
4. 일 - 드 - 프랑스의 콤팩트 시티 정책: Vincent Fouchier(Vice-chair and French Representative of Urban Working Party on Territorial Policy in Urban Areas, OECD)
5. 대중교통지향형 도시의 촉진: 한국 도시들의 문제와

과업: 박세훈(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개최목적

본 국제세미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으로서 압축도시에 대하여, 한국 및 OECD 국가의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서 개최되었다.

■ 주요 내용

한국과 OECD 국가의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본 세미나는 '콤팩트 시티의 주요 이슈'와 '콤팩트 시티의 정책 과제'라는 두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김홍석 교수가 도시 형태 지표를 이용하여 도시 형태가 이동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콤팩트'와 '확산'의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 대규모, 고밀도, 불균등 분포, 확산된 패턴의 도시형태가 두 그룹의 도시 모두에서 1인당 자동차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임을 보여주었다. 이어 OECD의 Tadashi MATSUMOTO가 콤팩트 시티의 환경적·경제적 영향과 실천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보다 콤팩트한 도시일수록 개인 소유 차량의 연료 소비가 적고,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적다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OECD의 Adam OSTRY가 콤팩트 시티의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방식을 발표하였다. 성공적인 콤팩트 시티 거버넌스를 위해 명확한 지역의 비전, 부문통합적 접근, 단기적 행위와 장기적 목표의 연계, 현존하는 조직의 활용, 통합적 구조 등이 요구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OECD의 Vincent FOUCHIER가 일-드-프랑스(Ile-de-France) 계획의 콤팩트 시티 관련 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어 국토연구원의 박세훈 연구위원이 Transit-Oriented City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도시들의 과제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교통 중심지는 도로 중심의 도시 개발 패턴, 취약한 보행 네트워크 및 환경, 교통 중심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부재, 소규모의 개별적 개발행위로 인한 파편적 개발 패턴 등의 문제를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권원용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각 세션별로 콤팩트 시티의 정책 유형, 도전 과제 및 해결 노력을 파악하고 포괄적 정책 제안을 내놓고자 하는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시사점

본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과 OECD 전문가들은 지속가능성의 맥락에서 콤팩트 시티의 의미와 국가별, 도시별 현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연구 협력이 필요함에 뜻을 같이하였다.

또한, 이번 세미나는 OECD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세 번째 국제세미나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협의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약속하였다.

>> 2010년도 한·중 국토정책 국제세미나: 저탄소 성장과 국토정책

The Seminar on Land Policy of China and Korea in 2010: Low Carbon Growth and Land Policy

■ 일시 : 2010. 10. 12 ■ 장소 : 국토연구원 중회의실

■ 참석자

한국 박양호(국토연구원 원장), 손경환(국토연구원 부원장), 최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심우배(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명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범현(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왕광익(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정은(국토연구원 연구원)

중국 Gao Ping(高平, 중국토지감측규획원 부원장), Tang Jian(唐健, 중국 토지감측규획원 처장), Lu Yanxia(盧艷霞, 중국 토지감측규획원 고급기술사), Zhu Zhenzhen(朱珍珍, 중국 토지감측규획원 기술사), Feng Guangjing(馮廣京, 중국 토지감측규획원 처장), Li Jingyu(李景玉, 중국 토지감측규획원 연구원), Park InSung(朴寅星, 浙江大學 교수)

■ 발표내용

1.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김명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박정은(국토연구원 연구원)
2. 한국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 계획추진 현황 및 방향: 왕광익(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범현(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3.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 및 적응방안: 심우배(국토연구원 연구위원)
4. 중국 경작지 보호 30년 회고와 전망: Tang Jian(唐健, 중국 토지감측규획원 처장)
5. 농촌택지 활성화를 통한 농촌 토지집약이용 촉진방안: Li Yanxia(盧艷霞, 중국 토지감측규획원 고급기술사)
6. 중국 도시토지 가격형성 체계: Zhu Zhenzhen(朱珍珍, 중국 토지감측규획원 기술사)

■ 개최목적

본 국제세미나는 “저탄소 성장과 국토정책”이란 주제로



양국의 토지제도와 성장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에 합리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제적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내용

국토연구원의 김명수 연구위원과 박정은 연구원이 발표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여건 지표와의 상관

성 분석을 통해 지역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과 적응성 정도를 기준으로 6개의 유형으로 지역을 구분하였고 각 지역별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산업 및 에너지, 교통, 도시 및 건축물, 녹지, 수자원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산업, 교통, 도시 및 건축물, 생태계, 수자원 등 각 분야별로 제시된 정책들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종합적이고 융복합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각 부처 간 협력적 정책 추진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 왕광익 책임연구원과 이범현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 · 계획추진 현황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온실가스가 대부분 도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인 녹색도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범정부 차원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있다. 녹색국토 · 도시조성, 생태공간의 확충, 녹색건축물 확대, 녹색교통체계 구축,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다섯 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저탄소 녹색도시 성장을 위해 법령 및 제도 정비, 사후점검 시스템 구축, 창의적인 정책 발굴과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민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토연구원의 심우배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 및 적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인구나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원인제공자인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므로 기후변화에 있어 도시 차원의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로보수, 차수벽 설치 등의 단기적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구조물

의 설계기준 강화, 하천의 수공간 확보를 통한 홍수방지 및 수량확보, 홍수 위험도분석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도로 등 교통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 공간계획적 대응이 효과적이다. 건축시설의 경우 녹지, 수공간, 바람길 확보 등을 통한 도시 적응능력 강화, 홍수 위험도분석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건축시설 입지 제한, 자연통풍시스템, 냉방시스템, 우수저류시스템 등이 일체가 된 건축시설 적응시스템디자인 등 공간계획적 · 시스템적 대응이 효과적이다.

토지감측규획원 탕지엔 처장은 “중국 경작지 보호 3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빠른 경제발전 따라 경작지 유실이 가속화되고 있다. 당중앙에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귀중한 경작지를 보호하는데 토지관리의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작지 보호 정책은 크게 경작지 총량보호(1978~1985), 농토지 통일관리(1986~1998), 경작지 보호정책(1999년 이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작지 보호를 위해서는 토지수용보상제도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상체제를 완비할 필요가 있으며 피수용지 농민의 취업, 주택, 사회보장을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늘려 자생적으로 농촌이 살아갈 수 있고 시장체제를 농경지 정리사업에도 도입하여 기금을 통한 농경지보호와 신농촌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토지감측규획원 루엔시아 고급기술사는 “농촌택지 활성화를 통한 농촌 토지집약 이용 촉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중국은 급속한 공업화 · 도시화 과정에서 2억 무(畝)의 농촌택지 중 10~15%는 방치상태에 처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에서는 택지의 환수 메커니즘을 활용해 집체토지 건설용지에 대한 제도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택지 환수 메커니즘의 설립은 토지이용구조를 고도화하고 건설용지의 확대에 기여한다. 또한 토지절약 집약이용과 신농촌 건설을 촉진하고 농민의 생산활동 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택지의

용익물권(用益物)을 보장하고 농민의 재산수입을 증가시키는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각 농촌에 따라 다양한 이주, 환수모형을 설계하고 농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며, 엄격한 통제하에 수익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는 전체적으로 농촌 택지 관리를 강화하고, 농민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토지감축규획원 주전전 기술사는 “중국 도시토지 가격형성 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토지가격은 토지자원의 희소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지표이며 효율적인 자원 배치를 유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중국의 도시토지사용제도는 본질적으로 모두 가격형성 메커니즘에서 토지자원을 분배하고 있다. 중국 토지시장의 토지가격 형성체계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발전함에 따라 변

화를 거쳐 왔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의 도시토지가격형성 체계는 정부의 가격결정에서 시장의 가격결정으로 발전하였고, 협의 양도방식에서 입찰, 경매 양도방식으로, 경영성 용지에서 공업용지로 점차 시장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 시사점

국토관리, 농지관리, 녹색도시, 농촌택지, 재해관리, 도시토지가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로 저탄소 성장과 국토정책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연구협력 필요성을 같이하였으며, 또한 본 세미나에 앞서 국토연구원과 중국 토지감축규획원의 연구분야와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와 협동연구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의 공동연구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였다.

>> 세계은행 - 국토연구원 공동 워크숍: 도시화-한국과 국제경험의 교훈

WB-KRIHS Joint Workshop “Urbanization Review: Lessons from Korea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 일시 : 2010. 12. 13~12. 14
- 장소 : 서울 팔래스호텔
- 참석자
 - 한국** 박양호(국토연구원 원장), 정창수(국토해양부 차관), 손경환(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재길(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재윤(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문정호(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조진철(국토연구원 국제협력팀장), 박삼욱(서울대학교 교수), 권원용(서울시립대 교수), 이상훈(국토해양부 국제협력담당관)
 - 세계은행** 최성수(WB 수석전문위원), Somik Lall(WB 선임연구위원), Dean Cira(WB 수석전문위원), 양형근(WB 연구위원), Paul Kriss(WB 수석전문위원)
 - 인도** Om Prakash Mathur(인도 NIPFP 교수)
 - 중국** Shih Nan(중국 선임설계사 서기 및 도시계획 리뷰 편집국장), Liu Feng(중국 국무위원회 본부장)
 - 베트남** Tran Kim Chung(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원 투자정책실장)
 - 콜롬비아** Juan Mauricio Ramirez(콜롬비아 국토기획원 부국장)

■ 발표내용

1. 세계은행의 새로운 도시 전략과 도시화: 도시화 우선과제를 알기 위한 새로운 진단: Somik Lall(WB 선임연구위원)
2. 한국의 경험: 한국의 도시화 사례 연구 - 한국의 도시화 과정 및 정부정책: 박재길(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인도: 인도의 도시화 도전과 정책이슈: Om Prakash Mathur(인도 NIPFP 교수)
4. 중국: 개발을 위한 농업용지의 전의 - 정책의 변천: Liu Feng(중국 국무위원회 본부장), Shih Nan(선임설계사 서기 겸 중국 도시계획 리뷰 편집국장)
5. 베트남: 도시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이슈: Tran Kim Chung(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원 투자정책실장)
6.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도시체계 - 도전과 기회: Juan Mauricio Ramirez(콜롬비아 국토기획원 부국장)

■ 개최목적

본 공동워크숍은 세계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화(Urbanization Review) 프로그램과 한국을 비롯한 인도,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 주요 국가들의 도시화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개도국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내용

Session I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원배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세계은행 Somik Lall 선임연구위원이 “World Bank’s New Urban Strategy and Urbanization Review: New Diagnostics to Inform Urbanization Priorities”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하였다. Somik Lall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도시화



(Urbanization Review)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문제점과 현상들을 분석하여 개발도상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국토연구원 박재길 선임연구위원은 “Learning from Korea? Case Study of Korea Urbanization Review: Urbanization Process and Government Policies in Korea”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세계은행이 제시한 개발의 주요 지표를 통해 도시화 과정 속에서 추진해 온 한국의 도시화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은행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향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Session II에서는 서울대학교 박삼욱 교수가 사회를 맡아 두 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먼저 인도 NIPEP 교수인 Om Prakash Mathur은 “Urbanization Challenges and Policy Issues in India”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인도는 미진한 도시화 현상과 함께 지역 간 도시화율의 격차가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도시가 경제성장 및 빈곤 해소의 주된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도시 내 인프라와 서비스 부족, 토지와 주택시장 미발달 등을 꼽았다. 도시화가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제10차 국가 5개년 계획에 의거한 개혁 추진을 명시하고 도시 발전을 위한 어젠다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 국무위원회 본부장인 Liu Feng은 “China:

2. 국제연수프로그램

The Transfer of Rural Land for Construction in China-Policy in Transi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중국 정부는 도시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히 농업용지 전용 문제를 고심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도시화를 농촌의 소득증대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는 인구재배치 정책을 강구해왔으나, 엄격한 농업용지 전용제도는 농촌 이주자들이 도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문제를 야기시켰다. 따라서 2000년에 들어와 농업용지 전용 정책의 개선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격차 완화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Session III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권원용 교수가 사회를 맡아 두 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먼저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원 투자정책실장인 Tran Kim Chung은 “Vietnam: Policy Issues for Improving Quality of Urbanization Transition”이라는 주제로 베트남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서 핵심 도전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의 극복을 위해 도시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도시정책의 주요 이슈로는 토지 이용정책, 국가도시화 전략, 도시개발관리 행정의 분권화 등을 들었다.

다음으로 콜롬비아 국토기획원 부국장 Juan Mauricio Ramirez은 “Colombia: The System of Cities in Colombia-Challenges and Opportunities”라는 주제로 현재 남미에서 가장 도시화된 국가 중 하나로 발전한 콜롬비아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빈부격차, 높은 범죄 발생률, 고실업률, 높은 도시 인구밀도, 교통혼잡 심화, 환경오염, 슬럼지역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도시 문제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ession IV에서는 세계은행 Dean Cira 수석전문위원의 사회로 “Panel Discussion - From Diagnostics

to Policies”가 진행되었다. 참가국 모두 경쟁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가능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개발도상국 중 도시화 문제해결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으로 세계 각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해외에 많은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 문제에 대한 보다 나은 해결책으로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한국의 사례가 본보기로 많이 활용되었는데, 특히 서울의 도시화 과정은 전 세계 다른 나라 도시들과의 비교 시 중요한 사례로 간주되었다. 도시화에 따른 문제의 해결방안은 하나의 명확한 답으로 나올 수 없는데, 이는 도시화가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참석자 일동은 동의하였다.

■ 시사점

본 워크숍을 통해 세계은행의 도시화(Urbanization Review)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세계은행이 제시한 글로벌 도시지표 시설(Global City Index Facility: GCIF)을 한국의 도시화 과정에 적용하여 세계은행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인도,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 각국의 도시화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등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외에도 워크숍 기간 동안 국토연구원과 세계은행은 MOU 체결을 통해 국토·도시 분야에 대한 조사와 분석, 교육·연수, 세미나, 전문가 파견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국토연구원은 지구촌 공동발전과 공존 및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연수생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통상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개발과 지역개발, 국토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전수 및 정책사례 소개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는 GDP센터 시범사업 교육연수 프로그램인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과 베트남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관리정책과정”,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위탁한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과정”을 실시하여 개도국 중견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 토지정책과 주택정책 등을 소개하였다.

>> 2010년 GDP센터 시범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연수프로그램

- 기간 : 2010. 10. 4~11. 12
- 참가국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케냐, 우간다, 몽골, 필리핀, 베트남
- 참석자
Milkessa Tolera(오로미아 도시계획연구소 부장, 에티오피아), Stephen Mbwambo(주택부 토지조사역, 탄자니아), Alphonce Lekule(국토주거개발부 토지담당관, 탄자니아), Assoua Laurent(BNETD 기술고문, 코트디부아르), James Karuku(주택부 주택담당, 케냐), Henry Onyanyo(주택부 주거담당, 케냐), Andrew Musoke(행정자치부 선임경제연구위원, 우간다), Tsedendamba Uluguchuu(공공사업부장, 몽고), Eutemia Ontina(주택총국본부장, 필리핀), Nguyen Dai Thang(VIAP 기술자, 필리핀), Chu thi Quhyn Diep(토지개발청 전문원, 필리핀), Nguyen Nhat Quang(자원환경부, 필리핀)

한국의 경제개발과 지역개발, 국토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전수 및 정책사례 소개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지원하고자 2010년 GDP센터 시범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National Territory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프로그램이 2010년 10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은 강의, 지도교수제 운영,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세미나 참가, 견학 및 시찰, 엔지니어링사 방문, 국별 보고서 발표회, 문화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강의로는 “국토계획의 발전개관”(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한국경제 발전개관”(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GIS 개관”(최병남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IS 실습”(김대중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국의 지역정책”(이원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산업단지 정책”(박영철 성결대학교 교수) 등이 진행되었다.

견학 및 시찰에서는 디지털 파빌리온, 한국남동발전, 인천대교, 철도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홍보관, 서



울시 교통정보센터,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둘러봄으로써 강의만으로는 부족했던 한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 사례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연수생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국토연구원 내 관련 전문가와 미팅을 실시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실습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에 머무르는 6주간의 기간 동안 전주 한옥마을, 경주 관광단지, 도예체험, 족구대회 등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 행사를 준비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지도교수제 운영, 엔지니어링사 방문, 국별 세미나 발표 등 보다 실무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았으며 이에 대해 연수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 “베트남 고위공무원 도시관리정책과정” 연수프로그램

- 기간 : 2010. 12. 6~17
- 참석자
Nguyen Tien Hoa(베트남 Hai Duong시 건설부 국장) 외 국토관련 공무원 20명

국토연구원은 지난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시관리정책과정”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베트남 주택건설정책에 관한 지식 교류 및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 교류의 마련하고자 전공 및 관심분야에 따른 지도교수 면담의 시간, 문화체험 교류의 시간으로서 한식 문화체험과 문화행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베트남 국토관련 공무원 21명은



국토연구원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강의를 받고, 그에 따른 한국의 국토개발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하였다. “한국의 도시계획 및 관리제도”(유성용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새마을 운동과 마을개발”(소진광 경원대학교 교수), “한국의 국토개발 정책과 전략”(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한국의 주택정책”(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구성하였다.

연수생들은 한국의 국토 개발 및 도시화를 경험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삼성물산, 컴팩스마트시티, 청계천, 서울교통정보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곡동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을 방문하였고, 한국의 전반적인 국토개발 현황을 견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현대중공업, SK에너지 등 산업단지를 견학하



고, 고리원자력 발전소, 청도 새마을 발상지마을, KTX 시승, 새만금, 세종시, 금강 등 베트남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견학들을 제공하였다. 특히 청도 새마을 발상지 마을은 마을이라는 작은 단위에서 국가 전체로 번져가는 Bottom-up 방식의 농촌 개발방식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3. 해외기관과 MOU 체결 및 교류협력

>> KOICA 위탁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 연수프로그램

- 기간 : 2010. 5. 9~29
- 참가국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튀니지
- 참석자

Hayatou Abdoulaye(경제기획 지역개발원 신흥국 임원실, 카메룬), Gaston Abama(도시주택 개발부 도시개발총국 임원, 카메룬), Oi Messou Augustin Messou(도시설계사, 건축부소장, 코트디부아르), Konan Ahou(공공건설기술자, 코트디부아르), Ferdinand Dagou(고등건축기술원, 코트디부아르), Ali El-Atlas(모로코 내무부 메크네스지역 환경국장, 모로코), Khalid Ait Maaloum(차브 치라다 베니주 사회 활동본부 선임 기술원, 모로코), Amina Jegham(주택사업부 선임건축원, 튀니지), Mustapha Aissaoui(공공사업부 주택토지운영국장, 튀니지)



2010년 5월 9일부터 20일간 진행된 KOICA 위탁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 연수프로그램은 개도국 정부 관리 및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경제 발전과 도시 및 지역 개발의 경험을 전수하여 향후 자국의 국토정책 수립 시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토지정책, 주택정책, SOC정책 등 한국의 국토정책을 소개하여 교육함으로써, 참가자들이 한국 사례로부터 국토, 지역 및 도시개발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가별 유관 사례 발표를 통해 개별 참가국이 겪고 있는 도시 및 지역개발 관



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토론을 통해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연수기간 동안 “한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한국의 도시 및 산업개발”(정희남 국토연구원 토지전략센터장), “개발과 환경보존”(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새마을 운동”(소진광 경원대학교 교수) 등 한국의 국토개발 및 경험에 맞춰진 강의를 수강하였다. 그리고 강의를 바탕으로 국토계획에 필요한 디자인실습을 통해 국토연구원의 각 facilitator들과 배석하여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토연구원에서는 해외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 관련 해외 전문가 및 공무원 등과 국토정책을 소개하는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교류협력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인재와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연구활동의 전문화 및 국제화를 주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영국 런던대학교 바틀릿계획대학과 MOU 체결



국토연구원은 2010년 5월 4일 영국 런던대학교 (University College London) 바틀릿계획대학 (Bartlett School of Planning) 소회의실에서 양 기관 간 연구협력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바틀릿계획대학의 매튜 카모나(Matthew Carmona) 학장, 마크 튜더존스(Mark Tewdwr-Jones) 대외협력 담당관, 닉 펠프스(Nick Phelps) 교수, 손정원 교수, 이본 라이딘(Yvonne Rydin)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국토연구원에서는 박양호 원장을 대신하여 김현식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바틀릿계획대학은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와 함께 도시 및 지역계획 등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계획분야에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적 석학인 피터 홀(Peter Hall) 교수, 매튜 카모나 학장 등 총 27명의 교수진이 다양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바틀릿계획대학은 ① Land Use Futures, ② Global Space, Contented Space, ③ Zero-carbon

Realities, ④ Governing Post-suburban Growth, ⑤ Sustainable Integrated Tram-Based Transport 등의 연구를 하고 있다.

국토연구원과 바틀릿계획대학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공동연구 및 자료공유,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는 연구 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일본 히로시마대학교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와 MOU 체결



국토연구원은 2010년 7월 29일 일본 히로시마대학교 (Hiroshima University)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Graduate Schoo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DEC)와 연구협력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히로시마대학교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이케다 히데오(Ikeda Hideo) 학장, 후지와라 아키타마(Fujiwara Akimasa) 부학장, 장 준이(Zhang Junyi) 부교수 등 6인과 국토연구원의 손경

환 부원장과 이백진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였다.

이번에 국토연구원과 MOU를 체결한 국제협력연구과는 개발도상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94년 4월에 설립되었다. 국제협력연구과는 크게 ① 국제 환경 협력, ② 국제교육 협력, ③ 국제평화 협력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협력에 관한 학술적·실용적 관점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 수행하고 있는 주요 국제협력 프로그램으로는 '저탄소사회를 설계하는 국제환경 리더십 육성프로그램', '사회적 환경관리 능력의 형성과 국제협력중심 프로그램', '잠비아 등 개발도상국의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등이 있다.

국토연구원과 히로시마대학교 국제협력연구과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국제공동연구, 국제학회 및 세미나 개최, 상호 전문가 파견, 국제협력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는 연구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제협력연구과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향후 국토연구원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대학교와 MOU 체결



2010년 10월 11일 국토연구원은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대학교(HafenCity University Hamburg)의 도시생태 및 환경계획연구소(i-environments Institute)

와 양 기관 간 연구협력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시생태 및 환경계획연구소의 유르겐 피취(Jürgen Pietsch) 교수, 김원현 박사과정생 등이 참석하였으며, 국토연구원에서는 박양호 원장과 손경환 부원장을 비롯하여 각 본부장들이 참석하였다.

국토연구원과 함부르크 하펜시티대학교 도시생태 및 환경계획 연구소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국제공동연구, 국제학회 및 세미나, 상호 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는 연구 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중국 토지감측규획원과 MOU 체결



국토연구원은 2010년 10월 12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중국 토지감측규획원(中国土地勘测规划院, China Land Surveying and Planning)과 양 기관 간 연구협력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중국 토지 감측 규획원은 베이징 소재 중국 국토 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토지조사, 토지평가, 토지이용상황·토지가격 모니터링, 장기적인 토지발전계획 수립, 토지과학 응용기초이론 연구 등이며, 주요 부서로 토지자원조사소, 토지인력탐지소, 지적소, 토지계획소, 토지이용실험실, 토지정보처리·통계센터 등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국토계획, 국토정책, 토지 및 부동산 정책, 도시정책 등 한·중 양국이

관심을 가진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한·중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국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세계은행과 MOU 체결



국토연구원과 세계은행은 2010년 12월 1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체결식에는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과 세계은행 소미 랄 선임연구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는 2010년 10월 개최된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과 세계은행 잉거 앤더슨(Inger Anderson) 부총재 간의 협력 약속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녹색도시 관련 조사와 분석, 자문, 교육, 세미나, 상호 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연구원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에 발맞춰 해외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자매결연을 더욱 확대하여 세계 각국의 인재와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연구 활동의 전문화 및 국제화를 주도하고 있다.

■ 베트남 건설부 장관 일행 내원



베트남 건설부 장관 Nguyen Hong Quan은 2010년 2월 4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ASEAN 건설 환경 회의 참석을 계기로 1월 27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방한하였다. 주요 일정은 27일 해외건설협회, 28일 국토해양부 및 국토연구원, 29일 국회 등을 방문하는 것이다.

1월 28일 국토해양부 방문 시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 측에서는 정종환 장관을 비롯하여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손우준 차기 베트남 국토해양관, 국토연구원 조진철 국제협력팀장, 서울시 송득범 도시계획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홍강 개발사업 관련 협조과 지하 공간 개발정책 및 법령, 신도시 개발과 사회주택의 개발 및 관리, 도시계획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 가나 공무원 및 관련 기술자 내원



2010년 2월 19일 가나 공무원 및 관련 기술자들이 내

원하였다. 가나 공무원 및 기술자들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나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의 도시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을 전수받기 위하여 한국에 왔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손경환 부원장, 조진철 국제협력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가나 공무원 및 기술자들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조직 체계 및 수익구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국토연구원 방문을 통해 향후 한국과 가나의 국토 발전에 대한 미래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베트남 자원환경부 차관 일행 내원



2010년 5월 4일 3층 중회의실에서는 만 히엔(Manh Hien) 베트남 자원환경부 차관 일행의 내원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내원 목적은 첫째, 지난 2008년 10월 신설된 베트남 토지행정국(GDLA)의 업무 개발 등을 위해 한국의 선진화된 토지정책업무 벤치마킹 및 교류 증대이고, 둘째는 2009년 10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Vietnam-Korea Week'에서 양국 차관 면담 시 만히엔 차관의 한국 방문 요청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이 "한국의 국토계획"을, 정희남 선임연

구위원이 "한국의 토지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만 히엔 차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국토계획 및 토지정책은 뛰어난 점이 많으며 베트남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평가하였다.

■ 중국경제발전연구회 고위방문단 내원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 국제협력팀은 2010년 6월 28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첸시웬 중국경제발전연구회 부회장 일행의 내원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내원 행사에는 국토연구원의 박양호 원장을 비롯하여 정희남 선임연구위원, 조진철 국제협력팀장과 첸시웬 중국경제발전연구회 부회장 외 일행 4인, 세계농정연구원의 이상무 이사장과 허원석 국장, 박창식 농협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희남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농업정책과 농지제도"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농업정책 60년의 시기별 특징, 한국 농업정책의 성과와 과제 등이었다.

첸시웬 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도시화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토지제도 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전수받고, 앞으로 국토연구원과 활발하게 교류하여 양국 국토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 세계은행 경제전문가 초청 특강 및 간담회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0년 11월 3일 세계은행(World Bank) SDN(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의 Chief Economist인 마리안 페이(Marianne Fay)를 초청하여 특강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 마리안 페이는 'Creating the Basis for Green Growth'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간담회에는 손경환 부원장, 이원섭 연구위원과 국토정책 과정 해외 공무원 연수생 12명 등이 참석하였다. 마리안 페이는 녹색성장 및 도시개발에 관한 공동연구, 공동 프로젝트, 인력교환 및 파견, 기관 간 MOU 체결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세계은행 Inger Andersen 부총재 외 일행과 오찬회의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0년 10월 25일 서울 중구 무교동에

소재한 한미리 식당에서 잉거 앤더슨(Inger Andersen)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 외 일행과 함께 오찬회의를 개최하였다.

세계은행 관계자에게 국토연구원에 대해 소개한 후 향후 양 기관 간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사항은 국토 및 인프라 관련 공동연구, 공동 국제워크숍 개최, 파견인력 교환, 공동프로젝트 도모, 기관 MOU 체결 등이었으며, 각각의 의제에 대해 상호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 멕시코 D4100 GSE팀과 기관 간 상호 협력 간담회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0년 11월 23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멕시코 D4100 GSE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GSE는 Group Study Exchange의 약어로 연구단 교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멕시코 D4100 GSE팀은 구아다루프 나발로(Guadalupe Navarro)를 단장으로 클라우디아 코비에야(Claudia Cobieya), 리카르도 코테즈(Ricardo Cortez), 마셀로 페라에즈(Marcelo Pelaez), 주안 파블로 나바(JuanPablo Nava)를 단원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멕시코 D4100 GSE 관계자에게 국토연구원 및 국토계획에 대해 소개한 후 양 기관 간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GSE의 주요 관심사인 도시개발 관련 이슈와 정책 등

이었다. 간담회를 통해 멕시코와 한국의 도시개발 관련 경험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양국의 관련 분야에 관한 이해가 크게 증진되었다.

■ 몽골 지리국 고위공무원 초청 국가공간정보 체계 연수



국토연구원은 지난 11월 11일 몽골 지리국 고위공무원 초청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초청 연수에는 지도 제작 및 국가공간정보체계(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NSDI)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몽골 도로교통건설도시개발부(Ministry of Roads, Transportation,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지적지리국(Administration of Land Affairs, Geodesy and Cartography)의 S.Orchirbat 국장, B. Bayarsaikhan 부국장,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트로시의 S. Tumurdulam 정보기술센터장 등 지적지리 관련 고위공무원 총 8인이 참석하였다.

초청 연수는 신동빈 연구위원과 김걸 책임연구원 등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3개의 주제를 강의하며 진행되었다. 강의를 국토연구원 소개, 한국의 국가공간정보체계 정책 소개, 제1~3차 국가GIS기본계획 및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소개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몽골의 고위공무원들은 국가공간정보정책 전반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특히 공간정보 관련 법률 및 표준 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초청 연수를 통해 몽골 고위공무원들의 국가공간정보 체계에 관한 이해가 상당 부분 증진되었으며,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몽골에 국가공간정보정책을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국토연구원과 몽골 지적지리국 및 울란바트로시청은 향후에도 인력양성 지원, 공간정보의 교류, 정책자료의 제공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속적인 국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베트남 하노이 건축대학교 총장·교수진 내원



국토연구원은 지난 11월 28일 하노이 건축대학교 총장의 내원에 따른 교류협력 활동을 실시하였다. 하노이 건축대학은 지난 2002년 국토연구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으로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추진한 바 있다.

도딩득(Do Dinh Duc) 총장과 응오 비엣 혁(Ngo Viet Hug) 교수는 국토연구원 관련자들과 함께 국내 주요 신도시(판교, 분당)를 둘러보고, 국토연구원 등 기관 방문과 국내 대표적인 실버타운인 헤리티지의 생활편의시설을 살펴보았다.

방문단은 국내 주요 신도시(판교, 분당)의 발전상을 보고, 건축 시설물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특히 헤리티지의 생활편의시설을 보며 시설물 효율성 등에 대해 국토연구원 관계자들과 논의하기도 하였다. 일정 가운데 경복궁 및 남산 등 문화관광지 방문도 실

시하였는데 국내의 문화유적지 보존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베트남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관련 정책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베트남 수상실 산하 주택 및 부동산시장 중앙지도위원회 초청 간담회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0년 12월 1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베트남 수상실 산하 '주택 및 부동산시장 중앙지도위원회'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Le Cao Tuan 부위원장 외 8인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사회주택(저소득층주택) 건설정책에 따라 향후 2020년까지 300~4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를 위한 재정 측면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IV 연구지원활동

1.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및 2009년도 국민훈장 동백장(개인) 수상	112
2. 자랑스런 KRIHS 人 시상	112
3. 제11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 개최	113
4. 15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114
5. 2010 우수직원 표창 및 송년 함께하기 행사 개최	115
6. 제9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	116
7. 전국 대학(원)생 2030 미래 국토 논문 공모전 우수작 발표 및 시상	117
8. 아시아·태평양 지역개발기구 'EAROPH Korea' 사무국 현판식 개최	118
9.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식 개최	118
10. 박양호 원장, 2010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상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결과 우수기관장상 수상	119
11. e-book 서비스 개시(www.krihs.re.kr)	119
12. 기획단행본 발간	120
13. 연구관련 주요 행사·교육 개최	123

1.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및 2009년도 국민훈장 동백장(개인) 수상

2009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포상 전수식에서 국토연구원은 정부출연 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한 해 동안의 연구기여 실적과 사회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 연구자 및 우수기관을 선정해왔으며, 이번 2009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포상 전수식은 지난 2월 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이날 전수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양하백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프로젝트 연구 등 오랜 기간 국토관련 중요 연구에 매진하며 사회 발전에 공헌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우수기관에 수여되는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정부정책과제 개발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국토연구원의 대표로 박양호 원장이 직접 표창을 받았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2008년에 걸쳐 세 차례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외에도 2006년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최우수기관, 2008년 국무총

리실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탁월한 연구개발 성과와 업적을 인정받았다. 국토연구원은 2009년도 정부출연 우수연구기관 수상을 통해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또 한번 뛰어난 실적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연구로 국토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2. 자랑스런 KRIHS 人 시상

국토연구원은 지난 4월 26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자랑스런 KRIHS 人'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KRIHS 브랜드 대상은 전문인력의 브랜드 개발을 위해 연구수행, 정책어젠다(Agenda) 형성 및 정책기여, 브랜드 역량강화 활동 등의 성과가 우수한 '스타브랜드'를 선정하여 시상하며, 국토연구원의 전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의 KRIHS 브랜드 대상에는 정일호 선임연구위원, 이상준 선임연구위원, 이수욱 연구위원, 왕광익



책임연구원 등 4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여 지역사회 환경개선 활동에 솔선한 직원을 발굴·격려함으로써 전 직원에게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제정된 'KRIHS 자원봉사 대상' 시상식도 개최되었다. 'KRIHS 자원봉사 대상'은 2009년 한 해 동안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며, 올해에는 차미숙 연구위원, 안종천 책임연구원, 김용대 2급관리원, 박정은 연구원, 설장현 전문원 등 4인이 수상하였다.

이날 박양호 원장은 치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KRIHS인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이며 실용적인 국토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3. 제11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 개최



국토연구원은 지난 6월 19일 서울대학교 SK경영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국토지리정보원과 공동 주관한 '제11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의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전국지리올림피아드는 지리학의 대중화를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위상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리적 안목의 육성을 통한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력 함양,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다른 나라와의 상호협력태도 함양,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9년 전국지리올림피아드 대회는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2주간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5월 29일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6월 2일 입상자를 발표하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교육협의회 관계자 등 10여 명과 대한지리학회 임원, 전국지리교사연합회, 기타 전국지리올림피아드 관계자 20여 명, 수상자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토 교육과 애국심, 그리고 미래국토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입상자들을 축하하였다. 시상식은 학생 부문과 교사 부문으

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학생 부문은 강릉고등학교의 송은규 학생이 대상인 대한지리학회장상을 수상했고, 금상 3명이 각각 국토연구원장상과 대한지리학회장상, 국토지리정보원장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은상 10명과 국토교육협회 이사장상인 동상 50명이 선정되었다. 교사 부문에서는 정광용 강릉고등학교 교사가 대상인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박상용 대원의 국어고등학교 교사를 비롯한 4명이 대한지리학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총 15명의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토연구원장상은 학생 부문에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의 김지건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교

사 부문에서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의 박성준 교사, 이순희 해강고등학교 교사, 허현정 학생고등학교 교사 등 3명이 수상하였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11회째 대회를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수고해온 지리올림피아드 관계자들과 교사, 임원들에게 공로패가 증정되었다.

앞으로도 전국지리올림피아드는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통한 지리학의 대중화와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차세대 지리 인재 육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상(대상, 금상, 은상) 수상자 명단

구분	학교	학년	이름	제목
대상	마산 안계초등학교	6	최예림	자연의 품에 살다
금상	전주 인후초등학교	2	조선희	살고 싶은 시골 만들기 작전
	원주 평원초등학교	5	유영량	자연은 우리 모두의 행복한 집
은상	하동 쌍계초등학교	5	강소현	꽃가람 국도 19호선!
	서울 도곡초등학교	3	안소정	산속에서 보물찾기
	화성 동학초등학교	6	엄정현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하모니

■ 단체상

구분	학교
대상	포항 두호남부초등학교
금상	함안 가야초등학교
은상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 지도교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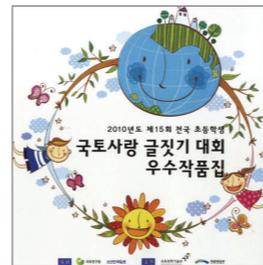
구분	학교	성명
대상	원주 평원초등학교	김정자
금상	익산 이리모현초등학교	박연주
은상	마산 삼계초등학교	허경혜

4. 제15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삶의 터전인 국토의 중요성과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한 국토사랑 글짓기대회가 제15회를 맞이하였다. 이번 대회는 2010년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286개교, 4,702편의 많은 우수작품이 접수되었다. 3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3편, 동상 47편, 단체상 3개교, 지도교사상 3인, 장려상 295편이 선정되었다.

수상한 작품들은 “국토사랑 글짓기 우수작품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대상, 금상, 은상 수상작은 어린이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 주최: 국토연구원, 소년한국일보사
-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 응모기간: 2010. 8. 2~9. 30



5. 2010 우수직원 표창 및 송년 함께하기 행사 개최

2010 우수직원 표창 및 송년 함께하기 행사가 지난 12월 31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는 외부 기관 표창자 전수식과 우수직원 표창장 수여,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의 기념사, 다과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외부 기관 표창은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 이춘용 선임연구위원, 이수욱 연구위원, 이승복 연구위원, 김걸 책임연구위원, 김태환 연구위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표창: 고용석 책임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표창: 윤정근 3급관리원이 수상하였으며, 우수직원 표창은 윤하중·이왕건·장철순·심우배·조진철 연구위원, 김준기·박경현·안종욱·안종천 책임연구위원, 김재환·황관석 연구위원, 박동신 3급 관리원이 수상하였다.



박양호 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2010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였고 한국의 국토정책을 “Korea’s Territorial Policy” 책자에 담아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고 밝히며 “2011년에도 보람과 휴머니즘이 넘치는 국토연구원이 되도록 힘내자”고 말했다.

6. 제9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

올해로 9회를 맞이한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이 지난 2010년 12월 29일 국토연구원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10년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4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국토정책에의 활용성, 연구내용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논문 1편과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였는데,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은 ‘주택규모 규제의 시장효과에 관한 연구: 수도권지역 아파트시장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와 가격효과를 중심으로’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형민 멜버른대학교 건축 및 계획학과 박사과정)이고,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은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원거주민의 이주패턴과 거주행태 변화 분석’ (임은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재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걸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하천 치수관리를 위한 상·하류 지역 비용배분’ (이충성 인하대학교 수자원시스템연구소 선



임연구원, 유재영 인하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여규동 인하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이상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최우수논문 1편과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수상하는 제도로서,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심사와 논의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구분	논문제목	연구자	시상내역
최우수상	주택규모 규제의 시장효과에 관한 연구: 수도권지역 아파트시장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와 가격효과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형민 멜버른대학교 건축 및 계획학과 박사과정 	상금 200만 원, 상패
우수상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원거주민의 이주패턴과 거주행태 변화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은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재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걸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상금 각 100만 원, 상패
	하천 치수관리를 위한 상·하류 지역 비용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충성 인하대학교 수자원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 유재영 인하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여규동 인하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이상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7. 전국 대학(원)생 2030 미래 국토 논문 공모전 우수작 발표 및 시상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분부는 기본과제로 수행 중인 ‘국토 대예측 연구(III)’와 관련하여, ‘전국 대학(원)생 2030 미래 국토 논문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발표회에는 국토연구원 손경환 부원장, 김동주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민범식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장, 이용우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 등 원내 심사위원과 우수논문 작성 대학(원)생이 참석하였다.

본 발표회는 원내·외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금상 후보작으로 선정된 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발표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박남훈·김현우(서울대)는 ‘미래의 국토공간, 아라폴리스’라는 주제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미래 국토비전으로서 해저, 해중, 해상 공간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이동규·서인석·양고운(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은 다이나믹 모델링(Dynamic Modeling)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2030년 KTX 고속철도망의 발달과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전망하였고, 강승범·맹효열·서윤미(연세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030년 외국인 밀집지역의 미래’를 예측한 후에 시나리오기법을 활용하여 수도권 다문화사회의 모습과 국토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발표회를 통해 논문주제의 선정 이유, 연구방법에 대한 인지도, 미래전망의 논리적 추론과정, 무단 인용여부 등에 대한 원내 심사위원의 이해가 크게 증진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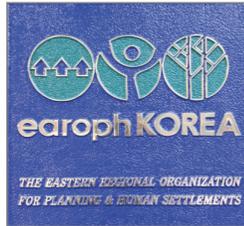


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 1편과 금상 2편을 선정하였다.

한편 공모전 시상식은 12월 27일 오후 3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손경환 부원장과 각 본부장, 이용우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상을 수상한 강승범·맹효열·서윤미 등 전국 대학(원)생 21개 팀(32명) 역시 참석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구분	이름	소속	논문명
대상	강승범 맹효열 서윤미	연세대	외국인 밀집지역의 미래 예측에 대한 연구
금상	박남훈 김현우	서울대	미래의 국토공간, 아라폴리스
금상	이동규 서인석 양고운	성균관대 대학원	2030년 미래 KTX 고속 철도망 발달과 국토공간구조 이용의 변화 전망과 과제

8. 아시아·태평양 지역개발기구 'EAROPH Korea' 사무국 헌판식 개최



EAROPH(Eastern Regional Organization for Planning and Human Settlements) Korea 사무국의 개소식이 지난 12월 30일(월) 개최되었다.

이번 EAROPH Korea(위원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사무국의 개소는 지난 10월 31일(일)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이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개최된 EAROPH 50주년 이사회에 한국 대표 단장으로 참석하여 2012년

EAROPH 세계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고, 한국을 비롯한 EAROPH 회원국의 계획, 개발, 정주공간 관리부문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한 데 이은 것이다. EAROPH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기구이며, 아태지역의 공공계획과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1954년 인도의 뉴델리에서 창립해 현재 아시아 및 태평양 28개국 82개 기관의 340명의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UN 산하 비영리기구다.

9.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식 개최

국토연구원은 지난 12월 30일(목)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GDP Center)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원내에서는 박양호 원장, 손경환 부원장, 사공호상 GDP Center 소장, 각 본부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외부인사로는 국무총리실 이련주 국장·김충호 국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상철 실장·김이교 실장, 박수영 EAROPH Korea 명예회장, 이정식 안양대학교 교수, 임서환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고문, 유성용 국토해양부 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GDP Center는 개도국 공무원 교육·연수, 해외 국토분야 계획수립 및 자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개발협력 활동을 담당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2011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GDP Center는 향후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연수를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개발의제' 실천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G20 서울 정상회의의 '개발의제' 실천에 GDP Center가 앞장서야 할 것이며 개도국 공무원에 대한 한국의 국토정책 지원의 첨병역할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10. 박양호 원장, 2010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상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결과: 우수기관장상 수상

2010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의 상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결과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장으로 선정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관장 리더십 평가는 국정과제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역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국정연구기관으로서의 정책기여도를 제고함으로써 기관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조기에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선진화된 연구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0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의 상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위원은 흥기택 평

가단장(중앙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가내용은 자체평가서 및 구성원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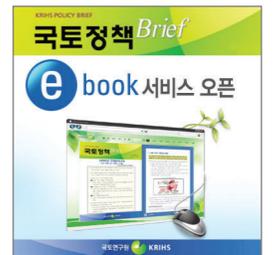
11. e-book 서비스 개시(www.krihs.re.kr)

국토연구원은 지난 7월 19일(월)부터 연구원 홈페이지의 'e-book'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날 첫 번째 e-book으로 국토정책Brief가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e-book 서비스는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기간행물 및 연구보고서를 사용자 친화적인 e-book으로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토정책Brief와 OECD 번역총서인 "도시 경쟁력과 기후변화" 등 일부 발간물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앞으로 월간 국토, 국토연구 등 정기간행물과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연구보고서 등으로 e-book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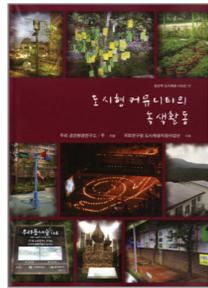
12. 기획단행본 발간

2010년 국토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책자를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책자들은 정부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국토전략을 마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 도시형 커뮤니티의 녹색활동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사업단 기획, 두리공간환경연구소 지음, 국토연구원 발간, 279쪽

이 책은 전국의 공동주택 단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주민 등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공동주택의 저탄소 녹색기반 조성실태를 조사한 내용이다. 이 책은 우리 일상에 흠어져 있는 녹색활동 사례들을 한곳에



모아 국내 녹색기술의 수준을 확인하고, 녹색생활 실천과 녹색 일자리 창출의 현황 및 활동내용을 파악하여 향후 가능성과 과제를 되짚어보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지역커뮤니티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고 다채로운 녹색활동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 한국의 녹색도시·마을만들기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사업단 지음, 국토연구원 발간, 288쪽

이 책은 녹색도시 커뮤니티 만들기와 관련된 전국의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사례를 기록, 정리하고 시



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녹색도시 마을만들기를 실

천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집필되었다. 연구진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참여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기록함으로써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하고자 노력한 것이 커다란 성과다. 이러한 성과의 축적은 우리의 도시와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 그린시티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사업단 기획, 리빙 시티즈 엮음, 이왕건·주희선·구흥미·이유리 옮김, 국토연구원 발간, 83쪽

“그린시티”는 도시들이 공정한 녹색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법을 지원하고 선보이고자 하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기본으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미국 내 40개 대도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그린시티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과 기회를 제공해줄 세 가지 분야인 에너지 절감, 녹색인력 개발, 대중교통 중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떠한 도시들이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 동시에 노력이 필요한 지역을 확인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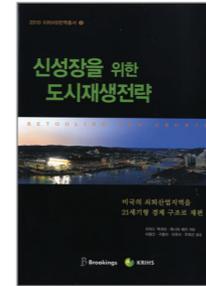
■ 신성장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사업단 기획, 리처드 맥게히·제니퍼 베이·아메리칸 어셈블리 엮음, 이왕건·구흥미·이유리·주희선 옮김, 430쪽

이 책은 국가의 리더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부여하는 내용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쇠퇴산업지역에서 경제적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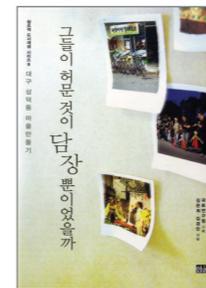
전을 도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영감을 불러일으켜 준다. 이 책은 아메리칸 어셈블리(American Assembly)가 쇠퇴하는 산업도시 재생을 위해 수행한 대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미국의 쇠퇴하는 산업 대도시지역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고, 쇠퇴한 도시지역을 재건하기 위해 권고할 만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원동력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들이 허문 것이 담장뿐이었을까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사업단 기획, 김은희·김경민 지음, 도서출판 한울 발간, 1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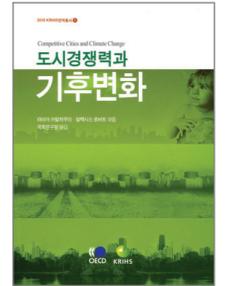
대구시 삼덕동은 ‘담장허물기’로 유명한 곳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을만들기 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온 동네이지만, 그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원룸개발, 마을재개발 등의 사업이 닥칠 때마다 마을만들기는 좌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난관을 주민들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닌 모든 주민을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타개해 나갔다. 지금도 재개발사업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아이템을 기획해 마을만들기를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도시경쟁력과 기후변화

라미아 카말차우이, 알렉시스 로버트 지음, 국토연구원 옮김, 247쪽

도시 기후변화의 문제임과 동시에 해결의 열쇠다. 본 보고서는 도시 및 대도시권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 총 여섯 개의 장(Chapter)을 통해 도시화와 에너지 사용, CO2 배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전 세계적 에너지 수요 감소와 지역적 차원의 환경적·경제적 목표 간 상충 감소를 위한 지역정책의 잠재적 기여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서로 보완적이고 상호 강화하는 정책(예를 들어 압축성장 정책을 대중교통 연계 개선과 결합시키는 것)을 논의하고, 기존 재정정책의 ‘녹화(Greening)’와 지역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정비, 녹색 혁신 및 일자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많은 정책수단들을 평가한다.



본 보고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도시정책(예를 들어 과밀세 또는 혼잡세)은 세계적 에너지 수요와 CO2 배출 감소 및 탄소배출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 감소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전 지구적 기후정책(예: 탄소세)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적 차원의 기후변화 실행계획의 큰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주로 OECD 회원국의 모범사례를 강조하지만, 비회원 국가들의 모범사례도 보여준다.

■ 국토정책Brief 모음집, 도로정책Brief 모음집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48편과 ‘도로정책Brief’ 32편을 각각 묶어 「2009 국토정책Brief 모음-창조와 통합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만들기」와 「2010 도로정책Brief 모음-미래국토 가치 창조를 위한 녹색도로 만들기」를 발간하였다.

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최

13. 연구관련 주요 행사·교육 개최



신 연구성과와 동향, 국내 사례, 정책제안 등을 신속하게 소개하고자 지난 2004년에 창간되었으며, 국토정책 Brief 모음집은 2009년에 발간된 48편을 엮은 것으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국토비전을 비롯해 유럽의 통합 공간체계 시나리오 2030, 프랑스의 그랑파리 프로젝트, 일본의 미래개척전략 등 세계 각국의 미래 국토 전략과 비전 등 어느 해보다도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도로정책Brief는 도로 관련 주요 정책과 국내의 동향, 최근 소식 등을 소개하고자 2007년 11월에 창간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창간호부터 2010년 6월까지 발표된 32편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1) 워크숍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부동산정책 워크숍	2.5(1차) 2.9(2차) 3.25(3차) 5.27(4차) 6.30(5차) 7.14(6차) 8.6(7차) 8.31(8차) 12.13(9차)	10층 중회의실 (1차, 4차, 8차) 9층 회의실 (2차) 부동산114 부산·울산·경남 지사(3차)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5차) 대규경복연구원 (6차) 3층 중회의실 (7차, 9차)	부동산시장의 현황 및 전망, 정책과제 등 논의(1차), 국내·외 상업용 부동산시장 동향과 전망(2차), 부산·경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향후 정책과제 토의(3차), 주택시장 변동과 정책 패러다임 변화 전망 논의(4차), 광주·전남권 부동산시장 및 건설시장 동향분석, 정책과제 토의(5차), 대구경북지역 부동산시장 및 건설경기 동향분석, 정책과제 토의(6차),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거래 활성화 방향, 정책현안 및 관련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7차), 부동산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부동산시장 신 EWS 모형 개선방안 등 논의(8차),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와 대응방안(9차)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공동주최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기본구상에 관한 연구 제8차 워크숍	1.14~15	서귀포 금호제주리조트	중간 연구결과의 종합 토론·정리 및 향후 연구 추진방향 등 협의
GIS연구센터·국토정책시물레이션센터 워크숍	1.21~22	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	2009년 연구추진 실적 및 2010년 향후 계획 검토, 주요 의제를 통한 GIS연구센터의 발전방향 모색
저탄소 녹색 요금 체계 워크숍	1.29	8층 회의실	대중교통 활성화, CO ₂ 절감, 고속도로 기능 강화 방안 논의
2009년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보고 및 워크숍	2.3~4	제주대 연수원	2009년도 공간정보 거점대학과 특성화대학원 성과보고 및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정책 방향 논의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3차년도) 제3차 워크숍	2.3~4	곤지암리조트	연구진행사항 발표 및 토론, 향후 추진일정 논의 성남시 도시통합운영센터 현장답사 및 면담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역 기본구상에 관한 연구 관련 제9차 정기워크숍	2.1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레저관광·휴양부문 추진전략의 구체화 방안 논의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메가팀 합동워크숍	2.18~19	알펜시아리조트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 심의용 보고서 및 사업조사 검토와 향후 일정 협의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4차 사업 관련: 지자체 사용자 교육 워크숍	2.19 2.22	대구시청 제주도청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을 위한 KOPSS 활용방법 교육 KOPSS 시범지자체(대구시, 제주도) 도시계획 및 지리정보 등 업무담당자 참석
2009년 주거실태조사 워크숍	2.24~25	부산 대명리조트	2009년 주거실태조사의 표본추출과 실시과정, 실시결과에 대한 논의
동·서·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워크숍	2.26	10층 중회의실	지역개발사업의 국비지원 기준 논의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ITS 통합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표준플랫폼 개발(3차연도) 총괄 워크숍	3.3~4	한화리조트 제주	최종 연구성과물 구체화 및 홍보회 개최 세부계획 수립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 워크숍	3.17	3층 소회의실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한반도 철도망 수요분석 및 우선순위 연구 원내 연구진 워크숍	3.19	6층 회의실	한반도 철도망 수요분석에 관한 논의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 워크숍	3.24	노보텔 독산	연구 진행상황 발표 및 전문가 의견수렴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워크숍	3.25~26	부산 한화콘도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업무추진 및 2011년 과제 발굴
도로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제3차 5개년계획, 2차분) 관련 워크숍	3.25~26	정선하이원 리조트	사업후보노선(충청도, 강원도) 답사 및 2차연도 연구진행 사항 점검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공동연구기관 워크숍	3.31	8층 회의실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 협의 및 심의일정 논의
수도권 서남권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리 워크숍	4.1~2	제주 이츠홀펜션	사업신뢰성 및 사후 평가방안 수립 및 BTT 현장구축 사례조사
국도인프라·GIS연구본부 워크숍	4.8	대명비발디파크	교통·물류·ITS 부문의 2010년도 연구수행 전략, 2010년도 연구주제 발표
대도시권 발전방안 연구구역 전체 워크숍	4.12	3층 중회의실	대도시권 발전방안 1, 2, 3차 T/F 회의 종합 및 의견수렴
OECD·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 및 공동 전문가 워크숍	4.14	3층 중회의실	OECD 회원국들의 도시정책을 수평적으로 비교·고찰
2010년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워크숍	4.16	10층 중회의실	2010년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지원정책 방향에 관한 관계자 토론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 워크숍	4.16	안양 블루몬테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주제발표 및 논의
국도연구원·인천발전연구원 공동주최 경인 아라뱃길 주변 지역 기본구상에 관한 연구 제10차 정기워크숍	4.21~22	인천 골든스카 이리조트	부문별 구상안에 대한 협의, 조정 및 종합구상(안) 작성방향 검토
제5차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 워크숍	4.21~22	곤지암리조트	U-Eco City 사업단 단계평가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와 향후 계획 논의 및 특강 개최
주요 국책사업을 고려한 지역 발전전략 수립 워크숍	4.22	안양 블루몬테	지역발전정책 추진방안 발표 및 토론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3차연도) 단위 테스트베드(현장시험) 추진 총괄 워크숍	4.28~29	부산 센텀홀	단위 테스트베드 운영 시나리오, 투입 장비내역, 기대효과, 평가방안 등 단위 테스트베드(현장시험) 운영을 통한 기관별 연구수행 예정사항 최종 점검
국도연구원-국도해안부 남북 협력사업 발전연구회 공동워크숍	4.29	3층 중회의실	한반도 교통인프라 개발구상: 한반도 도로 네트워크 구축방향(발표 1), 한반도 철도 네트워크 구축방향(발표 2)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워크숍	5.4	서울 라마다호텔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정비전략 논의
한반도 서해안권 발전방향 원내 전문가 워크숍	5.6	6층 회의실	한반도 서해안권의 비전과 발전방향 논의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정립방안 연구 워크숍	5.7	토지주택연구원	토지정책 유형분류, 토지정책 주변여건 변화, 토지정책의 비전과 세부추진전략 도출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지방 대도시권 발전을 위한 신성장 산업기반 확보방안 워크숍	5.11	광주대	광주 대도시권의 신성장 산업기반 확보 관련 주요 현안 논의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 대응 도시구축방안 연구(II) 협동연구진 현장 워크숍	5.11~13	동의대	사례지역 현장조사, 협동연구진 간 연구방향 및 방법론 공유
주거안전망 구축 방안 연구 제1차 워크숍	5.13	10층 중회의실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주거지원 발전방안-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방 대도시권 발전을 위한 신성장 산업기반 확보방안 워크숍	5.18	대구경북연구원	대구 대도시권의 신성장 산업기반 확보방안 논의
한반도·글로벌국도전략센터,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 북한도시 연구위원회 공동주최 동북아의 미래와 한반도 발전전략 워크숍	5.20	3층 세미나실	동북아의 미래와 한반도 발전전략 논의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 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I) 협동 연구진 워크숍	5.20	블루몬테	연구방향 협의 및 중간 연구성과 공유
하천복원사업의 사회·경제성 평가기법(5차연도) 사업추진 워크숍	5.27~28	용평리조트	연구과제 간 공유자료 협의 및 효율적 역할분담 모색
제4차 부동산시장 정책워크숍	5.27	10층 중회의실	주택시장 변동과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 전망 논의
국도정보 통합활용을 위한 협의체 워크숍	5.27	8층 회의실	국도정보 통합DB구축 기본방향 보고 및 향후 추진과제 협의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 연구 워크숍	5.28	대전 K-Water 교육원	4대강 주변지역 활용 구상 논의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 내부연구진 워크숍	6.4~5	오쿠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어젠다 실행계획 도출
국도 대예측 연구(II) 관련 미래국도포럼 워크숍	6.14~15	인천 골든스카 이리조트	국도 분야별 이슈 및 연구추진방안 논의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 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I) 협동연구진 워크숍	6.10	안양 블루몬테	중간 연구성과 공유 및 토론
KTX 역세권 중심 지역특성화 발전전략 관련 TFT 합동워크숍	6.17~18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연수원	지역특성화와 교통거점화, 도시발전연계 전략 및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지방 대도시권 발전을 위한 신성장 산업기반 확보방안 워크숍	6.18	부산발전연구원	부산 대도시권의 신성장 산업기반 확보방안 논의
안양공공예술재단·국토연구원 공동주최 안양 소상공인 비즈니스 플랜 워크숍: Small Business Big Change	6.28	강당	안양시 뉴타운지구 내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및 경영개선 방안 논의
국토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 공동개최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기본구상 수립연구 제11차 정기 워크숍	6.29~30	홍천 비발디파크	기본구상 최종보고(안)에 대한 부문별 검토
2010년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제1차 워크숍	6.30	10층 중회의실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지원정책 및 연차평가 개선방안 토의, 2010년 디지털국토 엑스포 참여방안 협의
산업단지 수급관련 워크숍	6.30	강당	산업단지 수급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제도개선 사항 의견수렴
도로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연구(제3차5개년계획, 2차분) 기술부문 워크숍	7.8	안면도 롯데캐슬	도로사업 효율화를 위한 부문별 사업비 산출기준 협의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시범수립 연구 지자체 워크숍	7.14	3층 중회의실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 마련 및 추진방안 논의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정립방안 연구 관련 연구진 워크숍 / 협동연구기관 워크숍	7.22~23 7.30	춘천 오월당 안양 블루몬테	토지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토지정책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 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I) 협동연구진 워크숍	7.23	7층 회의실	중간 연구성과 공유 및 토론
2010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하계 워크숍	7.23~24	경기도 양평 설매재	2010년 상반기 성과 평가·하반기 본부 업무계획 논의
동북아협력시대의 한반도 서해안권 종합발전구상 연구 원내외 전문가 공동워크숍	7.28	10층 소회의실	한반도 서해안권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논의
제4차 녹색커뮤니티포럼 현장 워크숍	7.30~31	전북 진안군	포럼 핵심 회원별 중간보고 및 주제 조율, 사례지역 답사 및 관련 전문가 인터뷰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미니 워크숍	8.5	10층 회의실	최신 해외 연구동향 소개, 하반기 교통·GIS·ITS 분야의 과제 발굴 및 운영방향, 주택·토지 등 유관 분야와 협동연구 방향 논의
제2회 주거안전망 워크숍	8.6	9층 회의실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주제 1), 친서민 주거복지 개선방안(주제 2)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의 구축 연구 제1차 워크숍	8.13	안양블루몬테	UrbanSIM의 구조와 모델 특성, 분석사례에 관한 특강 및 토론 / UrbanSIM 교육 및 K-SIM 구성, 설계에 관한 토론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현황파악 및 진단 워크숍	8.16	국토해양부	각 연구진의 분석내용 검토 및 향후 방향 진단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 현지워크숍	8.20	창원시청	창원시의 건강도시 정책현황 검토 및 현장조사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 워크숍	8.24	원주시청	원주시의 건강도시 정책현황 검토 및 현장조사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 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연구 워크숍	8.25	베스트웨스턴 호텔	연구 진행사항 전반에 대한 자문 및 논의
녹색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SOC시설 디자인 향상 방안 연구 전문가 워크숍	8.25	서울팔래스호텔	좋은 SOC시설 디자인 원칙에 대한 논의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4차연도) 총괄 워크숍(1차)	8.30	10층 중회의실	4차연도 R&D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관별 연구 추진 계획 및 고도화방안 검토
국토 대예측 연구(II) 관련 워크숍(1차, 2차)	8.31(1차) 9.3(2차)	6층 회의실	주거 및 공간구조 분야 미래예측대상 논의(1차), 국토이용, 산업 및 교통분야 미래예측대상 논의(2차)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연구 워크숍	8.31	안양 블루몬테	강 주변지역 활용을 위한 전문가 특강 및 해외의 강 주변지역 활용 사례 발표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대책 연구 현장워크숍	8.31	경남도청	장애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토의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워크숍	9.1~2	홍천	2010년 하반기 본부 업무계획 및 개원 32주년 세미나 개최 계획 논의
신익주 - 단동의 연계발전 전망과 과제 한·중 워크숍	9.2	3층 중회의실	신익주 - 단동 공동개발 잠재력과 과제(발표 1), 국제협력을 통한 신익주 - 단동 공동발전 방향(발표 2)
수도권 종합 과제 보고서 검토 워크숍	9.2	안양 블루몬테	수도권 종합 과제의 최종보고서 내용 검토 및 향후 일정 논의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KOPSS) 구축 연구(5차) 착수보고회 및 교육워크숍	9.2	KINTEX	KOPSS 5차 사업 추진계획 보고 및 KOPSS 모형 지자체 활용방안 교육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제19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9.8~10	부산 코모도 호텔	한일 양국의 건설경제 동향 및 전망(주제 1), 한일 양국의 민간투자사업 동향 및 정책방향(주제 2), 한국의 녹색건설정책 및 동향, 일본의 자연재해에 있어서 건설산업의 역할(주제 3)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 연구 워크숍	9.10	7층 회의실	연구 성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메가팀 워크숍	9.13~14	과천 그레이스 호텔	최종보고서 내용 검토, 향후 추진사항 및 일정 협의 등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 정립방안 연구 워크숍	9.14	강당	녹색도시계획의 표준모델 마련 및 효과적 적용을 위해 참여 지자체의 의견수렴 및 효율적 추진방향 논의
주택도시·건설경제연구본부 워크숍	9.14~15	한국토지주택공사 속초연수원	개원 32주년 기념 본부별 세미나 개최 준비사항 점검 및 2010년 하반기 활동계획 이행내용 점검
녹색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SOC시설 디자인 향상 방안 연구 전문가 워크숍	9.15	서울팔래스호텔	좋은 SOC시설 디자인 원칙 논의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 연구(5차) 연구 워크숍	9.16~17	평창휘닉스파크	KOPSS 5차 사업 추진계획 및 업무분장 등(1일차), KOPSS 발전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회의(2일차)
KTX역세권 중심 지역특성화 발전전략 연구 T/F 합동워크숍	9.29	KINTEX	연구결과 발표 및 종합토론, 향후 추진일정 협의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용역 제2차 실무자 워크숍	9.29	서울유스호텔	과업의 주요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의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전략 정책 연구 공동연구진 제2차 워크숍	10.1	서울대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논의
혁신도시 지원제도 개선방안 워크숍	10.5	6층 회의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 논의
국토연구원·국토해양부 남북 협력사업발전연구회 공동워크숍	10.5	3층 중회의실	동북아협력과 한반도의 발전 전망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진 합동워크숍	10.5~8	9층 회의실	센터 수행 기본, 수시, 수탁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연구내용 협의
녹색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SOC시설 디자인 향상 방안 연구 전문가 워크숍	10.13	서울팔래스호텔	좋은 SOC시설 디자인 원칙 방향확정 및 개선방안 논의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대책 연구 연구진 워크숍	10.21~22	10층 소회의실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대책 논의
익산포항선(대구-포항 간) 외 1개 노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관련 워크숍	10.27	BEXCO	사후평가의 발전방향 논의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연구 워크숍	10.28	한국수자원공사	하천친화적 주변지역 활용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진별 발제 및 추진계획 논의
국토대예측 연구(III) 협동 연구진 워크숍	10.29	6층 회의실	미래 주거와 도시, 토지이용에 대한 전망 논의
국토정책시물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 원내·외 연구진 합동 워크숍	11.3~4	10층 소회의실	국토정책시물레이션 모형별 연구현황 점검 및 토론
접경권 초광역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협동 연구진 워크숍	11.5	10층 소회의실	접경지역 지역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논의
새만금 마스터플랜수립 관계 기관 합동워크숍	11.9	강당	세부 마스터플랜 최종(안) 마련 및 기관별 사업 추진상황 논의
Country Report 워크숍	11.10	강당	GDPC 시범사업 연수생들의 Country Report 발표 및 토론
도로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워크숍	11.22	8층 회의실	국토해양부 과제착수보고회의 사후평가 및 조치사항 협의, 국토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의 실무 연구진 간 업무협약의와 정보 및 의견 공유
2010년 산업입지정보망 운영 관리 워크숍	11.25~26	대명리조트 변산	산업입지정보망 활성화 방안 발표, 지역산업지구 시찰
차세대 공간정보지식 교류를 위한 워크숍	11.25~26	신진도 산림수련관	공간정보정책과 과제(주제 1), Gov. 2.0 시대의 국토공간 계획지원체계(KOPSS) 개발현황과 향후 과제(주제 2)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4차연도) 연계 시범사업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총괄 워크숍	12.2~3	용인 한화리조트	2011년도 연계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 세부일정 논의
산지관리 성과 향상을 위한 산지보전 및 개발제도 개선연구 관련 워크숍	12.3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의 공익기능과 산지의 토지 특성에 대한 논의
2010년 공간정보 거점대학교육 발전방안 워크숍	12.10~11	국립강릉원주대	사업운영실적 보고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세계은행-국토연구원 공동 워크숍 관련 공동 워크숍	12.13~14	서울팔래스호텔	도시화-개요 및 한국의 경험(Session 1) 국가별 발표 I(Session 2) 국가별 발표 II(Session 3) (패널토론) 진단을 통한 정책제언(Session 4)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2011년도 부동산시장 전망을 위한 연구진 합동워크숍	12.13~15	9층 회의실 · 평창 그린피아 콘도	2011년도 부동산시장 전망, 2010년 수행 기본과제 연구내용 조정 및 2011년 센터운영 방안 등 논의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 연구 워크숍	12.16	인양 블루몬테	연구성과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접경권 초광역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협동 연구진 워크숍	12.22~23	안면도	접경지역 지역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논의

2) 세미나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인프라 21 세미나	4.22 (제47차) 6.16 (제48차) 11.9 (제49차) 11.24 (제50차) 12.1 (제51차)	3층 중회의실 (제47차, 제50차) 3층 소회의실 (제49차) 8층 회의실 (제48차, 제51차)	외부전문가 초청 세미나: Dynamic Traffic Assignment 개발동향(제47차), 외부전문가 초청세미나: 플로리다 고속도로 I-95 가변차로 운영제도(제48차), 외부전문가 초청 세미나: 최근 미국의 교통정책 및 교통연구 동향(제49차), '선배 석학과의 만남' 기획 초청 세미나: 교통정책의 방향 - 과제와 전망(제50차), 외부전문가 초청 세미나: 로스앤젤레스 - 롱비치 항만 Clean Truck Program의 환경적·보건적 영향분석(제51차)
러시아 전문가 초청 세미나	3.25	3층 소회의실	동북아의 다자협력 전망과 러시아의 역할
한반도 포럼 제1차 세미나	3.29	10층 중회의실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
도시재생지원사업단 녹색커뮤니티 포럼 지원 세미나	4.16(1차) 5.20(2차)	10층 중회의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및 에너지복지(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와 관련한 발표 및 토론(1차), 지역커뮤니티계획: 여럿이마을 사례 및 주민 참여형 환경생태시설 계획 프로젝트 사례 관련 발표 및 토론(2차)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공공부문 공간정보표준 활성화 위한 세미나	5.11	3층 중회의실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공간정보사업 현황 및 공간정보 표준 적용사례 소개, 공공 공간정보사업의 공간정보표준 적용 활성화 방안 논의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지원 정책 세미나 및 협약식	5.28	3층 중회의실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의 전문화·특화도 측정지표 타당성 검토, 2010년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협약식 및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
KRIHS-METH 연구방법론 세미나	6.11	10층 소회의실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연구를 위한 다수준모형(Multi-level Model) 적용 사례 논의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과 산업 파급효과 분석연구 세미나	6.18	3층 중회의실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 현황과 전망 발표 및 토론
제31차 TR808 세미나	7.13	안양시청	안양시 U-통합상황실 현장견학
국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동주최 제14차 GIS 국제세미나	9.1	KINTEX	스마트 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
제2차 공간정보표준 세미나	9.2	KINTEX	기업·정부 간 표준화 정책과 기술 공유·홍보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시설기준 보완 연구 세미나	9.3	7층 회의실	신도시 학교시설 설립을 위한 학생 유발률 산정방법 발표 및 관계자 토론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전략 세미나	9.3	강당	해외도시개발 현황 및 거버넌스의 필요성(발표 1), 중국·싱가포르의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와 시사점(발표 2), 해외 도시개발 거버넌스 구축방향(발표 3)
여성과 아동·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 3개 연구기관 합동세미나	9.8	엘타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과 청소년이 살기 좋은 공간조성 방안 논의
해외 물류전문가 초청 세미나	9.10	3층 중회의실	Stronger, Cleaner and Fairer Port-cities(발표 1), 항만과 배후경제권의 통합적 개발방향: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전략을 중심으로(발표 2)
한일 국토이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세미나	9.17	도쿄 오피스 빌딩	양국의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련 법제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상호 협력방안 논의
국토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세미나 -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전개방향	9.27	3층 중회의실	장애인 주거실태와 정책방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토지정책 대응방향,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국토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세미나 - 글로벌시대의 창조적 한반도 발전전략	9.28	3층 중회의실	동북아 초국경협력과 초광역권 발전전략, 남북한 공동발전을 위한 창조적 국토전략, 남북한 접경지역 발전방안 논의

3) 간담회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한반도·글로벌전략센터 - 국토해양부 남북협력팀 연구간담회	1.8	국토해양부	2010년도 통일과 남북협력분야 연구방향에 관한 논의
비동력 교통수단 도입방안 전문가 간담회	1.28	8층 회의실	보행자 통행물, 자전거 택시, 지능형 전기자전거 등 신교통 기술의 도시재생 연계방안 분야 논의
건설업 고용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2.11	10층 중회의실	건설업 고용창출 방안에 대한 논의
도시재생 전문가 간담회	2.24	9층 회의실	일본 도시재생 경험의 교훈에 대한 논의
연구성과 확대 및 연구과제 발굴 간담회	2.26~3.5	국토해양부	2009~2010년도 연구성과 점검 및 2011년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수요 파악
대도시권 정책간담회	3.5	6층 회의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와 한국의 대도시권 정책에 관한 질의 및 응답
미래사회를 위한 도시정책 발전방안 간담회	3.9	7층 회의실	향후 도시정책 관련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에 관한 토론
경주 고도보존계획 간담회	3.9	경주고도보존회	경주 고도보존계획 기본구상 및 용적률거래제 발표 및 토의
국가공간정보정책 관련 한·일 간담회	3.17	10층 중회의실	양국의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GIS 활용 현황 토론
국토해양부-GIS연구센터 오찬 간담회	3.19	소청	주요 연구실적, 금년도 사업현안 논의
한국도시정책의 현황과 과제 OECD-KOREA 전문가 간담회	4.13	3층 중회의실	한국의 도시구조 및 녹색도시정책에 관한 발표 및 토론
미래 사회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발전방안 간담회	4.20	7층 회의실	도시재생정책 관련 현안문제 및 과제 발굴 등 논의
물류 전문가 간담회	4.20	8층 회의실	해외의 물류마케팅 기법, 복합운송체계 운영효과 논의
동북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4.23	6층 회의실	향후 동북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러시아 국립국 동공대와 협력방안 논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법제 개편 간담회	4.28	10층 소회의실	「도시재생활성화기본법(가칭)」 제정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교환 및 지원방안 논의
베트남 자원환경부 차관과의 정책 간담회	5.4	3층 세미나실	토지정책업무 벤치마킹 및 교류, 'Vietnam-Korea Week(2009.10 개최)' 행사 중 양국 차관 면담 시 한국 방문 요청에 대한 예방
SOC 투자방향 간담회	5.6	8층 회의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SOC 투자방향 논의
한국-네덜란드 간 자전거 정책 연구협력을 위한 간담회	5.12	삼천리자전거	네덜란드 CROW연구소와 연구협력, 전기자전거 및 공용 자전거 활성화, 자전거산업 육성 및 특화방안 논의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공간정보산업 관련 업계 간담회	5.17	10층 중회의실	공간정보산업의 발전동향 및 추진방향 논의
교통·물류부문의 연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5.18	대한교통학회	국내외 수송산업 및 거점시설의 서비스 경쟁력 확보 사례, 마케팅 성공사례 발굴방안, 연구회 구성방안 등 논의
(가칭) 도로정책연구회 조찬 간담회	5.26	과천 그레이스 호텔	도로관련 4개 연구기관과 국토해양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한 논의
중국 동북3성 인프라개발 전문가 간담회	5.26	중국 단둥 요동학원 조선반도 연구소	요녕성의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개발구상과 시사점 논의
해외인프라 건설 확대를 위한 오찬간담회	5.27	산타루치아	국토해양부의 해외건설업무, Global Infra Fund 발표 및 한국과 유럽·아프리카의 인프라 건설 경험 교환
도로정책관련 연구기관 정책 간담회	6.15	국토해양부	향후 20년간 도로정책 방향 논의
교통관련 법정계획의 체계분석에 관한 연구 정책간담회	6.30	8층 회의실	교통관련 법정계획의 발전방안
국토연구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간담회	6.28	아크로타워	교통·GIS·도시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논의 등
중국 경제발전연구회 공무원 내원 및 간담회	6.28	3층 중회의실	한국의 토지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전문가 간담회	7.1	10층 소회의실	KOPSS 개편을 위한 ArcObjects Extension 및 공개 S/W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물류거점시설의 복합운송 연계체계 향상을 위한 현장 점검 및 관계자 간담회	7.2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수도권 복합운송 거점시설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철도 연계 운송력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
복합교통수단 연계운송체계 구축 및 광역교통계획 연구 전문가 간담회	7.12	BEXCO	경부축과 부산권의 연계교통체계 및 주요 교통접점의 운영 특성 검토
교통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3/4분기)	7.20	대한교통학회	교통 관련 분야 간 법·제도 및 계획체계 개선방향
중국전문가 초청 간담회	7.20	6층 회의실	북경 거주 외국인의 거주지 선택과 공간적 집중연구-한국인 사례
국가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 교통수단 연계 운송 체계 구축방안 연구 항만·물류 전문가 간담회	7.29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	항만물류 연계구조 및 보조금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토의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연구 해외간담회	7.30	미국 LA한국문화원	로스앤젤레스강 복원계획 논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고도화 및 발전을 위한 간담회	8.17	10층 중회의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발전방향 논의
공간정보 지식 교류를 위한 간담회	8.25	3층 중회의실	분야별·기관별 정보화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연구기관 간 공간정보 기술 및 지식 교류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베트남 사회과학원(Vietnam Social Scientists) 초청 간담회	8.25	3층 중회의실	한국의 미래 도시계획 & 도시개발 방향 논의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4차연도) 관련 제15회 U-City 실무자 간담회	8.25	화성동탄 U-City정보센터	U-City 관련 계획지침의 수정·보완을 위한 토의
도로정책 간담회	9.1	국토해양부	도로투자 효율화 추진 방안
동남권 신공항 관련 전문가 간담회	9.3	10층 소회의실	각 분과별 평가방안 협의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2) 간담회	9.6	3층 중회의실	용적률거래제의 제도화 방안 및 용적률 가치 추정방안 관련 검토
북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9.16	6층 회의실	미래 남북한 산업분업 방향 논의
교통연구실 OB 오찬간담회	9.23	해우리	2011년도 주요 연구주제 발굴 및 현안과제의 연구 방향 지문
독일연방도시건축공간연구소 Dirk Gebhardt 연구위원 초청 간담회	10.12(1차) 10.13(2차) 10.14(3차)	6층 회의실	통일독일 20년의 국토변화: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1차), 독일과 폴란드의 초국경 협력사례 논의(2차), 유럽연합의 초국경 협력사례(발탁해 협력사례) 논의(3차)
한·중 물류 전문가 간담회	11.5	은행회관	한국과 중국의 물류체계 현황과 향후 연구방향 협의
중장기 중국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11.8	6층 작업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중장기 중국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논의
멕시코 D4100 Group Study Exchange(GSE)팀 간담회	11.23	3층 중회의실	국토연구원 소개 및 상호협력 논의
베트남 수상실 산하 주택 및 부동산시장중앙지도위원회 초청 간담회	12.1	3층 중회의실	저소득주택 건설 자원조달, 운영기관의 조직 및 형태 등에 관한 논의
2011년도 종합교통분야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12.7	한국과학기술회관	2011년도 종합교통정책 방향과 신규 연구과제 논의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2011년도 항만 물류 해양 분야 과제발굴을 위한 간담회	12.13	국토해양부	한중 물류 분야 연구 협력, 광양항과 여수EXPO 사업 지역 개발 연계방안 논의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III) 간담회	12.20	10층 중회의실	용적률거래제 및 매입제 도입방안에 관한 관련 부처 담당자들과의 토론
도시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적용 및 효과분석 연구 연구운영위원회 상정을 위한 간담회	12.21	7층 회의실	최종 연구성과에 대한 결과 논의

4) 설명회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용적률거래제 설명회	2.23	서울시청	서울시 문화재 보전 재원 마련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적용 방안 논의
2010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설명회	5.27	통계교육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설명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이론 교육 실시
해안마을 경관형성 시범사업 사전설명회	6.15	한국철도공사	해안권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사업추진계획 설명
경주고도보존계획 설명회	8.3	한국드라마작가협회	경주의 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고도보존계획
2009 장애인 주거실태 조사 결과 설명회	8.4	안홍준 국회의원실	장애인의 주거실태와 시사점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국토연구원·경주시 공동주최 경주 고도보존계획 고도육성 주민설명회	8.12	신라문화원	고도 보존계획의 개념 및 시범지구 선정에 관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
경주고도보존계획 고도보존 설명회	10.14	3층 세미나실	경주고도보존계획 시범지구 주민지원 사항 및 공간관리계획에 대한 전문가 지문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연구(5차) 대전시 설명회 및 교육	11.17	대전시청	대전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도입을 위한 활용부서 교육 및 의견 청취
2011~2015년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설명회	11.30	강당	2011~2015년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안)에 대한 주제 발표 및 의견 수렴

5) 토론회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국토비전 2050 수립연구 정책토론회	1.29	3층 중회의실	국토 2050 메가트렌드 및 초장기 구상(안) 논의
KTX 역세권 중심 지역특성화 발전전략 연구 토론회	1.26	서울역 승무사 업소	KTX 역세권 중심 지역특성화 개발 관련 지자체 및 공사 의견 수렴
제2차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	2.23	한국프레스 센터	이명박 정부 2년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성과와 과제: 이명박 정부 2년 성과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 등 외부시각에서 바라본 객관적 평가와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전문가 토론회	3.19	10층 중회의실	연구의 방향성, 공간정보이용 실태조사 필요성 및 분석 방법론 등에 관한 연구수행계획(안) 발표 및 의견 수렴
저탄소 녹색성장지향형 도시 계획 수립방안 토론회	3.22	서울교육문화 회관	연구성과의 객관적 평가 및 보완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전문가 토론회	3.26	3층 소회의실	연구 방향성, 공간정보이용 실태조사 필요성, 분석방법론 등을 포함한 연구수행계획(안) 발표 및 원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
재해정책 토론회	4.7	3층 세미나실	최근 재해양상과 21세기 재해대책방안(주제 1), 최근 세계 지진발생현황 및 한반도 지진 조기경보체계 구축방향(주제 2)
미래사회를 위한 도시정책 발전 방안 연구 제도개선 토론회	4.30	국토해양부	개발행위 연접제한 제도의 개선방안 관련 토의
GIS 기술동향과 우리의 대응 토론회	6.4	5층 회의실	미국의 Green GIS 사례와 SaaS GIS 소개
국토 대예측 연구(II) 관련 미래 국토포럼 전문가 교차토론회	6.30 (1차, 2차)	6층 회의실	국토미래 예측대상에 대한 국토분야 및 비국토분야 전문가 교차 토론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추진 방안(II) 관련 전문가 토론회	8.19	10층 중회의실	가칭 '첨단국토추진협의회' 구성을 통한 국가 GIS 등 공공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국토 추진에 관한 정책 및 연구사업 발굴
최저주거기준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8.26	10층 중회의실	최저주거기준 개선안에 대한 토론
용적률거래제 및 매입제 도입방안 전문가 토론회	10.5	강당	용적률거래제와 매입제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 정립방안 연구 토론회	12.13	서울교육문화 회관	녹색도시계획 관련 추진현황과 정책에 대한 발표 및 토론

6) 공청회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안) 공청회	12.10	한국토지주택 공사	총괄편, 권역편(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권역편(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을 위한 공청회	12.22	강당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관련 계획안 발제 및 논의
서울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용역 공청회	12.22	서울 시청 서소문별관	서울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 발표 및 토론

V 정기간행물 목차

1. 국토(339호~350호)	140
2. 국토연구(64권~67권)	150
3. 국토정책Brief(259호~305호)	152
4. 도로정책Brief(27호~38호)	154
5. 건설경제(62권~65권)	158

1. 국토(339~350호)

■ 339호(2010. 1)

국토시론 _ 온실가스 감축과 국토 발전 전략	정래권
짧은 글 긴 생각 _ 산을 떠난 백호, 도시를 호령하다	천진기
특집 : 온실가스 감축과 국토 정책방향	
1. 온실가스 감축배경과 정책방향	손옥주
2. 국내외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방향	김정인
3. 도시·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방향	김선희
4. 육상교통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전략	조남건
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방안	윤소원
6. 해외 온실가스 감축 동향	김수이
용어풀이 137 _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외	정소양
글로벌정보 _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위해 파리 동부에 과학기술거점 조성 외	
이슈와 사람 63 _ '대한민국',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 어운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조남건
세계의 도시 137 _ 도시 속의 노마드, 울란바토르(Ulaanbaatar)	강미나
가던 길 멈추고 _ 푸르른 숲	남궁산
◎-interview _ 장 로베르 피트(Jean-Robert Pitte): 음식의 지리학이 빚어내는 국토문화경관	이수진
해외리포트 _ 네덜란드 간척지의 경관 개발과 '간척지이론'	임동원
간추린소식 _ "그린 SOC로 지역경제 활성화" -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 개최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국토연구원 단신 _ 위싱턴대학교 건축도시녹색성장 세미나 및 MOU 체결 외	
KRIHS 보고서	
신성장산업의 입지패턴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권영섭 외 지음)	박영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 연구(신동빈 외 지음)	장 훈
지역통신 _ 새만금, 2조 원 투입 '분산형' 개발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19 _ 나제통문(羅濟通門)과 무주팔경	박영순

■ 340호(2010. 2)

국토시론 _ 국토정책의 新조류와 초광역개발권	박양호
짧은 글 긴 생각 _ 알파벳의 단순함이 소통혁명 낳았다	배철현
특집 : 유라시아·태평양시대에 부응하는 초광역개발권	
1. 초광역개발권 정책의 의의와 추진방향	김일평
2. 남해안 선벨트 개발의 비전과 추진전략	최영국
3. 동해안 블루벨트 개발의 비전과 추진전략	박형서
4. 서해안 골드벨트 개발의 비전과 추진전략	이훈용, 박경현, 김진범
5. 남북교류·접경벨트 개발의 비전과 추진전략	김영봉
6. 외국의 초광역개발과 지역발전 사례	최재현

용어풀이 138 _ 초광역개발권 외	윤영모
간추린 소식 _ 고창·부안갯벌 랍사르 습지 등록 외	
이슈와 사람 64 _ "새로운 국토창조에 나서겠습니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영표
세계의 도시 138 _ 옛 해양대국의 자취가 남아 있는 리스본(Lisbon)	이문원
가던 길 멈추고 _ 매화바다	남궁산
◎-interview _ 고이즈미 히데키(小泉秀樹):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과 마을만들기	김중은
정책해설 _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의 주요 내용	송석호
해외리포트 _ 일본의 미래국토전략: 국토 만들기 100년 디자인 제안	김선희, 이지원, 류태희
국토논단 _ 공간정보 품질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공간정보 수시갱신방안을 중심으로	최병남, 신동빈, 김미정
글로벌정보 _ 몽생미셀, 신비의 바닷길 복원 프로젝트 외	
지역통신 _ 국방대 논산 이전계획 최종 승인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2010년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미래전략 워크숍	권영상·박태성
베트남 건설부 장관 일행 방한	김수현
국토연구원 단신 _ 국토연구원, 2009년도 국민훈장 동백장(개인) 및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수상 외	
KRIHS 보고서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연구(교통부문)(이상건 외 지음)	이재준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저소득층의 이주패턴 및 정착방안 연구(임은선 외 지음)	서종균
KRIHS 서평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속(박인성 지음)	윤영선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20 _ 진안(鎭安)골 성씨산 성지(城址)의 마이동풍	박영순

■ 341호(2010. 3)

국토시론 _ 생활의 신3대 요소가 함께 가는 서민 주거대책	손경환
짧은 글 긴 생각 _ 아바타, 아바타라: 변신에 대한 열망	박순업
특집 _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1. 서민 주거문제와 정책과제	김진유
2. 최저주거기준 개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배순석
3. 사회통합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안	천현숙
4.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진정수, 전성제
5.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방향 - 홈리스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서종균
용어풀이 139 _ 보금자리주택 외	전성제, 이현지
간추린소식 _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세로 돌아서 외	
이슈와 사람 65 _ "서민 삶의 질 향상 위해선 수요자 중심의 정책 필요" - 하성규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중앙대학교 부총장	강미나

세계의 도시 139 _ 나일강이 선사한 비옥토, 탄타(Tanta)
 가던 길 멈추고 _ 봄날
 ©-interview _ 파올라 비가노(Paola Vigan): 도시 영역의 '새로운 모더니티'
 국토논단 _ 도시시설물 관리의 지능화를 위한 도전과 대응방안
 글로벌정보 _ 2012년 런던올림픽을 준비하는 프랑스 북부 칼레시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제2차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
 제2회 도로연구 성과발표 연찬회
 2010 한반도 연찬회 120
 제1차 해외도시개발 연찬회
 국토연구원 단신 _ '국토연구원-미국 메릴랜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간연구협력 간담회' 개최 외
 지역통신 _ 제2영동고속도로(경기 광주-원주) 사업승인 외
 KRIHS 보고서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토지시장 관리방안 연구(정희남 외 지음)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이상준 외 지음)
 KRIHS 서평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4·5·6: 환경수도 기타큐슈시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21 _ 진안의 사십특수(四十特殊)와 함미산성(含米山城)

안용진
 남궁산
 임동원
 김정훈, 임시영, 민경주
 이승욱
 고용석
 신혜원, 오지은
 조진철, 김수현
 김행중
 고일동
 배응규
 박영순

■ 342호(2010. 4)

국토시론 _ 다문화사회의 대두와 공존의 지혜
 짧은 글 긴 생각 _ 일등만을 기억하는 사회
 특집 :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국토정책과제
 1.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 쟁점과 전망
 2. 전환기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사회통합
 3. 외국인의 공간분포 특성과 국토·도시정책 과제
 4. 농촌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와 정책 개선방향
 5. '다문화 중심도시'의 이상과 현실: 안산시 원곡동의 경험
 6. 독일, 베를린의 다문화 정책 사례: 배제에서 통합으로
 용어풀이 140 _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외
 정책해설 _ 새로 제정된 「산림보호법」의 주요 내용
 이슈와 사람 66 _ "사회통합으로 이루는 새로운 한국: 경쟁과 협력의 공존" - 고 건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세계의 도시 140 _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동굴도시 괴뢰메(Greime)
 가던 길 멈추고 _ 봄소식
 ©-interview _ 마이클 파킨슨(Michael Parkinson): 영국의 지방도시 재생사업 전략과 과제
 해외리포트 _ 싱가포르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ABC Program

한경구
 조남건
 윤인진
 양기호
 박세훈
 박대식
 오경석
 정윤희
 정소양
 장관용
 이영아
 박정은, 서안신
 남궁산
 양도식
 이범현

글로벌정보 _ 태풍피해로 해안지역 도시개발 방식 논란 외
 간추린 소식 _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로 수도권 5곳 선정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2010 국토정책연구 종합연찬회
 제1회 한반도 포럼: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
 국토연구원 단신 _ '일본 도시재생 전문가 특강' 개최 외
 지역통신 _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 2011년 2월 착공 가능 외
 KRIHS 보고서
 주거다양성 제고를 위한 단독주택시장의 구조적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배순석 외 지음)
 KRIHS 서평
 KRIHS 기획총서: 글로벌시대의 녹색성장과 미래국토전략(박양호 외 지음)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22 _ 장수(長水)의 논개 생가와 의암사

이승욱
 신혜원, 오지은
 봉인식
 최진호
 박영순

■ 343호(2010. 5)

국토시론 _ 국토의 품격 제고를 위하여
 짧은 글 긴 생각 _ 급속한 사회변동과 가족의 미래
 특집 : 국토품격 제고를 위한 문화국토 조성전략과 과제
 1. 국토의 역사문화 역량과 국토정책 방향
 2. 국토품격 제고를 위한 문화국토 조성전략
 3. 문화재 정책의 전략과 과제
 4. 문화예술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5. 근대산업유산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안
 6. 해외 역사문화자산 관리사례와 시사점
 용어풀이 141 _ 고도보존계획(古都保存計劃) 외
 간추린 소식 _ 전국 총가구 교통비용 연간 약 45조 원, GDP의 4.3% 차지 외
 이슈와 사람 67 _ "역사·문화자산의 활용이 국토의 품격을 높입니다" -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세계의 도시 141 _ 역사적 도시에서 첨단 과학도시로, 케임브리지(Cambridge)
 가던 길 멈추고 _ 꿈의 세월
 ©-interview _ 에카르트 데게(Eckart Dege): 남북한의 공간적 변화와 통일한국의 미래전망
 정책해설 _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해외리포트 _ 글로벌 바이오 & 미디어 허브 건설을 위한 싱가포르의 원노스(One-North) 프로젝트
 글로벌정보 _ CEA(원자력발전연구원), 대안에너지 개발에 주력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신성장거점, 세종시 미래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재해정책 토론회
 '녹색커뮤니티포럼' 제1차 지원세미나

홍 철
 김혜영
 윤성원
 채미옥
 강경환
 김효정
 이순자, 장은교
 권태정
 김남희
 채미옥
 강현수
 남궁산
 이수진
 박문수
 김유리
 윤영모
 지승희
 류태희

새 지식 공유를 위한 전문가 특강: 독도살이 1년
 국토연구원 단신 _ '2010년 자랑스런 KRIHS인 시상식' 개최 외
 지역통신 _ 2015년까지 강원도형 전원마을 '시니어 낙원' 20여 곳 조성 외
 KRIHS 보고서

이문원, 최미선

동아시아 초국경적 지역 형성과 도시전략(김원배 외 지음)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김영봉 외 지음)

김익준
 소진광

KRIHS 서평

한 송이 연꽃의 말없는 가르침(황명찬 지음)

김영표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23 _ 장수향교(長水鄕校)와 타루비(墮淚碑)

박영순

■ 344호(2010. 6)

국토시론 _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홍수관리와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한건연

짧은 글 긴 생각 _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함인희

특집 _ 기후변화에 대비한 통합홍수관리

1. 통합홍수관리의 필요성과 개념
2. 기후변화에 따른 확률강수량의 변동성 및 과제
3.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취약성 평가와 사례 분석
4.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홍수위험관리 및 대응방안
5. 기후변화대응 통합홍수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관련 제도개선방안
6.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광섭
 김형수, 경민수, 김덕길
 배덕효, 이문환
 김병식, 윤석영

용어풀이 142 _ 재산인수 프로그램(Property Acquisitions Program) 외

심우배
 정지범
 지승희

정책해설 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오세정

이슈와 사람 68 _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상기술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 전병성 기상청장

김선희

세계의 도시 142 _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의 도시, 베른(Bern)

고용석

가던 길 멈추고 _ 기행

남궁산

©-interview _ 비시 사냐(비시 사냐(Bish Sanyal): 발전을 위한 협력적 노력

강현수

해외리포트 _ 샌프란시스코의 광역교통기구

김종학

국토논단 _ 영국 도시계획체계의 개혁과 새로운 자치구계획 LDFs의 시사점

양도식

기고 _ 중국 토지정책의 정치적 배경과 추진과정

박인성

지역통신 _ '2010 광주세계관광엑스포' 폐막 외

글로벌정보 _ 유럽 47개국에서 '박물관의 밤' 행사 열려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2010 AURI 건축도시포럼 '우리시대의 좋은 도시 · 주거공간읽기'
 '주거안정망 구축방안 연구' 제1차 워크숍

김지희
 이현지

2010 AURI 도시건축정책포럼

권재중, 이정실

제1차 다문화 도시정책 포럼

정소양

국토연구원 단신 _ 'KRIHS 브랜드대상' 시상식 개최 외

KRIHS 보고서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 연구 - 토지이용부문(왕광익 외 지음)
 수요 지향적 주택공급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김근용 외 지음)

조규영
 이창무

KRIHS 서평

알기 쉬운 국토연구방법론(국토연구원 엮음)

문 채

간추린 소식 _ 물류단지 개발 행정절차 투명해진다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24 _ 침령산성(砮嶺山城)과 장수팔경

박영순

■ 345호(2010. 7)

국토시론 _ 국토공간의 뉴코드, '활동친화적 건강도시'

박양호

짧은 글 긴 생각 _ 뽀글뽀글 거품등지 집을 짓고 사는 거품벌레

정부희

특집 : 국토의 새로운 콘텐츠 : 건강도시

1. 건강도시의 개념과 동향
2. 미국의 건강도시 연구와 정책 동향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계획 방향
4.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보건계획 방향
5.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

남은우, 문지영
 이차남
 김은정
 강은정
 김 영

용어풀이 143 _ 건강도시 외

강민규

지상중계 _ 공간과 경제

송병락

이슈와 사람 69 _ "대한민국, 아름다운 국토와 건강한 삶터로 만들겠습니다" - 정명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민범식

세계의 도시 143 _ 캐나다 속의 프랑스 문화, 퀘벡(Quebec)

조남건

가던 길 멈추고 _ 단비

남궁산

©-interview _ 덩스바오(丁四保):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체제 개혁

김석주

해외리포트 _ 필리핀 마닐라시 우회고속도로의 건설과 시사점

정일호

글로벌정보 _ 오를레앙시 트램공사구간 고고학 유적 발굴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제48차 인프라 21 외부전문가 초청세미나
 미래국토포럼

박종일
 박정호

국토연구원 단신 _ '제11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 시상식 개최 외

간추린 소식 _ 우측보행, 7월부터 본격 시행 외

KRIHS 서평

문화의 경제학(박광순 지음)

채미옥

KRIHS 보고서

녹색교통수단 활성화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효과 분석(김종학 외 지음)
 국토 대예측 연구(I)(이용우 외 지음)

김익기
 권원용

지역통신 _ 대구시, 근대 역사와 함께하는 '어반갤러리 가이드맵2' 제작 의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25 _ 금산 개삼터 개삼각과 칠백의총(七百義塚)

박영순

■ 346호(2010. 8)

국토시론 _ 미래국토전략 - 지구촌 '수도국가' 를 설계하자
 짧은 글 긴 생각 _ 두두미마을에서의 만나절
 특집 : Grand Vision 국토

문병호
 손세실리아

1. Grand Vision 국토 2040 수립 배경과 개요
2. 국토 2040 메가트렌드와 국토 장기구상
3. 한반도 중심의 글로벌 메타경제권 형성 및 미래 첨단녹색산업 융·복합도시 육성
4. 육해공 통합 글로벌 게이트웨이 구축
5. 세계 최고 매력의 녹색국토 창조
6. 한반도 변영기반 구축을 위한 국토전략

윤성원
 김선희
 이원섭
 정일호
 김세용
 이상준
 백경진

용어풀이 144 _ 글로벌 메타경제권(Global Meta-Economic Region) 의
 이슈와 사람 70 _ "국민의 꿈을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 광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세계의 도시 144 _ 지속적인 성장과 환경의 도시, 오스틴(Austin)
 가던 길 멈추고 _ 여행

김동주
 정주철
 남궁산

©-interview _ 레이 장(Lei Zhang):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통행수요관리(Traffic Demand Management: TDM)
 해외리포트 _ 일본 도시재생기구의 '르네상스 계획'
 정책해설 _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
 글로벌정보 _ 영국 새 정부, 공간계획 및 정책 부문 구조개혁 단행

정선영
 김중은
 정연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2010 그린국토포럼
 제9회 한국형 국토발전 현장포럼
 국토연구원 단신 _ '국토연구원-일본 히로시마대학교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간 연구협력협약(MOU)' 체결 외
 지역통신 _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보훈선양과 평화의 관광지로 조성 외

오선영
 백경진

KRIHS 서평

2009 국토정책Brief 모음: 창조와 통합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만들기(국토연구원 엮음)
 2010 도로정책Brief 모음: 미래국토 가치 창조를 위한 녹색도로 만들기(국토연구원·도로정책연구센터 엮음)
 2010 KRIHS 번역총서 1: 도시경쟁력과 기후변화(라미아 카말차우이·알렉시스 로버트 엮음)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7: 스마트 성장 개론(스마트 성장 네트워크 엮음)

계기석
 강정규
 이재준
 손동욱

KRIHS 보고서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분야 정책과제(김명수 외 지음)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 연구(천현숙 외 지음)

이동근
 백혜선

간추린 소식 _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0.8% 거주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26 _ 백령산성(栢嶺山城)과 비단 뽕밭(錦山八景)

박영순

■ 347호(2010. 9)

국토시론 _ 국가공간정보, 이제 세계인이 공유하는 시대다
 짧은 글 긴 생각 _ 여름, 산, 사람들
 특집 : Gov 2.0 시대의 국가공간정보 공유와 활성화 정책

김영표
 황명규

1. Gov 2.0 시대, 공공정보 공개 및 활용 촉진 방향
2.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3. 국가공간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4. 디지털융합공간 구현을 통한 첨단국토 실현방안
5.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의 활성화 방안

전종수, 오달수
 주현중
 김은형
 정문섭, 조춘만
 고준환

용어풀이 145 _ 유비쿼터스 공간정보(u-GIS) 의

이슈와 사람 71 _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선진일류국가"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계욱
 박재길

세계의 도시 145 _ 진화하는 경제·문화도시, 빌바오(Bilbao)

김태환

가던 길 멈추고 _ 마른 풀잎

남궁산

©-interview _ 오구치 타카시(小口高): GIS를 활용한 지형연구의 진보

이소희

해외리포트 _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주택정책 동향

김선용

국토논단 _ 영국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제도의 지역정책적 시사점

변필성

특별기고 _ 새만금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춘순

지역통신 _ 광주 '2015 U대회 선수촌' 건립 계획 확정 외

글로벌정보 _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우수거점 정책 도입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지역소상공인 지원과 도시경제 활성화 국제심포지엄

류태희

국토연구원 단신 _ 박양호 원장,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2011년 등재 외

책을 펴내며 _ Korea's Territorial Policy(국토연구원·코리아헤럴드 엮음)

박양호

KRIHS 서평

2010 KRIHS 번역총서 2: 신성장을 위한 도시재생전략(리처드 맥게히·제니퍼 베이 엮음)

김영환

KRIHS 보고서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박세훈 외 지음)

양기호

간추린 소식 _ 「교통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27 _ 칠갑(七甲)의 고장 청양(靑陽)과 서정리 구층 석탑

박영순

■ 348호(2010. 10)

국토시론 _ 서민이 살기 좋은 커뮤니티 만들기과 사회권 실현

하성규

짧은 글 긴생각 _ 박꽃이 필 때면

조정제

특집 : 서민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1. 서민 중심 도시공간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2. 친서민적 도시재생정책의 추진방향
3. 서민 주거실태와 정책과제
4.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5. 서민의 보육·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
6. 영국의 사회경제적 도시재생: 맨체스터 사례

용어풀이 146 _ 사회적 배제 외

이슈와 사람 72 _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

세계의 도시 146 _ 아프리카의 에텐, 빅토리아(Victoria)

가던 길 멈추고 _ 인생

©-interview _ 벤자민 코이프만 : ITS의 시대적 변화와 이슈들

국토논단 _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지자체 실태조사와 지역개발 관련 법령 분석

해외리포트 _ 미국의 계획지원체계 UrbanSim 개발동향과 시사점

글로벌정보 _ 2030년까지 연안토지 25% 국유화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제19차 한일건설경제워크숍: 한일 양국의 건설경제 동향과 산업정책 이슈

3개 국책 연구기관 합동세미나: 여성과 아동·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

제14차 GIS 국제세미나: 스마트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

2010 제3회 AURI 건축도시포럼 '우리 시대의 좋은 도시·주거공간 읽기'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전략 세미나

국토연구원 단신 _ 박양호 원장, '한국경제 60년사 국제 컨퍼런스' 에서 국토분야 발표 외

지역통신 _ 광주 북구 발전사업 본격적으로 추진 외

간추린 소식 _ 보급자리주택지구 계획수립 체계화된다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28 _ 우산성(牛山城)과 청양청남명승팔경(靑陽靑南名勝八景)

■ 349호(2010. 11)

국토시론 _ 글로벌 건설시장,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짧은 글 긴 생각 _ 행복한 발전 김영표

특집 _ 글로벌 건설시장 진출전략과 과제

1. 국토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발전 방향
2.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
3. 해외건설 5대 강국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
4.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사업 전략
5. 자원개발 연계 해외건설시장 진출전략과 과제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시장 동반진출 방안

유성용

양재섭, 장남종

강미나, 천현숙

박신영

김 영, 최진도

이영아

전성제

김근용

이임무

남궁산

김승범

차미숙, 손동글

김대중

배유진

주희선

신정아, 정진도

김지희

권대한

박영순

이재균

이상훈

이상호

권혁진

장현승

김성일

손태홍

용어풀이 147 _ 희토류 외

이슈와 사람 73 _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원조를 통해 하나 된 지구촌을 건설하겠습니다"

-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세계의 도시 147 _ 아프리카와 지중해의 중심, 튀니스(Tunis)

가던 길 멈추고 _ 겨울나무

©-interview _ 신시아 니키티: 이용자 중심의 도시 공공공간 계획 및 설계 전략

해외리포트 _ '섬과 예술'의 융합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바다의 회복: 일본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추진 사례

정책해설 _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정의 주요 내용

글로벌정보 _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한 전국 대중교통의 날 행사 개최 외

국토연구원 개원32주년 기념기획

I. 세미나 시리즈 지상중계

1.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통합과 도시·지역발전 심포지엄
2. 부동산정책의 현황과 전개방향 세미나
3. 글로벌 시대의 창조적 한반도 발전전략 세미나
4.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도시 발전방향 세미나
5. 스마트 국토통합인프라 구축 전략 세미나

II. 기념행사 스케치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컴팩트 시티'에 관한 OECD-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국토연구원·국토해양부 남북협력사업발전연구회 공동워크숍: 동북아 초국경 협력과 한반도의 미래

2010년도 한·중 국토정책 국제세미나: 저탄소 성장과 국토정책

한·일 국제공동워크숍: 한국과 일본의 국제협력 파트너십 - 경험과 과제

제1·2·3차 독일 전문가 초청 간담회: 통일 독일의 초국경 협력사례

제3회 한반도 포럼: DMZ 인접지역의 지리공원 조성

국토연구원 단신 _ 박양호 원장, '한국도시설계학회 공로상' 수상 외

지역통신 _ 대구에 세계 최대 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가동 외

제15회 전국 초등학교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발표 및 수상작

KRIHS 서평

녹색도시 창조의 새로운 관점: 저소득층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과 사례

간추린 소식 _ 수도권 어디서나 서해까지 자전거로 간다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_ 의약품 빈 병 처리의 문제점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29 _ 보령의 충청수영지(忠淸水營池)와 오천성(鰲川城)

■ 350호(2010. 12)

국토시론 _ 녹색국토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녹색커뮤니티 만들기

짧은 글 긴 생각 _ 눈높이 지역발전

특집 _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커뮤니티 조성

김민철

김성일

이민부

남궁산

윤윤정

김선희, 백경진

김유인

이승욱

김선지

백승현

오선영

구민상

박근현

신혜원

배유진

이백진

신혜원

신혜원

김선희

이선화

박영순

손경환

김정호

1.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녹색커뮤니티 조성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2. 도시의 녹색활동을 통한 녹색커뮤니티로 거듭나기
 3. 석유시대를 대비하는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 저탄소 녹색마을 정책을 중심으로
 4. 녹색커뮤니티, 마을 그 이상의 가치를 넘어서
 5. 녹색커뮤니티 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6. 녹색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거버넌스 구축방향

용어풀이 148 _ 에너지자립마을 외
 이슈와 사람 74 _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한국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을 확산시켜겠습니다"
 -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세계의 도시 148 _ 절망의 땅에서 기회의 도시로, 라고스(Lagos)
 가던 길 멈추고 _ 고향 눈

@-interview _ 버트 반 베이: 탄소감축을 위한 물류정책방향
 해외리포트 _ 미국의 최저주거기준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
 글로벌정보 _ 레지온별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지원정책 추진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GDP센터 시범사업 교육연수 프로그램' 주요 내용
 '지역의 핵심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실천전략' 국제 세미나
 국토연구원 단신 _ 2012년 EAROPH 세계대회 한국 유치 및 박양호 원장 공로상 수상 외
 지역통신 _ 옛 미군부대 하야리아 부지 내 보존건축물 선정 외
 간추린 소식 _ 2018년, 마산에서 부산(부진)까지 35분만에 간다 외
 2010년 국토 총 목차(통권339호~350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30 _ 보령의 읍성(邑城)과 명승이십경(名勝二十景)

민범식
 진영호
 이유진
 김성균
 이미홍
 이양주
 류태희

 김동주
 서상현
 남궁산
 김남석
 천현숙

 조진철, 김일석
 주희선

 박영순

광역수도 요금결정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김종원, 한동근
 수로 폭 확대를 통한 방재기능 강화 및 하천생태계 복원 : 유럽의 하천복원 최신 동향을 중심으로 권태정, 심우배
 제조업 공해방지투자의 비용분석 민승기
 수도권 화물자동차 통행분포를 위한 도착지선택모형 : 집계중력모형과 실증비교 김한수, 박동주, 김찬성, 이강대, 김경수
 신도시 개발이 도시공간구조에 미친 영향 :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인구 및 고용분포 변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김진유

■ 65권(2010.6)

주택규모 규제의 시장효과에 관한 연구 : 수도권지역 아파트시장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와 가격효과를 중심으로 장경석, 허윤경, 김형진
 향방 민간투자사업 유지보수비 추정모형 구축 이종필, 강동진, 노정현
 인적자본 외부효과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 위계적 선형모형의 응용 조성철, 임업
 부동산개발 예측모형의 적용방안 연구 : 서울시 강북지역을 사례로 강창덕
 A Systematic Area Prioritization Proces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the DMZ and the CCZ 김진오
 초·중·고등학교 수요가 서울시 구별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 거주이주시기를 중심으로 김정민, 이의준, 박대권
 도시기반과 건축물 이체적 정비 도입 방안 연구 : 일본의 입체환지와 일체적시행방식 적용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조승연, 김주진
 도로 공간 활용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이춘용, 노정현
 공업용수의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가치 추정 어승섭, 유승훈
 항공교통을 통한 도시 간 국제적 상호작용 패턴 이호상
 도시재생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 우리나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와 도시재생사업에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진영환, 김진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사업방식별 입주자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연구 : 서울시 사례구역을 중심으로 오재은, 이주형, 한기호

■ 66권(2010.9)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 저감을 위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도입방안 연구 이춘용, 노정현
 교통약자의 유형별 통행특성 및 통행수단 선택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 : 경산시를 사례로 윤대식, 신길수
 주택정책을 통한 실물경기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박재룡, 유정석
 수도권 자가점유 및 점유성향의 변화 특성, 1995-2005 진홍철, 강동우, 이성우
 관광개발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요인 및 위험중요도 분석 : 금융기관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민용, 최승담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원거주민의 이주패턴과 거주형태 변화 분석 임은석, 유재윤, 김걸
 모바일인터넷 이용자의 공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폴라루우징 인터넷 이용자를 중심으로 황주성, 박윤정
 도시공공시설의 적정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 : 파주시를 중심으로 박환용, 정일훈, 김철중
 비도시지역 관리방안으로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이삼수, 유현지

■ 67권(2010.12)

주택수요 평가지표의 개발과 적용 연구 진미윤, 김경선

2. 국토연구(64~67권)

■ 64권(2010.3)

비도시지역 내 공공주택단지 밀도 및 옥외공간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임동빈, 장옥련, 김홍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결정요인 분석 서수복
 하천 치수관리를 위한 상·하류 지역 간 비용배분 이충성, 유재영, 여규동, 이상원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박세훈, 정소양
 SERVQUAL 법을 이용한 교통수단별 서비스 품질 평가 김중학, 김익기
 수도권의 난개발지수 산정 및 통행패턴과의 연관성 분석 최은진, 허희범, 성현근, 김웅철

신도시 인접개발 유형에 따른 주거환경 특성 분석
 서울시 아파트 가격분위별 가격결정요인의 변동 추이에 관한 연구
 임대료-주택가격 비율 결정요인이 주택가격과 임대료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 대전, 대구의 사례
 도로사업 투자우선순위 평가의 PROMETHEE 기법 도입 방안 연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역의 주택공급 및 주택관리에 관한 고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회계 개선방안 : 2008 SNA지침 발간을 계기로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한 인구이동 흐름 분석

서원석, 안태선
 임재만
 한동근
 김정화, 최기주
 이현정, 윤정득
 옥동석
 이희연, 노승철

3. 국토정책Brief(259~305호)

호	발간일	제목	저자명
259	1.4	기후변화대응, 도시가 관건이다	김현식, 박정은
260	1.18	주민 중심의 창조적인 도시재생프로그램 미니애폴리스의 NRP와 시사점	정윤희
261	1.18	일본의 국토 모니터링과 지표체계	유재윤, 임은선, 구정은
262	1.25	세계적 과학기술 삼각벨트: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사례	권영섭, 구정은
263	2.1	일본의 녹색건설 정책	김민철
264	2.8	동북아 경제·사회적 부(富)의 공간적 공유·축적·확산을 위한 초국경적 지역협력 방향	서민호
265	2.22	녹색 첨단도시 오스틴의 녹색성장관리 프로그램	김선희
266	2.22	創新2050: 과학기술과 중국의 미래 - 중국의 미래 과학기술 전망 연구	김선희, 박인성
267	3.2	해외 상업용부동산시장 침체와 금융위기 재연가능성 진단 - 미국과 영국의 상업용부동산시장 동향과 전망	이수옥
268	3.8	국가공간정보 품질확보 전략	최병남, 박종택
269	3.15	산지이용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	진정수, 손학기
270	3.22	미국의 녹색주거 및 커뮤니티 정책	천현숙
271	3.29	SOC 투자사업의 수요예측 신뢰성 제고방향 - 수요예측의 낙관적 편향(Optimistic Bias)	정일호
272	4.12	다문화사회의 주택정책과 도시재생전략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경험과 시사점	김은란
273	4.19	新성장거점, 세종시 미래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김영표
274	4.26	주거다양성 제고를 위한 단독주택 수급 활성화 방안	배순석
275	5.3	자전거 이용환경 Up-grade 및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컨퍼런스	임영태, 류재영
276	5.10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적인 적응방안	심우배
277	5.24	시민참여형 녹색생활 실천방안 - 토론토시의 '20/20 캠페인'	조남건

호	발간일	제목	저자명
278	5.24	신광역주의(New Regionalism)와 광역계획 - 시애틀 대도시권광역계획의 사례와 시사점	박재길
279	5.31	U-City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동빈, 안중욱
280	6.7	Green GIS기술 적용사례와 시사점	서기환
281	6.14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싱가포르 3M 전략	김중학
282	6.21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의 성장전략과 시사점	이동우
283	6.28	국격향상을 위한 국토경관 관리전략	김명수, 박정은
284	7.5	수요에 즉시 대응하는 서비스로서의 GIS 활용 - SaaS, Cloud Computing의 부상(浮上)과 시사점	서기환
285	7.12	미국 쇠퇴 산업도시의 도시경제 재생전략과 시사점	이왕건
286	7.19	수변공간은 건강복지인프라 - 뉴욕 브롱스강 사례와 시사점	김은정
287	7.26	미국 스마트성장 평가모델의 유용성과 시사점	김선희
288	8.2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국의 다지역간 협약 제도 추진동향과 시사점	김태환
289	8.9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4Ts 전략 사례와 시사점 - 미국 마이애미 HOT 사례를 중심으로	정일호, 박종일
290	8.16	최첨단 바이오·메디컬 허브 전략사례와 시사점 - 싱가포르 원노스(One-North) 사례를 중심으로	이진희
291	8.23	자연친화적 산지이용기준 및 활용방안	진정수, 손학기
292	8.30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그린하이웨이 파트너십 - 교통인프라와 환경의 상호협력 사례	안흥기
293	9.6	통일20년 동북지역의 국토변화와 시사점	이상준
294	9.1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위험관리 전략 - 호주 Partnership Victoria의 위험관리 사례와 시사점	윤하중
295	9.20	해외의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시책과 시사점 - 일본, 영국, 미국 사례	차미숙
296	9.27	캄보디아 국가공간정보인프라 현황 및 구축방향	김걸, 정진도
297	10.5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시스템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왕광익, 노경식
298	10.11	지역의 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국의 첨단산업 육성 사례	윤영모
299	11.1	역사·문화 길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례: 강원도 영월 김삿갓길과 일본의 시코쿠순례길	김진범, 박정은
300	11.15	프랑스의 범정부 국토정책 담당조직, DATAR가 새롭게 재출범	김광익
301	11.22	EU의 문화·창조산업(CCIs) 정책: 새로운 지역성장동력	박경현
302	11.29	호주의 사례가 주는 하천관리정책 변화에의 시사점	박태선
303	12.6	[국토 셀] 특집 시리즈 1 - 국토 품격 제고를 위한 "국토 셀" 특성화 모델: 광양 청매실농원 사례	이용우
304	12.13	고품격 도시발전을 위한 유럽의 교통정책 방향 -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서	김혜란
305	12.20	영국 수변 도시공간 재생사례 - 런던 템즈게이트웨이 광역 재생프로젝트	이순자

4. 도로정책Brief(27~38호)

■ 27호(2010.1)

칼럼 _ 사람, 자전거, 자동차의 상생발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해외정책동향

1. 현대식 회전교차로(Roundabout) 도입 선결조건
2. 일본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
3. 중국의 도로개발과 자원조달 체계
4. 도로에 역(驛)을 만들면 어떨까? 일본 도로역!

이슈 _ 고속도로 영업소 진입교통량 조절 시행

간추린 소식

1. 공공건설사업 사후평가 강화한다
2. 시범시행 중인 "우측보행" 호응도 높다

장명순

이용재

이백진

이정현

고용석

팽우선

■ 28호(2010.2)

칼럼 _ 도로는 국민 생활과 경제의 근본

해외정책동향

1. 교통부문 배기가스 산정모형의 해외동향
2. 유럽 친환경혼잡통행료 운영실태 및 효과
3. 일본의 대형 과적차량 대응 정책과 시사점
4. 싱가포르 교통정책의 대국민 홍보전략: LTG 소개

이슈 _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간추린 소식

1. 제2회 도로연구 성과발표 연찬회 개최
2. 2012년까지 12% 향상된 최고 품질의 녹색 고속도로 건설

조용주

김기준

이윤미

이백진

김종학

박용석

■ 29호(2010.3)

칼럼 _ BTO 도로사업의 운영성과 분석 방향

해외정책동향

1. 고속도로 도로표지체계 개선방안
2. 해외 도시의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정책
3. 미국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교통부문의 해법
4. 전환기의 일본 도로정책: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을 중심으로

이슈 _ SOC 투자성과평가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간추린 소식

1. 한국길포럼 2010년 정기총회 개최
2. 차량기반 멀티센서 측량시스템 실용화 연구 완료 및 시범사업 추진

김성수

최기주

고준호

이찬영

김종학

김성일

■ 30호(2010.4)

칼럼 _ 회전교차로 도입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전문가 역할

해외정책동향

1. 도로투자의 경제학과 합리적 정책방향
2.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3. 도로시설의 자산관리 강화 필요성
4. 일본의 공공참여(PI)형 도로사업 추진

이슈 _ 교통관련 법률체계 발전방향

간추린 소식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연구센터" 연천 건립
2. 4월부터 교통 신기술 지정·지원

신부용

김성환

유동현

유인균

김종학

박준환

■ 31호(2010.5)

칼럼 _ 지하도로 건설의 합리적 추진방향

해외정책동향

1. OECD 주요국 녹색세제의 특징 및 시사점
2. 외국의 도로유지관리업무 민간 발주 사례와 시사점
3. 일본의 하이웨이 오아시스 운영 사례와 시사점
4. 샌프란시스코 Bay Area 광역교통기구와 시사점

이슈 _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체계 개선방향

간추린 소식

1. 내년부터 도로투자 예산 확 줄인다
2. SOC시설 입찰 때 CO₂ 저감기업 우대

고승영

이원형

윤덕근

권영인

김종학

안태훈

■ 32호(2010.6)

칼럼 _ 桑田碧海의 중국 도로 발달

해외정책동향

1. 도심지 대신도 터널의 해외 건설사례 및 시사점
2. 해외 대도시권의 도로공간 운영 합리화: 녹색교통 및 도심 활성화 기능 강화
3.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의 도로설계 적용
4.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회복을 위한 도로인프라 투자계획

이슈 _ 탄력적인 고속도로 통행요금제도 도입 필요성

간추린 소식

1. 고속도로·국도 물류거점을 잇는 '지선' 제도 신설: 국토해양부, 도로법령 개정안 시행 계획
2. 국토해양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개정

박기풍

김창용

정진규

조혜진

고용석

이기영

■ 33호(2010.7)

칼럼 _ 미래 사회의 도로설계 방향

최재성

해외정책동향

1. 미국 교통정책의 고위험분야(High-Risk Area) 관리제도와 이슈
2. 미국의 주행세 도입 논란
3. 터널 기계화 시공의 해외동향 및 국산화 전망
4. 미국 교통인프라 혁신방향

이용택
이찬영
이성원
박형일
강갑생

이슈 _ 대규모 지하도로 건설 추진의 문제점

간추린 소식

1. 경부고속도로 개통 40주년 및 제19회 도로의 날 기념, “도로정책 토론회” 개최
2.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 개량사업 확대·투자평가 시스템 강화

■ 34호(2010.8)

칼럼 _ 환경친화적 도로운영체계의 도입

노정현

해외정책동향

1. 독일의 생활도로 조성기법
2. 해외 도로성능 시험장 현황 및 국내 도입 필요성
3.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의 개발도상국 대상 연수 프로그램과 시사점: 인프라 분야
4. 태양열 고속도로

김경석
김정호
이백진
정상미
남궁성

이슈 _ 공공정보 개방과 교통정보

간추린 소식

1. 도로시설 투자 감축속도 빨라진다.
2. 2008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대비 4.4% 감소
3.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 35호(2010.9)

칼럼 _ 대중예술 속의 고속도로는 왜 철도보다 멋지지 않을까

이영미

해외정책동향

1. 전기자동차 도입에 따른 도로부문의 대응방안과 추진과제
2. 해외의 경제성평가 편익항목과 시사점
3. 전기자동차 시대에 대비한 도로정책
4. 미국 녹색도로등급제의 특징과 시사점

김규욱
정성봉
강원의
송민겸
송병록

이슈 _ 기본에 충실한 민간투자사업 강화 노력 필요

간추린 소식

1. WEF / IMD ‘2010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2. ‘교통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 36호(2010.10)

칼럼 _ 도로부문 R&D 투자방향

신혜경

해외정책동향

1. 전기자동차산업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 해외 도로시설물 경관디자인 동향과 개발방향
3. 외국의 친환경적 방음벽 개발 동향 및 시사점
4. 도로안전성 제고 실천방안: EU의 RANKERS 사업

원춘진
손원표
김홍래
김혜란
최창호

이슈 _ 교통시설투자평가의 화물 시간가치 개선 방향

간추린 소식

1. 도로교통연구원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소통 토론회」 개최
2. 국토해양부 2011년도 예산안 발표

■ 37호(2010.11)

칼럼 _ 통일시대에 대비한 新교통정책의 과제와 방향

최연혜

해외정책동향

1. 교통량을 고려한 정체 관리전략 및 발전방향
2. 국내·외 야생동물 교통사고 저감대책
3. 외국의 복합포장 개발동향
4. 압전기술을 이용한 도로의 에너지 하베스팅 - 이스라엘 개발사례

송상규
김경일
김형배
양충현
손원표

이슈 _ 도로경관디자인 평가체계 도입의 필요성

간추린 소식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 도로기술 국제 세미나」 개최
2. 2015년 제25차 세계도로대회 한국에서 개최

■ 38호(2010.12)

칼럼 _ 녹색성장시대 도로의 역할

이용재

해외정책동향

1.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과학화 서둘러야
2. 국내·외 도로제설기술 개발 동향 및 개발 방향
3. 일본과 프랑스의 교통기반시설 디자인향상 방안
4. 일본의 도로개발 방향과 시사점

강영종
이승환
차주영
김준기
도명식

이슈 _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수준 예측

간추린 소식

1. 한국길포럼 도로정책 토론회 개최: “미래지향적 지방관리도로의 발전방향”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안)” 공청회 개최

5. 건설경제(62~65권)

■ 62권(2010. 봄호)

건설경기진단

- | | |
|----------------------------------|---------------|
| 1. 2010년 상반기(1/4) 건설경기 동향 진단 | 김성일, 김민철 |
| 2. 2010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및 소비자인식 동향 전망 | 이수욱, 최정임, 황관석 |
| 3. 2010년 상반기 해외건설 동향과 전망 | 손태홍 |

특집 : 국가 재정사업 효율화 방안

- | | |
|--|-----|
| 1. 공공건설사업의 평가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훈기 |
| 2. 공공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방안 | 이상호 |
| 3. 재정사업 효율화를 위한 공사비 산출 방안 | 이유섭 |
| 4. 국가 재정사업 효율화 방안 ④ 공공건설사업 평가의 실효성 증진 방안 | 장철기 |

지상중계 _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0-제1차) 조진철, 김일석

해외건설정보 _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회복과재투자법(ARRA)관련 도로 및 철도 투자계획 고용석

주요 건설통계 이승훈

■ 63권(2010. 여름호)

건설경기진단

- | | |
|-------------------------------------|---------------|
| 1. 2010년 상반기 건설경기 동향 및 2010년 하반기 전망 | 김성일, 김민철 |
| 2. 2010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및 소비자인식 동향 전망 | 이수욱, 최정임, 황관석 |
| 3. 2010년 상반기 해외건설 동향 및 하반기 전망 | 손태홍 |

특집 : 건설산업 하도급 실태와 상생발전 방안 모색

- | | |
|---------------------------------|-----|
| 1. 건설하도급 거래실태 및 제도개선 | 임은규 |
|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현황과 보완방향 | 이종광 |
| 3. 건설기능인력의 고용안정 및 근로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 심규범 |
| 4.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실태 및 개선방안 | 이충렬 |

지상중계 _ 건설인과 KIRHS 조찬 연찬회(2010-제2차) 김상훈

해외건설정보 _ 브라질 건설시장 투자계획 및 진출방안 이승훈

주요 건설통계 이승훈

■ 64권(2010. 가을호)

건설경기 진단

- | | |
|---------------------------------|---------------|
| 1. 건설경기 동향 및 2011년 전망 | 김성일, 김민철 |
| 2. 2010년 3·4분기 부동산시장과 소비자 인식 동향 | 이수욱, 최정임, 황관석 |
| 3. 2010년도 해외건설 동향 및 진단 | 손태홍 |

특집 : 건설생산기반 진단 및 대응

- | | |
|-----------------------------|-----|
| 1.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및 고용안정 대책 | 권오형 |
| 2. 건설기계 수급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인섭 |
| 3. 건설용 골재의 수급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 최민수 |

4. 건설자재(시멘트) 시장동향과 대책 조재우

지상중계 _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0-제3차) 박대근

해외건설정보 _ 미국과 홍콩의 건설산업 파트너링 연구 동향과 적용 사례 최기환

주요 건설통계

■ 65권(2010. 겨울호)

건설경기 진단

- | | |
|---------------------------------------|----------|
| 1. 2010년 건설경기 동향 및 2011년 건설경기 전망 | 김성일, 김민철 |
| 2. 2010년 부동산시장 동향과 2011년 부동산소비자 인식 전망 | 이수욱, 최정임 |
| 3. 2010년 해외건설 동향 및 2011년 전망 | 손태홍 |

특집 : 2011년 건설업계의 당면과제 및 대응

- | | |
|----------------------------|-----|
| 1. 종합건설업의 당면과제 및 대응방안 | 홍갑표 |
| 2. 전문건설업의 현안과제 및 업계의 대응 방안 | 김종진 |
| 3. 설비건설업의 현안과제 및 업계의 대응방안 | 김경희 |
| 4. 해외건설업계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 | 김종현 |

지상중계 _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0-제4차)

해외건설정보 _ 베트남 건설시장 투자환경과 진출전략 배유진

주요 건설통계 이승훈

VI 부서 소개

1. 원장·부원장	162
2.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165
3.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173
4.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183
5.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191
6. 글로벌개발협력센터	201
7. 기획경영본부	203

President & Vice President

박양호 원장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국토 및 지역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건설교통부장관 자문관, 국토연구원 부
원장, 한국지역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통
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
회 위원이다. 주요 연구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방향」
(2009), 「세계경제 흐름과 창조적 국토발전」(2009), 「제4차 국토종합계획
연구」(1999),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연구」(1991), 「첨단산업과 지역발전
방향」(1987) 등 다수가 있다.



손경환 부원장

경제학 박사,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및 부동산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부
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2008),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사업」(2007),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2007), 「부동산정책의 효과분석체계 구축 연구」(2006), 「국민경제 안정
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안 연구」(2005),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
반정비 연구」(2004), 「부동산거래신고가격 적정성 평가모형 개발」(2004),
「주택종합계획(2003~2013) 수립 연구」(2003), 「외국의 민간임대주택 공
급정책 연구」(2003) 등이 있다.



02

c h a p t e r VI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

National Territorial Planning &
Regional Research Division

연구본부 소개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는 국토계획, 지역계획, 한반도와 동북아지역계획 등 주요 공간계획과 관련된 장단기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는 첫째, 국토의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종합계획 및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광역경제권계획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수도권 및 산업입지 등 다양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며, 셋째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북한 연구 및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생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분석 방법론과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는 창의적·실용적·미래지향적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수도권, 산업입지, 한반도 및 글로벌 전략센터를 두고 있으며 센터 간, 개인 브랜드 간 융합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전략센터

Center for Mega Region Studies

-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수립
- 지역 간 협력, 갈등 조정 연구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수도권전략센터

Center for Capital Region Policy

-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수도권 규제 및 정책 연구

산업입지전략센터

Center for Industrial Location Policy

-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산업클러스터 형성 및 촉진 방안
- 기타 산업입지 및 지역경제 발전 방안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

Center for Global Territorial Research

- 한반도 국토 개념 디자인 및 계획 수립
- 통일시대를 대비한 토지, 주택, 교통, 환경, 산업입지, 지역 및 도시발전과 관련된 장단기 정책 개발
- 지역협력 증진을 위한 한반도 국토구조 전환 전략
- 동북아시아 도시 및 지역발전 비교 분석



연구진 소개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지역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방안 연구」(2009), 「미래 도시권 육성전략」(2009),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과제」(2008),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미래상」(2006), 「국토공간구조 개편과 국가경쟁력」(2005), 「Innovative Clusters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2003), 「지식정보화시대의 산업입지 군집체계」(2002) 등이 있다.

이용우 선임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University of Bonn
지역계획, 미래연구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재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국토 대예측 연구(I, II)」(2009, 2010),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2010),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설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2007),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II)」(2006), 「고속철도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2006),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 개발 연구」(2006), 「서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2005),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2005) 등이 있다.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Tsukuba
현재 수도권전략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2010),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2009), 「수도권규제가 인구·산업의 공간적 재배치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2008), 「분권화시대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연구: 국제비교분석을 중심으로」(200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재원 확보방안 연

구」(2005)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류승한 연구위원

지리학 석사, 동국대학교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안」(2010), 「산업입지 수요공급실태분석」(2009), 「동남권 도시용지 수요전망」(2008), 「클러스터를 활용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2007),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례편」(2007), 「자립적 지역 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II)」(2005), 「산업입지 제도개편 방안 연구」(2005)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상준 선임연구위원

공학 박사,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도시개발 및 북한 국토·도시 분야 전문가로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와 독일 연방건설청의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전략 연구」(2009),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연구」(2008),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I)-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2007),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도시정책과 시사점」(2006), 「남북인프라 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2005),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2004), 「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2003) 등이 있다.

양하백 선임연구위원

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지역계획, 자원 및 환경계획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2007),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7), 「제주 광역도시계획」(2007),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수립 연구」(2006) 등이 있다.

서태성 선임연구위원

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개발정책, 관광개발계획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기획경연본부장,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분야 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국토공간계획 평가 및 과제」(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200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연구」(2004), 「2010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2003),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2), 「남해안국제관광벨트 개발계획 연구」(1999),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 수립 연구」(1998)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박형서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Liverpool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2011),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2010),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2010), 「공공갈등지표 설정과 활용방안」(2007), 「공공사업 지자체 참여제도 방안」(2006),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구축연구」(2006), 「한일 해협권 통합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2005),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 전략」(2005), 「공공시설 입지 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연구」(2004) 등이 있다.

김태환 선임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수도권 및 지역계획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연구」(2010), 「수도권의 성장관리를 위한 시범모니터링 및 연차보고서 연구」(2009),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모형 구축방안(II)」(2009),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2008), 「지역개발사업의 통

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I)」(2008),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추진방안」(2005) 등이 있다.

이원섭 선임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국토계획 및 지역정책 분야 전문가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지방대도시권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2010), 「주요국의 국토해양 정책동향 분석 연구」(2009), 「주요국의 국토해양 정책동향 분석 연구」(2009),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방안」(2007),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 II, III)」(2005, 2006, 2007) 등이 있다.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국토 및 지역계획, 산업 입지 및 클러스터, 첨단산업과 지역정책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지방대도시권 발전을 위한 신성장 산업기반 확보방안 연구」(2010), 「신성장산업의 입지패턴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2009),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 방안」(200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방안」(2007),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산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6),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지역 간 기능분담방안 연구」(2004), 「지역별 지식기반산업과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 테크노파크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2003),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2002), 「시범 테크노파크사업과 지역혁신체계 구축」(2001), 「지역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잠재력 제고방안」(2000) 등이 있다.

김광익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성신여자대학교

도시 및 지역정책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재생전략 연구」(2009),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2008), 「도시권 확정 연구」(2007), 「도시화지역 확정을 위한 시스템개발」(2006),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추진과정 연구」(2006),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권 공간구조의 변화와 정책대응방향」(2006), 「대도시 산업구조변화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2001) 등이 있다.

김천규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자원 및 환경경제), 中國人民大學

지역계획, 자원 및 환경경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중국·북한·러시아 접경지역의 산업·기반시설 개발잠재력 및 대응전략 연구」(2011),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 조정방안 연구」(2008), 「중국의 행정구역 분류 및 기초통계」(2008),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1999), 「국토이용계획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1998),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1997) 등이 있다.

김창현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국립경상대학교

국토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2009),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2008), 「농촌지역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2007),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2006),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2005),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방향」(200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2002), 「공공시설부담금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I, II)」(1995, 1996) 등이 있다.

문정호 연구위원

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94년 박사학위논문 「Planning Against the Leviathan」으로 John Dyckman Award를 수상했다. 이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을 거쳐 2003년부터 국토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공정한 국토·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기획 연구」(2011),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법적분쟁의 실태와 대처방안」(2008),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체계 정립연구」(2007),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 II)」(2005,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2007), 「제주 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2007), 「참여정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2006) 등이 있다. 현재 「접경권 초광역 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 중이다.

차미숙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지역정책 전문가로서 현재 지역발전위원회 정책기획 전문위원, 국토해양부 규제개혁위원, 충남투융자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2010),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I, II)」(2008, 2009),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 방안 연구」(200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2002),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조사연구」(2001),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기법 및 적용연구」(2001)를 수행하였다. 저서로는 「지역발전론」(2003), 「유럽의 지역발전정책」(2003), 「新지역발전론」(2009)이 있다. 국민훈장 목련장(2006)을 수상하였다.

장철순 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개발 전문가로 산업입지 및 낙후지역 정책 등 지역계획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8~2010년 동안 기획경연본부 연구기획조정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로는 「새만금사업제도 개선 및 주요 국책사업을 고려한 지역발전전략 수립 연구」(2010), 「임대전용산업용지 공급활성화 방안 연구」(2010), 「광주시 개별입지 공장 및 물류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2009),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연구」(2008), 「광주·전남 국가산업단지개발 타당성 검토 연구」(2008), 「개성공업지구 단계별 관리운영계획」(2007), 「산업단지 관리·지원 효율화방안 연구」(2007), 「서남권 낙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기초조사 연구」(2007),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 혁신방안 연구」(2007),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 연구」(2007) 등이 있다.

이순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환경정책 및 자원관리), Colorado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로는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2010),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9), 「새만금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 조정방안 연구」(2008),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법적분쟁의 실태와 대처방안」(2008),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연구」(2008), 「근대 산업유산의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연구」(2008),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2007), 「공공사업 갈등지표 설정과 활용방안 연구」(2007),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2006) 등이 있다.

변필성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도시계획 부전공), University of Arizona
주요 연구관심 주제는 지역발전정책, 기업투자와 지역발전, 사회적기업과 낙후지역 발전이다. 「영국의 쇠퇴·낙후지역 기업투자 활성화 제도와 정책적 시사점」(2010), 「지역경제 살리기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2009), 「지방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캐피탈 활용방안」(2009), 「영국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2008), 「영국 지역정책 변화 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2008)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강호제 연구위원

도시정책학 박사, Cleveland State University
지역경제개발, 산업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GIS 공간분석 전문가로 「수도권 스마트성장관리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연구」(2011), 「서해안 고속도로의 지역성장 효과분석」(2007), 「준산업단지 실행방안 연구」(2006),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2006),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 III)」(2006, 2007),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 등의 연구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이집트 토지개발정책 평가감시능력 강화를 위한 이집트 파견교육(2008)을 수행하였다. 2005년 미국서부지역학회 최고논문상(Springer Award)과 Honorable mention for Tiebout prize를 공동 수상하였다.

이성수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주로 동북아 및 북한지역 개발을 연구하며 주요 연구로는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2006), 「한일 해협권 통합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2005),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

(2004),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2003) 등이 있다.

변세일 책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경북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KTX를 활용한 국토재창조 방안」(2011), 「지역경제 살리기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2009), 「국토 대예측 연구(I)」(2009),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분석 연구」(2008),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개선방안 연구」(200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클러스터 촉진방안」(2007), 「2007년도 균형발전영향평가 연구용역」(2007), 「2006년도 균형발전영향평가 연구용역」(2006),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2005),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의 집합적 파급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200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2004), 「ICT 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에 관한 연구」(200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2003), 「지역별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2003), 「지역 간 산업연관표 작성연구(III)」(2003) 등이 있다.

서연미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산업단지 입주가능 서비스업 조정 방안 연구」(2010),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 정책 방안」(2010), 「산업용지 수요·공급 분석 연구」(2010),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2010), 「자연보전권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2010),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2009), 「기후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I)」(2009), 「기후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2008), 「국토관리 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I)」(2008), 「기존의 산단 등 재정비 사업방식별 시행방안 연구」(2008),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

(2007), 「경기도 산업클러스터 발전 기본 구상」(2007), 「실리콘밸리에 입지한 한국계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국지화」(2007) 등이 있다.

김은정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주요 연구로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2010), 「Effects of Built Environmental Factors o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Disparity」(2008), 「남북경협 활성화시대에 대비한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2008),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2008), 「Health Disparity and the Built Environment: Spatial Disparity and Environmental Correlates of Health Status, Obesity, and Health Disparity」(2007), 「The Impact of Alternative Tax Systems on Regional Disparity in Korea」(2005) 등이 있다.

박경현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2010),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재생 전략 연구」(2009),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2007),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2007),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6),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2005), 「ICT산업의 지역 간 기능분담 방안 연구」(2004) 등이 있다.

임상연 책임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Tokyo, Urban Engineering, Ph.D 과정 중.

02

이재용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The Ohio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시공간분석, GIS, 지역계획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 (ucity legal system and supporting policies)」(2008~2010) 등이 있다.

장은교 책임연구원

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2010),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방향」(2010),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구상 조정방안 연구」(2008),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분쟁의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2008),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타당성조사·기본계획 및 선도사업 세부실행기본계획 수립연구」(2007),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연구」(2007)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윤영모 연구원

도시정보공학 박사과정 수료, 안양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2010),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2009), 「규제자유지역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8),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체계 정립방안 연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2007) 등이 있다.

구정은 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방안 연구」(2009),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 DB 구축」(2009), 「신성장산업의 입지패턴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2009),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방안」

(2008) 등이 있다.

강민규 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2010),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I)」(2010), 「주요국의 국토해양 정책동향 분석 연구」(2009), 「주택의 자산효과에 의한 가계소비 변화」(2009) 등이 있다.

박정호 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주요 연구로는 「국토 대예측 연구(II)」(2010),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한 인적자본의 외부효과 분석」(2009), 「경로분석을 이용한 인구이동 결정요인들 간의 인과구조」(2009) 등이 있다.

03

c h a p t e r VI

녹색국토 · 도시연구본부

Green Territory & Urban Research Division

연구본부 소개

녹색국토 · 도시연구본부는 국토의 녹색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경과 문화 · 역사를 고려한 국토 및 도시정책을 연구 · 개발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기술과 국토분야를 융합한 녹색성장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환경 관리, 수자원 · 방재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토의 역사성 확립 및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문화 · 역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삶의 질과 의미에 대한 재평가와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개발,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제도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브랜드 간의 자연스러운 융 · 복합화를 통해 국토환경, 도시, 문화부분 연구의 품격을 높이고 보다 실천력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

Center for Territorial Policy & Green Growth

- 저탄소 녹색성장형 국토관리 정책 · 제도 연구
-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역량강화 · 현장지원

도시재생전략센터

Center for Urban Regeneration Policy

- 도시재생,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관련 정책연구
- 도시재생,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만들기 역량강화 지원 협력

문화국토전략센터

Center for Cultural Territorial Policy

- 국토 문화가치 제고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조성 및 활용 관련 정책연구
- 국토 역사 · 문화 보전 및 조성관련 공간계획 수립

수자원정책 · 방재국토연구센터

Water Policy & Territorial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Center

- 수자원정책 수립
- 하천관리 정책
- 도시 및 국토방재연구
- 기후변화 적응정책연구



연구진 소개

민범식 선임연구위원

도시공학 박사, University of Tokyo

현재 녹색국토 · 도시연구본부장이며, 「수변도시 조성 전략 연구」(2010), 「미래도시정책 방향연구」(2008),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2007),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2004), 「성남판교지구 택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수요 분석연구」(2003), 「기성시까지 정비기법에 관한 연구: 주거지역을 중심으로」(2002) 등 도시개발과 기성시까지 환경정비 분야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김선희 선임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현재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이며, 국토미래 전망, 녹색성장, 국토환경 및 어메니티 계획,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연구(I)」(2010), 「국토비전 2050」(2009),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연구」(2009), 「저탄소 녹색도시의 녹색성장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2009), 「국토관리 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 연구(I, II)」(2008, 2009),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2007),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2007),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2006),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평가 기준설정 및 적용방안 연구」(2004), 「자원절약적 국토발전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이왕진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현재 도시재생전략센터장과 도시재생지원사업단장을 겸무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지원사업」(2011), 「지역의 사회적 자산 활용형 도시재생전략에 관한 연구」(2011), 「뉴타운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 연구」(2009), 「도시용지의 공급확대에 따른 계획적 활용 방안」(2008), 「도시 주변부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2007),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6),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2005),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2005),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 연구」(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채미옥 선임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국토연구원 토지 · 주택연구실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문화국토전략센터 소장, 국토해양부 중앙직적위원, 환경부 중앙자연환경보전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정책, 역사문화도시조성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경주 고도(古都)보존계획」(2011), 「지방대도시권 역사문화역량강화방안」(2011),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 방안 연구(I, II)」(2009, 2010), 「용적률가치에 기초한 개발이익 통합환수방안」(2009), 「부여 고도(古都)보존계획」(2009), 「공주 고도(古都)보존계획」(2009),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조성 방안」(2007),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연구(I, II)」(2006, 2007),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 방향」(2005),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김종원 선임연구위원

자원경제학 박사, West Virginia University at Morgantown

환경 및 수자원 정책분야, 계량분석 전문가이며, 주요 연구로는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연구」(2010),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총괄)」(2009), 「환경용수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정책과제」(2007), 「하천복원사업의 사회·경제성 평가기법」(2007), 「물 수요관리평가모형 구축방안 연구」(2006),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2005), 「하천 유역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 전망과 정책과제」(2004), 「용수재배분을 통한 가용수량확보 방안(I, II, III)」(2004, 2005, 2006) 등이 있다.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Princeton University

「베트남 국토이용정책 개선방향 연구」(2010), 「The Role of Festivals in the Reproduction of the Urban Lifeworld」(2006), 「이집트토지개발정책평가 감시능력 강화사업」(2006),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전략 수립연구」(2005), 「도시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2001), 「제주국제도시 기본 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2000)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역·도시실장을 역임하였고,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정석희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주요 연구로는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연구」(2010), 「김포 양촌신도시 개발구상 연구」(2007), 「판교신도시 개발구상 및 타당성 분석」(1999), 「경부고속철도 역 및 역세권개발 기본구상」(1997), 「부산시 도

시기본계획」(1992), 「일산 신도시개발사업 기본 계획」(1991) 등이 있으며, 도시계획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서울시 건축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국토해양부 신도시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재길 선임연구위원

공학(도시계획) 박사, University of Tokyo

「한국의 도시화 과정과 정부 정책에 관한 연구」(2010), 「공간계획의 정책계획기능 제고에 관한 연구」(2010),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관리 기능 제고 방안 연구」(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2005), 「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역·도시연구실장, 연구혁신훈분장, 기획경영분부장을 역임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 및 토지이용규제평가단장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영국 선임연구위원

조경학 박사, Agricultural University of Norway

지속가능한 국토 및 환경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연환경관리, 생태관광 및 경관계획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I, II, III)」(2008, 2009, 2010),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2007), 「국토의 자연 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2006),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 연구」(2002)가, 저서로는 「지속가능한 국토와 환경(법문사, 공저)」(2011), 「녹색성장의 길(공저)」(2009), 「지속가능

한 관광(일신사, 공저)」(2001) 등이 있다.

최병남 선임연구위원

경영정보공학 박사, KAIST

연구분야는 GIS 및 MIS로서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과 파급효과 분석 연구」(2010),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2007),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 연구(I)」(2006, 2007),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2005), 「시공간 통합 국토시물레이션모형 개발 연구(I, II)」(2005, 2006),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활용 방안 연구」(2004),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관리 연구」(1998~2004),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연구」(2003), 제2차 및 제3차 「국가GIS 기본 계획 수립 연구」(2000, 2005) 등 다수가 있다.

박은관 연구위원

환경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베트남 국토이용정책 개선방향 연구」(2010),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2005), 「택지개발사업지구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2004),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2004),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2001) 등 주로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해왔다.

박태선 연구위원

수공 및 환경공학 박사, 한양대학교

하천 및 수자원 분야 전문가로서 수자원정책, 자연형하천, 농업용수도, 내륙주운, 간이상수도, 치수경계성 분석, 댐 사후평가 등 수자원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한국수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관련 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섬진강댐 재개발에 따른 댐사용권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2009),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한 하천유지관리방안 연구」(2009), 「진위천 일대의 친환경 상생발전 연구용역」(2009) 등이 있다.

양진홍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중앙대학교

국토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건강문화생태회랑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시·군)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연구(I)」(2010),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2004), 「구미국가산업단지 지원기능 강화방안 연구」(2004),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1) 등이 있다.

김상조 연구위원

환경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방안 연구」(2010), 「미래도시정책방향연구」(2008),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기준 연구」(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2005~2006), 「지방분권에 따른 국토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2005), 「남해군 시범 군 기본계획 수립」(2004), 「도시기본계획 결정권한 이양에 따른 제도보완방향 연구」(2003)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관기 연구위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자체평가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주택·도시정책이며, 특히 도시의 물적 기반이 형성되어 온 과정과 요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II)」(2007), 「토지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2004),

「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 제도발전 방안 연구」(2004), 「택지개발지구 자족성 강화방안 연구」(2004), 「도시개발의 재정영향분석 연구」(2002),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달성연구」(2002), 「도시경쟁력비교분석연구」(1998) 등이 있다.

박세훈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도시계획 전공), 서울대학교
도시정책·계획 분야의 전문가로, 세계화와 도시발전, 도시문화와 역사, 도시개발의 정치경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2010), 「동아시아 초국경적 지역협력과 도시전략」(2009), 「마을만들기 참여 거버넌스의 비교분석: 제도주의적 접근」(2009) 등이 있다.

심우배 연구위원

공학 박사, 홍익대학교
수자원, 국토·도시방재 및 기후적응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환경부·기후변화적응포럼 위원, 한국수자원학회 수문분과위원, 하천협회 정책개발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방안 연구(I)」(2010),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 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 II)」(2009, 2010), 「4대강 살리기 관련 외국사례와 시사점 연구」(2009), 「천변저류지 조성 촉진 및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2008), 「재해에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도시홍수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6), 「현장중심적 접근을 통한 수해 특성 분석 및 정책과제」(2006), 「효율적인 빗물관리방안 연구」(2005) 등이 있다.

이문원 책임연구원

도시공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국토자원 활용(연안 및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이전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출판팀장을 역임하였으며,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2007), 어촌체험마을 건설탕사업 및 사무장채용 지원 사업 심사위원(2007), 녹색성장위원회의 생생도시평가단 평가위원(2009)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독도의 가치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2010), 「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원 분포지도 작성」(2009),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 II)」(2008, 2009), 「낙동강프로젝트 기본계획수립 연구」(2008),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 전략 연구」(2007), 「군사시설 이전적지 활용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연구」(2007) 등이 있다.

김성수 책임연구원

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 전문가로 주로 도시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다수의 신도시개발계획에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보행과 대중교통중심의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설계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자원절약적 국토발전방안 연구: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교통에너지 소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2003),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수요분석 연구」(2003), 「에너지 효율적 도시형태에 관한 연구」(2002), 「울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2002),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상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2002) 등이 있다.

김진범 책임연구원

도시·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Tsukuba

주요 관심분야는 계획이론, 커뮤니티플랜, 도시재생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2010),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 연구」(2009),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 제도 도입 방안」(2008),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례편」(2007), 「제주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2007), 「광역권 개발계획의 평가와 진단」(2006),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2005), 「일본 키타큐슈시의 공항 선택선호 의식에 관한 연구」(2004), 「일본 도시계획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4), 「필리핀 다바오시의 불법점거거주자와 이전거주자의 거주환경 선호의식」(2003), 「기혼 취업여성의 출산행동에 미치는 보육시설의 효과」(2002) 등이 있다.

김형진 책임연구원

현재 Texas A&M University, Urban and Regional Planning, Ph.D 과정 중.

왕광익 책임연구원

도시공학 박사, University of Tokyo, 지역계획학 석사,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III)」(2010),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개발 및 시범도시 기본 구상 연구」(2009),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2009), 「저탄소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 토지이용부문」(2009),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II)」(2009),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2008), 「기후변화 대응 국토공간 계획 평가 및 과제」(2008), 「미래 도시정책방향 수립 연구」(2008),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방재도시 연구」(2008),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 연구」(2008), 「도시용지 공급확

대에 따른 계획적 활용방안 연구」(2008),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 온실 가스 IPCC 신규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기획연구」(2008)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과 도시공간구조 분석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김은관 책임연구원

지역과학 박사, Cornell University
주요 관심분야는 창조경제, 인적자본, 지역개발이다. 주요 연구 및 프로젝트 실적으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시설기준 보완 연구」(2010), 「국제회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2010),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방향 연구(II)」(2010), 「한국의 도시화 과정과 정부 정책에 관한 연구」(2010),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2009), 「신성장산업의 입지 패턴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2009),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전략편」(2008),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계획 제도 도입 방안」(2008),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07), 「정보직종과 미국 대도시권 사회경제적 환경」(2006) 등이 있다.

정윤희 책임연구원

도시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2010),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 연구」(2009),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전략편」(2008),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례편」(2007), 「건설교통관련 공공갈등 매뉴얼 구축에 관한 연구」(200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2005), 「도시계획결정과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2004),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2004), 「지역발

03

전을 위한 거버넌스체제 구축 및 운용방안」(2003),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2002)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범현 책임연구원

도시설계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연구」(2008), 「충주 기업도시 개발타당성 평가」(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2006), 「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2006),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의 집합적 파급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2005), 「성남관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수요 분석 연구」(2003)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중은 책임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Tokyo, Urban Engineering, Ph.D 과정 중.

한우석 책임연구원

수자원 박사, University of Utah
주요 연구분야는 수문분석 및 기후변화 방재이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 「Assessment of Satellite-based Rainfall Estimates in Urban Areas in Different Geographic and Climatic Regions」(2011),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방안 연구」(2011), 「기후변화 적응 도시 조성방안 연구 - 도시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방법 정립 및 취약성평가(1차연도)」(2011),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취약성 분석과 적응방안 - 국민감성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1차연도)」(2011), 「이상기후에 대비한 하천의 체계적 관리 방안」(2011), 「북한 수자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수자원개발전략 및 추진과제」(2011),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방안 연구(I) - 연

안도시 대응방안 사례연구」(2010), 「Determining Effective Impervious Area for Urban Hydrologic Modeling」(2009) 등 다수가 있다.

박정은 책임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경원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연구」(2010),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I, II, III)」(2010, 2009, 2008),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분야 정책과제」(2009),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I)」(2008),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 전략 연구」(2008),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2007),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 연구」(2007),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2006) 등이 있다.

안용진 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rban and Regional Planning, Ph.D 과정 중.

이진희 연구원

공학 석사(도시계획 및 설계), 연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2010),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방안 연구」(2010), 「뉴타운 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 연구」(2009),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방안 연구」(2008), 「도시 용지의 공급확대에 따른 계획적 활용방안」(2008), 「미래 도시정책방향 수립 연구」(2008), 「주민참여형 도시 개발사업방식 연구」(2007),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2007), 「김포신도시 개발계획 및 주변지역 관리 방안 연구」(2006), 「광역대중교통체계 기반의 포천신도시 개발전략 연구」(2004)

등이 있다.

정소양 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주요 연구로는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방향 연구(II)」(2010), 「국제회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2010),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2009),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전략 연구」(2008) 등이 있다.

구형수 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I, II)」(2009, 2010),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도시공간구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2009) 등이 있다.

박근현 연구원

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2010), 「한국의 도시화 과정과 정부 정책에 관한 연구」(2010)가 있다.

04

c h a p t e r VI

주택토지 · 건설경제연구본부

Housing, Land & Construction
Economy Research Division

연구본부 소개

주택, 토지 및 건설분야는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에서는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국민주거의 질 향상, 사회간접자본 및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분석·전망하고, 중장기적 주택계획수립 및 주거복지 정책을 개발하며, 토지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확충과 관리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연구센터

Center for Real Estate Market Analysis

-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 시장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 부동산 금융 및 세계
- 부동산정책 개발 및 정책효과 분석

주거복지전략센터

Center for Housing Welfare Policy

- 중장기적 주택종합계획 수립

-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평가
- 주택의 수급 및 재고관리 체계 구축

토지전략센터

Center for Land Policy

- 토지정책의 평가 및 개발
- 토지개발 및 부동산산업 정책 연구
- 토지이용 및 계획제도
- 토지 수급 및 재고 관리

건설경제전략센터

Center for Construction Economy

- SOC 투자 및 정책 평가
- 건설산업 및 제도
- SOC·건설 경기 및 동향
- 해외건설시장 및 정책
- 건설산업정보화



연구진 소개

김근용 선임연구위원

경영공학 박사, KAIST

현재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장, 한국주택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감사원 특별조사국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및 정책, 부동산금융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수요 지향적 주택공급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2009),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2009), 「주택정책 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 분석연구」(2008), 「주택수급 여건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2007),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실현방안 연구」(2005), 「지역간·계층간 주거격차 완화방안 연구」(2005), 「공공임대주택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2003), 「주택사업 유형별 지원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2002) 등이 있다.

이수옥 연구위원

문학 석사, 한양대학교

현재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 정책 및 시장분석, 주택금융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2008~2010),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2010),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2009),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 분석 연구」(2008),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인구나 가계자산 변동을 중심으로」(2007),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2007), 「주택분양가제도 개선방안 연구」(2007) 등 다수가 있다.

강미나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현재 주거복지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

는 주거복지 및 주택정책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2010), 「주거다양성 제고를 위한 단독주택시장의 구조적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2009),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 연구」(2009), 「2006, 2008 주거실태조사」(2007, 2009),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2008), 「2007 주거실태조사: 노인 가구」(2008),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 연구」(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고령자 생활패턴 분석을 통한 주거환경 편리성 개선방안 연구」(2007),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II)」(2006) 등이 있다.

최수 연구위원

도시행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현재 토지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 및 주택정책, 부동산 시장분석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산줄기·물줄기를 고려한 산지구분 및 합리적 관리방향 연구」(2010),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토지시장 관리방안 연구」(2009),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리츠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2008), 「2008년도 국내외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동향 연구」(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2007),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II)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와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2007), 「재건축사업의 계획적 관리 및 개발이익환수방안」(2006), 「공공택지 조성원가 및 공급가격체계 개선방안 연구」(2006),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6),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200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2005),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2004), 「부동산 관련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김성일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현재 건설경제전략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자체심사 평가위원, 국무조정실 성과관리 자체평가위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SOC 투자 및 건설산업 정책, 조달행정 및 정책 등이며, 주요 연구로는 「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III)」(2010),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부문의 대응과제」(2008), 「해외건설 제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2007), 「BSC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방안 연구」(2007),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방안 연구」(2006),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5), 「공공공사 발주행정 분권화 방안 연구」(2004), 「공공공사 클레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2003),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다양화 방안 연구」(2002), 「최저가 낙찰 제도의 정착방안 연구」(2001) 등이 있다.

김영표 선임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경원대학교

국토해양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국토연구원 부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 위원, 균형발전영향평가 단장,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개발사, 국토정책, 토지정책, GIS,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분야다. 연구실적으로는 「한국경제 60년사: 국토 및 환경」(2010), 「세종시 특별연구」(2010), 「글로벌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2010),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의 표기에 관한 실증연구」(2009), 「상전벽해의 국토60년」(2008), 「재정투자과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연구」(2007),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

이션모형 개발연구」(2005), 「한반도 산백체계 재정립 연구」(2004),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2004), 「토지공개념 연구」(1989), 「대도시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1980) 등이 있다.

배순석 선임연구위원

도시계획학(정책분석) 박사, University of Washington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민주당 소득격차완화 특별위원회 위원, 지방공영개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주택학회 운영위원장, 학회지 편집위원장 및 감사로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택지개발 및 재개발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주거다양성 제고를 위한 단독주택시장의 구조적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2009), 「서민 주거복지 확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2008), 「주요 주택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8),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주택보급률 110%,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2007), 「주택 재고관리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6),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2006), 「주택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품질보증체계 구축방안」(200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 연구」(2005) 등이 있다.

진정수 선임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건국대학교

현재 국토해양부장관 정책자문위원,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주택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정책 및 택지개발이며, 「택지개발사업의 공공·민간경쟁체제 도입방안 연구」(2009), 「서민주거복지 확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2008), 「합리적인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2008), 「국민주택기금 관리체계 개편연구」(2007),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실태분석 연구」(2006), 「철원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연구」(2006), 「지방분권시

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200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2005)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희남 선임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 및 토지정책, 토지 및 부동산시장, 부동산 법제와 부동산금융 등이며, 대통령비서실 경제구조조정기획단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연구」(2010), 「한국경제 60년사: 국토환경」(2010),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토지시장 관리방안 연구」(2009),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리츠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2008),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2008),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다양성 확보방안 연구」(2007) 등 89권의 연구 단행본, 「세계토지사」(1998) 등 4권의 번역서, 「정부수립 이후의 한국 토지정책 60년사 소고, 1948-2008」(2010), 「The commodification of land and housing」(2004) 등 84편의 학술지 발표논문, 「Urban Development and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Land Acquisition and Resettl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2010) 등 72편의 국내외 공개세미나 발표자료 등이 있다.

지대식 선임연구위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관리와 도시 행·재정이며, 건설교통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 연구실적으로는 「공공토지 비축을 위한 계획 수립 연구」(2010),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2009),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지원 방안 연구」(2009),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2008), 「투자자국

가소송에 대비한 토지구제 개선연구」(2008),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2008) 등이 있다.

김혜승 연구위원

이학 박사(주거정책), 경희대학교

현재 한국주택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수석 전문위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정책 및 주택시장 분석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미국의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비영리주택조직의 역할을 중심으로」(2010), 「주거다양성 제고를 위한 단독주택시장의 구조적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2009), 「주거실태조사」(2009, 2008, 2007, 2006), 「한국형 고령자주택 유형개발에 관한 연구」(2009),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2008),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수요추정연구」(2007), 「임대주택체계 개편연구」(2006), 「주거양극화의 현황 및 과제」(2006), 「임대료보조제도 확대도입방안 연구」(2004),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2004), 「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윤하중 연구위원

공학 박사, 경원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창원시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연구」(2010),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연구」(2009),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BTL) 민자사업 연구」(2008),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단계별 개선방안」(2007), 「하남-화도(국도45호선) 교통량 재검토 연구」(2006),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분석 연구」(2006),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준 및 절차지침 연구」(2004), 「민간투자사업의 성능제안

형 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2002), 「SOC 증장기 민간 투자계획 수립 연구」(2002), 「민간투자사업의 운영관리비 산정에 관한 연구」(2001), 「인프라시설의 타당성 개선방안 연구」(2000) 등의 연구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시설 타당성조사 및 다수의 민간투자사업 평가와 협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사업추진팀장을 역임하였다.

최혁재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도시 및 지역개발), 건국대학교
국무총리 물관리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부패방지위원회 전문위원,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바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이용 및 개발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군사시설관련 분쟁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2009),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수립」(2009), 「국방·군사시설관련 계획체계 정비 및 국토이용체계와의 연계방안」(2008),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2007), 「행정중심복합도시주변지역관리방안」(2006), 「유희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2005),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2005), 「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방지방안 연구」(2004),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발전방향」(2003), 「농지제도 개선방안」(2003) 등이 있다.

천현숙 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건설교통부 자체심사평가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감사원 건설물류국 자문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한국주택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정책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주거안정망 구축방안 연구」(2010), 「최저주거기준 개선

방안 연구」(2010),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발전전략: 주거부문」(2009), 「보급자리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 연구」(2009), 「커뮤니티재생 거버넌스 및 운영시스템 개발」(2008),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2006),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2005),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개편방안 연구」(2003),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2002), 「수도권주택건설과 인구집중」(2001) 등이 있다.

이승복 연구위원

경영학 박사(자원환경관리), 단국대학교
자원관리 및 경제성 분석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0),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2009), 「남북경협 활성화 시대에 대비한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2008),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2007), 「하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하천관리체계 모색연구」(2006), 「대체수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2006), 「홍수피해 특성분석 및 홍수피해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2005), 「하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평가 기준설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2004) 등이 있다.

이형찬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건설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건설정책 및 제도를 주요 연구분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 가능성분석」(2004), 「공공공사 발주행정의 분권화 방안 연구」(2004), 「건설교통부 성과관리지침 개발 연구」(2004), 「공공공사의 클레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2003), 「대형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연구」(2003),

「제2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수립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김민철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건설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건설경기 및 제도를 주요 연구분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비수도권 인구정체형 도시의 주거문제와 정책방안」(2010), 「건설경기 진단 및 전망체계 구축방안」(2010), 「고유가에 대한 건설산업 대응 전략」(2008),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II)」(2008), 「해외건설개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2007), 「건설수요구조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6),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2006),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5) 등이 있다.

김승중 책임연구원

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법제와 토지정책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농어촌지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어촌 뉴타운사업 발전방안」(2010),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토지시장 관리 방안 연구」(2009),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2008),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2007),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 연구」(2006), 「유희농지의 효율적 활용 관리방안 연구」(2005),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2004) 등이 있다.

손학기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서울대학교
주요 관심분야는 산지관리,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GIS, 공간통계 등이다. 주요 연구·프로젝트로는 「산

줄기·물줄기를 고려한 산지구분 및 합리적 관리방향 연구」(2010),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토지시장 관리방안 연구」(2010), 「자연친화적 산지이용기준 정립 연구」(2009), 「합리적 산지관리제도 개선방향 연구」(2008)가 있다.

송하승 책임연구원

현재 Newcastle University upon Tyne, Schoo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landscape, Ph.D 과정 중.

박천규 책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수요 지향적 주택공급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2009),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I)」(2008), 「부동산시장 BSI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연구」(2007),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인구와 가계자산 변동을 중심으로」(2007), 「주거양극화의 현황 및 과제」(2006),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2005),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주택자금대출시장의 개선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하수정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현재 「사회, 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2011), 「주택관련지표의 국제비교 연구」(2011), 「베이비붐세대의 은퇴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2011) 등을 연구 중이며 주요 연구 실적으로는 「비수도권 정체형 도시의 주거문제와 정책방안」(2010) 등이 있다.

04

전성제 책임연구원

지리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연구(I, II)」(2009, 2010),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 분석 연구」(2008),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 공급체계 개편방안: 주택보급률 110% 초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2007), 「주택분양가제도 개선방안 연구」(2007), 「주택종합계획(03~12) 수정보완을 위한 연구」(2007),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2006) 등이 있다.

이현지 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공공토지 비축을 위한 계획 수립 연구」(2010),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2010), 「주거안전망 구축 방안 연구: 장기공공임대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2010)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배유진 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I)」(2010)에 참여했으며,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 방안 연구」(2011), 「자연친화적 산지 이용관리 방안 연구」(2011)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05

c h a p t e r VI

국토인프라 · GIS연구본부

National Infrastructure &
GIS Research Division

연구본부 소개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는 전국 간선도로·철도망 계획, 광역 종합교통계획 등 국가 및 권역, 도시 차원에서 주요 교통정책과 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해 왔으며, 국가GIS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연구·지원하고, 계획시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향후 국가 정책 발전 방향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중점 연구분야로 국가 및 권역 발전 지원 주요 교통정책 개발, 중장기 교통투자 계획수립, 공간구조와 연계한 교통축 개발계획 수립, 도로·철도 고속 간선교통망 계획 수립, 한반도 및 동북아 발전과 관련한 국제교통망계획 수립,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표준화와 아키텍처 연구, GIS 기반의 전자정부·지방정부 구현 방안, GIS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방안, 사이버국토 건설 및 유비쿼터스[時空自在] 공간 창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인프라전략센터

Center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olicy

- 국가기반시설의 종합계획 수립
- 인프라 사업의 계획 및 평가
- 인프라 사업의 국토공간 영향 분석
- 인프라 관련 법·제도·조직 개선

도로정책연구센터

Center for Road Policy Research

- 도로정책 수립
- 지자체 도로정비기본계획 검토 및 자문
- 도로투자사업 평가
- 도로관련 법·제도·조직 개선

GIS연구센터

Center for Geo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계획 수립
- GIS기반의 유비쿼터스 세상 실현
- 공간정보 분석 및 분석 방법론
-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제도·조직 개선

국토정책시뮬레이션센터

Center for Territorial Policy Simulation

- 국토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계획에 대한 모의실험 및 평가
- 대형 국책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 기타 GIS의 응용 및 계량분석과의 연계 방법론 개발



연구진 소개

류재영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교통계획학 박사, 한양대학교

현재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장이며 KIST지역개발연구소(1979~1981)와 국토연구원에서 「대량화물 수송 및 전국수송체계 최적화 방안 연구」(1979, IBRD), 「항만배후단지의 물류비즈니스모델에 기초한 물류정책방향」(2008),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연구」(1993, 2007), 「서남해안 국제관광 및 물류단지 개발구상 연구」(2004), 「국토공간이용 및 사회간접자본 최적화모형개발」(2000), 「Transforming Korea into a Logistics Center for Northeast Asia」(1998), 중부·서울외곽순환·중앙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분당선·안산선·서울 지하철 1기·2기·3기 계획 등 간선교통망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에 참여하였다. 건설교통부 장관자문관(2001~2005),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장(2006~2008)을 지냈고 국토해양부 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 한국자전거정책연합 대표이사, 세계도로협회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교통공학 박사, Virginia Tech

주요 연구분야는 ITS 표준화, ITS 기본계획, SOC 투자평가 등이며, 현재 ISO/TC204 국제표준기구의 u-ITS 분과 위원장과 ITS 표준총회 기술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GIS 기반 국가 기간교통망 통합계획기법 적용연구」(2010),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연구-교통부문」(2009), 「유비쿼터스 교통시스템 아키텍처 개발 연구」(2006~2010), 「디지털국토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교통정보 인프라 구축방안」(2007),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2006), 「국가 ITS 기술표준화 1~6단계 연구」(1998~2005) 등 다수가 있다.

정일호 선임연구위원

교통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Leeds

도로정책연구센터장으로 주요 연구분야는 SOC 투자정책,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체계분석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2010), 「한·중 공동발전을 위한 국토전략 연구」(2009), 「국토 대예측」(2009),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09), 「간선도로 기능제고방안 마련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2008), 「전국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II)」(2008),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전면개정 연구」(2007),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수정계획 연구」(2007), 「수도권 고속도로망 실행계획 연구」(2007), 「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2006),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2005), 「SOC 공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2004) 등 다수가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예산자문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문섭 연구위원

지리정보공학 박사과정 수료, 인하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정보화 및 GIS정책이다.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이사, 국가GIS추진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차세대 디지털 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I, II)」(2009, 2010),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I)」(2007),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2006), 「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2005),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2003),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연구」(2003), 「국가GIS 평가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방안 연구」(2002), 「GI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 연구」(2000) 등 다수가 있다.

안흥기 연구위원

도시경제학 박사, 서강대학교

건설경제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분야는 SOC, 건설경제, 지역경제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2010),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방안(II)」(2008), 「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2007),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 간 배분과 지역경제성장률에 관한 연구」(2006),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2005),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2004), 「공공투자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01), 「MRIO모형구축과 SOC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2000) 등 다수가 있다.

조남건 선임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SOC 투자평가 및 사후평가, 고속철도 영향분석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고속대중교통체계 중심의 도시권 공간구조 형성방안」(2010), 「울릉도 일주도로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9), 「지방대도시권 간선도로망 체계 연구」(2009), 「신안산선 지역갈등 해소」(2008), 「Korea High Speed Rail Construction and Its Impact」(2008), 「1. 5차로에 관한 기초연구: 1차로 도로의 개량방안」(2008),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도로망 연계성 제고방안」(2008), 「도로분야 제도개선 및 도로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2008), 「중부선(하남-호법 간) 외 5개 노선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연구」(2006),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I)」(2005), 「창선-삼천포 대교 건설공사 사후평가연구」(2004),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5개년 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2004), 「서해안선 외 2개 노선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2004), 「고속철도개통에 따른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3), 「고속도로 확장투자계획 수립 및 효과

분석 연구」(2002),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망체계 구축방향」(2002) 등 다수가 있다.

이춘용 선임연구위원

공학 박사, 한양대학교, 교통기술사

주요 연구분야는 도로계획 및 정책, 교통계획, 지역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2000~2010), 「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도입방안 연구 -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 저감 방안을 중심으로 -」(2009), 「도로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교통부문」(2005~2006),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2004), 「일반국도 및 국도 대체우회도로 증장기계획 수립 연구」(2003), 「수도권 및 지방5대 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연구」(2000, 2001), 「국도 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1999), 「국도 대체우회도로 기본계획 조사」(1997), 「도로정비 증장기계획 수립 연구」(1997) 등 다수가 있다.

김홍석 연구위원

공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SOC 종합계획 및 운영·관리, 교통계획수립 및 교통정책방향, 공공사업 및 수요분석 관련 연구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오산-양재) 대중교통활성화 방안」(2010), 「지방대도시권 간선도로망 체계 연구」(2010), 「신안산선 지역갈등 해소」(2009),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교통부문)」(2009), 「남북교류협력과 철원 발전방향 연구(교통부문)」(2009), 「광역대도시권 SOC 정책의 새로운 방향」(2004) 등 다수가 있다.

정진규 연구위원

도시학 박사, Portland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 및 토지이용, 광역 및 도시교통계획, 정보화와 교통, 계획이론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고속대중교통체계 중심의 도시권 공간구조 형성방안」(2010),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2009),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2008),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합리적 자원부담 연구」(2007),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 연구」(2006), 「대도시권 교통개선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연구」(2005), 「대도시권 SOC정책 결정체계에 관한 연구」(2004),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 연구」(2003) 등 다수가 있다.

김호정 연구위원

공학 박사, 홍익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과 도로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승용차 이용자가치를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방안 연구」(2008), 「간선도로 기능제고방안 마련 및 증장기계획 수립 연구」(2008),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 연구」(2007), 「수도권 고속도로망 실행계획 연구」(2007), 「전국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2007),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전면개정 연구」(2007), 「고속도로사업효과 조사연구」(2006), 「교통서비스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2006) 등이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항만정책심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동빈 연구위원

공학 박사, 연세대학교,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정보시스템수석감리원

주요 연구분야는 국가GIS정책, 지리정보유통, GIS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분야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 연구」

(2009),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2008),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세계측지계의 체계적 적용방안」(2007), 「국가지리정보유통 고도화 방안 연구」(2006), 「도로기반 시설물 통합관리사업 확대추진 방안 연구」(2003), 「기본지리정보구축 추진전략 수립 연구」(2002),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감리사례 연구」(2002), 「제1차 국가GIS사업 백서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오성호 연구위원

공학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현재 첨단교통(ITS) 표준연구단장을 맡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정보(ITS), 교통계획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2006년 국가 ITS 기술표준화 연구」(2007), 「U-City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방안 연구」(2007), 「표준 노드/링크 체계 구축사업」(2005), 「고속도로화장투자 5개년 계획」(2004),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 및 추진 계획」(2003),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종합체계 조사 연구」(2003) 등 다수가 있다.

박종택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중앙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정보 및 국가GIS정책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2010), 「한국형 국가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연구」(2009),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분석 및 역량 제고방안」(2008),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전략 연구」(2007),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I)」(2005), 「국가GIS증장기 정책방향 연구」(2004), 「2004년 국토조사사업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2003), 「지리정보기반의 지역 간 격차분석연구」(2002), 「GIS사업의 효과측정기법 및 적용연구」(2001) 등 다수가 있다.

한선희 연구위원

전자계산학 학사, 동국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통계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글로벌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전략」(2010),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I, II)」(2007, 2008),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2006),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창조방안(II)」(2005),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연구」(2005), 「접근불능지역의 지리정보 구축 방법」(2004), 「지리정보의 정확도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임영태 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경제와 물류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가물류경쟁력강화를 위한 복합교통수단 연계운송체계 구축방안 연구」(2010), 「글로벌 통합물류체계 연결을 위한 Port Biz Valley 구축방안 연구」(2009), 「물류산업 발전지표 개발 및 국내 물류산업 발전방안 연구」(2009), 「항만배후단지의 물류비즈니스 모델에 기초한 물류정책방향」(2008), 「한국형 부가가치 물류클러스터 창출방안 연구」(2007), 「전국 무역항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수립 연구」(2006), 「연계성을 고려한 수송물류결절점 평가기법 연구」(2005) 등 다수가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미정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건국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 토지정보화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사회적 약자 맞춤형 국토공간정보 구축 전략 연구」(2009),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09),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기반연구」(2008), 「GIS기반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2008), 「2007 국

가GIS 자원연구-표준」(2007),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연구」(200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운영관리」(2000~2005) 등 다수가 있다.

임은선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건국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분석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공간활용도 제고방안」(2010),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구축 연구」(2006~2009),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저소득층 정착방안 연구」(2009),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전략」(2008~2009),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기반연구」(2007),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공간구조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2006),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2005~2006),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5) 등 다수가 있다.

김대중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주요 연구분야는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및 공간통계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도시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예측 연구」(2011),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 연구」(2008~2010), 「2010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운영관리」(2010), 「국토정책 시뮬레이션모형 구축연구」(2010), 「신성장산업의 입지패턴 실증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2009), 「인간과 지리물리적 모델에서 생태경계 설정에 관한 연구」(2008), 「미국의 시설물 입지 평가 및 에이전트 기반 모델에 대한 사례 연구」(2007), 「토지투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론 및 모델 개발」(2006),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1998~2003), 「환경적합성 사전분석시스템 구축연구」(2001),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1998), 「제주도 중산간 보전 및 이용계획수립 종합조사」(1995~1997) 등 다수가 있다.

김 결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Florida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재생과 U-City 및 공간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등이다. 연구실적으로 「국내외 U-City 논문의 연구동향」(2011),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분석 및 격차 완화방안」(2010), 「제3차 국가GIS사업 백서」(2010),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I)」(2010),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2010),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저소득층의 이주패턴 및 정착방안 연구」(2009), 「국가GIS지원연구」(2008) 등이 있다.

이백진 연구위원

공학 박사, Hiroshima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및 ITS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도입방안 연구」(2009),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연구」(2009),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I)」(2008),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2차 연도)」(2008), 「아시안하이웨이 1번노선(서울~신의주) 이용수요 추정모델 연구」(2008) 등 다수가 있다.

조춘만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최근 연구분야는 유비쿼터스도시, 첨단그린도시 등 국토·도시계획 위한 GIS/IT의 응용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2010), 「U-City 국제협의체 추진전략 수립연구」(2009),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2009),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 연구」(2008),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기본계획수립 연구」(2006), 「광역대중교통체계 기반의 포천신도시 개발전략 연구」(2004~2006), 「파주시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연구」(2004) 등이 있다.

고용석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과정 수료,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도로 및 교통계획, ITS, SOC 투자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기반 국가기간교통망 통합계획기법 적용연구」(2010), 「한국의 도시화과정과 정부정책에 관한 연구」(2010), 「저탄소 녹색성장 요금체계 개편방안 연구」(2010), 「도로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연구, 제3차 5개년(2011~2015) 계획」(2010),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2009),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수립을 위한 연구」(2009) 등 다수가 있다.

이미영 책임연구원

교통공학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및 교통공학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가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교통수단 연계운송체계 구축방안 연구」(2010),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공간활용도 제고 방안: 지방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2010), 「글로벌 통합물류체계 연결을 위한 Port Biz Valley 구축방안 연구」(2009), 「u-T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연구(3차 연도)」(2009), 「도로정책 연구 센터 운영연구(2단계)」(200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2008),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 방안 연구(I, II)」(2007, 2008),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연구」(2007) 등 다수가 있다.

이영주 책임연구원

Media and Governance 박사, KEIO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GIS를 활용한 마케팅 분석, 지역 분석, 국가공간정보정책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4차)」(2010),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과 파급효과 분석 연구」(2010), 「한국형 공간정보 인프라 모델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연구」(2009), 「공간정보의 패러다임변화에 대응한 국가GIS전략 연구」(2007), 「국가GIS지원연구」(2006, 2007), 「Study on Locational Strategy of Bank Channels Using GIS: Case Study of the 3 Mega Banks in Tokyo 23 Wards」(2006),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연구」(2005), 「GIS를 이용한 시장세분화 분석: 동경 23구를 중심으로」(2004) 등이 있다.

김중학 책임연구원

교통공학 박사과정 수료,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체계분석이며, 주요 연구실적은 「녹색교통활성화에 따른 대기오염저감효과 분석」(2009), 「승용차 이용자가치를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방안 연구」(2008),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2007), 「교통서비스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2006),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 연구」(2005), 「BRT와 혼잡통행료의 통합시행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2004) 등 다수가 있다.

김동한 책임연구원

현재 University College London, Centre for Advanced Spatial Analysis, Ph.D 과정 중.

강혜경 책임연구원

지형공학 박사, 부산대학교
 주요 관심 분야는 공간정보정책, 공간정보표준이다. ISO/TC211 WG10에서 ISO19151 프로젝트 책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 및 파급효과 분석」(2010), 「2009년도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연구: 공간정보표준 적합성 평가체계 마련, 공간정보표준특허조사」(2010), 「2008년도 국가GIS지원연구: 국가GIS표준체계확립 및 표준관리」(2008),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분석 및 역량 제고방안」(2008), 「Dynamic Position Identification Scheme for Ubiquitous Space(u-Position)」(2008), 「A Framework for Dynamic Updates of Map Data in Mobile Devices」(2007), 「다중축척 공간 데이터의 축소연산자를 위한 위상관계 일관성 평가」(2005) 등이 있다.

김준기 책임연구원

교통시스템공학 박사,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주요 연구분야는 행태분석 및 교통안전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스마트 인프라 투자평가 방법론」(2010), 「지방대도시권 간선도로망 체계 연구」(2010),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연구(교통부문)」(2009), 「지속가능한 교통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도입방안 연구: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 저감 방안을 중심으로」(2009),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I)」(2008),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도로망 연계성 제고방안」(2008),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2008, 2009) 등이 있다.

서기환 책임연구원

현재 Arizona State University, Ph.D 과정 중.

김혜란 책임연구원

교통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의 사회적 파급효과, 활동기반 통행행태 분석, 미시 교통시뮬레이션 등이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는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2010), 「도시통근자의 활동발생 및 통행사슬 모형」(2008) 등이 있다.

정선영 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Traffic Safety and Operations Lab in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Ph.D 과정 중.

서민호 연구원

도시계획 및 설계학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동북아를 포함한 한반도 기간인프라망계획 및 ITS이다. 기간망계획 관련 주요 연구로는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I)」(2008), 「베세토 비즈니스 회랑 구축 제안」(2006~2007), 「한반도 도로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2005~2007), 「한반도 기반 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2006) 등이 있다. ITS 관련 주요 연구로는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 연구」(2007~2011), 「U-City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방안연구」(2007), 「TAGO 기본계획 및 유지관리방안 연구」(2007) 등이 있다.

박종일 연구원

공학 석사, 홍익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및 교통정보(ITS)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새만금지역 광역연계교통체계구축 계획수립」(2010),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2차연도)」(2009), 「수도권 지능형교통체계(ITS) 정보연계 및 활용방안」(2009), 「세계철도 기술수준 및 투자방향 분석을 통한 철도투자정책 재정립 연구」(2008), 「통근통행수요 저감을 위한 원격근무 지원방안 연구」(2007),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의 합리적 재원부담방안 연구」(2007) 등 다수가 있다.

06

c h a p t e r VI

글로벌개발협력센터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개

세계경제의 동반발전과 개도국 등 저소득 국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12월 설립되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33년간 축적한 국토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건설

팅, 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연구진 소개

사공호상 선임연구위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도시계획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이며, 국토해양부/산림청 정책평가위원, 한국지리정보학회 부회장, 안양대학교 도시정보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2010),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연구」(2009), 「공간정보 패러다임변화에 대응한 국가 GIS 전략 연구」(2007),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2006),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방안 연구」(2003), 「원격탐사와 GIS의 연계활용방안 연구」(2002), 「GIS 온라인교육 도입방안 연구」(2002), 「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국토자원분석 연구」(2000) 등 다수가 있다.

조진철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Portland State University 동북아 및 북한분야 전문가로서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연구개발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II): ODA 활용 극대화를 통한 시장확대 전략을 중심으로」(2010),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2009), 「해외도시개

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2008), 「동북아 핵심경제 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II)」(2008), 「북한 주요항만의 배후산업단지 개발전략 연구」(2007), 「개성공단 및 남북한 서해안 연안지역 개발전략 연구」(2006),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2005),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서해 남북접경지역 이용방안」(2004), 「북한 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2004) 등이 있다.

07

c h a p t e r VI

기획경영본부

Planning & Management Division

기획경영본부 소개

기획경영본부는 연구원 전체의 연구기획 및 직원의 역량 개발과 지속적인 혁신의식 고취, 연구본부에 대한 융복합 정책 연구 및 고객지향의 창조적 연구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연구지원센터는 연구원의 예산편성, 국제협력 및 해외 기관과의 학술교류 업무, 보다 나은 연구환경 조성

을 위한 정보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관리센터는 직원의 복리후생 및 노사관계 업무와 운용자금 관리, 청사시설 관리, 출판물 기획·편집 및 홍보, 문헌관리 및 연구 관련 사무와 행사지원을 포함한 연구원 행정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연구진 소개

유재운 선임연구위원(기획경영본부장)

도시경제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경제, 도시개발, SOC 투자 등이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국토정책의 시물레이션체계 구축 전략」(2009),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 DB 구축」(2009),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I)」(2007), 「건설수요구조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6), 「기업도시 타당성 검토기준 및 개발이익산정 연구」(2005), 「민간투자사업의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5), 「도시개발의 재정영향분석에 관한 연구」(2002), 「도시개발비용의 구조분석 연구」(2001), 「도시문화산업 육성방안 연구」(2000), 「도심재개발 활성화 방안」(1997), 「도시경쟁력평가에 관한 연구」(1996) 등 다수가 있다.

김명수 연구위원(연구기획조정팀장)

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생태계획 및 경관계획 전문가로서 경관생태학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2010),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I, II)」(2008, 2009),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분야 정책과제」(2009),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전략연구」(2008),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2007),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물 평가지표 작성 및 DB구축 연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2006), 「도시경관 관리제도 정비방안 연구」(200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기본계획 수립」(2005), 「포항제철소 그린마스터 플랜」(2005),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기본계획수립 연구」(2004),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성 확보방안 연구」(2004), 「서울의 주요 하천변 경관개

선 방안 연구」(2002) 등을 수행하였다.

이승욱 연구원

도시공학 학사,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2009),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연구」(2009),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2009), 「4대강 살리기 관련 외국사례와 시사점」(2009),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제도 도입방안」(2008) 등이 있다.

연차보고서 발간 전담반

반장 임정천 출판문헌팀장
반원 조진철 연구위원
권대한 책임연구원
손학기 책임연구원
이미영 책임연구원
이영주 책임연구원
장은교 책임연구원
구민상 연구원
김은선 연구원
백승현 연구원
오선영 연구원
이윤정 전문원
이진희 연구원
간사 한여정 전문원(직급별 가나다순)

2010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발행인 · 박양호
발행처 ·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 제2-22호
인쇄 · 2011년 8월 23일
발행 · 2011년 8월 29일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431-712)
전화 · 031-380-0114(대표)
팩스 · 031-380-0470
ISBN · 978-89-8182-806-6

www.krihs.re.kr

©2011, 국토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0 Annual Report

국토연구원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431-712)
전화 031-380-0114(대표) / 팩스 031-380-0470 / <http://www.krihs.re.kr>

